



통권 131 호

#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2. 9. 13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조속한 ‘비전향 장기수 2차송환’ 을 촉구한다.



9월 2일 명동 향린교회에서는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회의 각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1차송환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기관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향공작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며, 최근의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9월 4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 목 • 자 •

우리의 주장 권오현 회장 • 2 / 출소장기수 송세영선생님을 찾아서 오영순 편집위원 • 4 / 양심적 병역기피자 유호근님을 찾아서 박인석 편집위원 • 7 / 출소양심수 심재춘회원을 찾아서 이창희 간사 • 9 / 노동자 양심수 이민구님께서 보내온 편지 • 12 / 한총련의장 양심수 손준혁님께 보내는 편지 왕준영 회원 • 13 / 면회기 유영순 편집위원 • 14 / 민가협수련회 참가기 김호 편집위원 • 15 / 회원교육강좌 보고 김창희 회원 • 17 / 특집 '8·15 서울민족통일대회' 보고 권오현 회장 • 18 / 논단 - 병역비리의 역사 한홍구 교수 • 25 / 나의 삶 나의 일터 고현희 편집위원 • 29 / 시사만화 • 30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31 / 재정보고 • 39 / 회비납부 • 4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5-5282 전승: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전승: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o.or.kr](http://www.yangsimso.or.kr)

## 정순택, 정순덕 노인등 2차송환희망자 32명을 조건없이 송환하라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녘고향으로 돌아간 지 오늘 2돌을 맞고 있다. 분단 아픔을 온 몸으로 떠안고 수십년 옥고를 치루면서도 통일염원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신념의 강자들이 마침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의 길을 넓히면서 마음속 고향, 그리운 가족품으로 돌아갔던 그 날의 감동은 두고두고 민족의 경사로 남겨질 것이다. 비록 정순택, 정순덕 두 노인이 빠지는 안타깝고 개탄할 일이 있었지만 큰 흐름으로서의 9.2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구체적 실천이면서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승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한번으로 끝날 수는 없었다. 분단체제가 불러온 억혹한 사회현실로 미처 송환신청을 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남아 있었다. 바로 비전향장기수였지만 가정문제 등으로 송환신청을 유보했었거나 오랜 권위주의체제와 공안당국의 감시·통제속에 고립되고 폐쇄적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송환과 관련된 정보나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순택, 정순덕 노인처럼 부당한 전향제도 아래 강제전향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렇게 강제로 전향당한 사람들을 결코 '전향장기수'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상전향을 강제했던 사회안전법과 사상전향제도를 위헌성과 국제인권협약에 배치되고 있다는 사회여론으로 정부 스스로 폐기했으며 본인 의지에 반하여 잔혹한 고문 행위등으로 강제전향시킨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지난 해 2월 6일 두 유형의 장기구금양심수 33명이 전향무효선언과 함께 북녘고향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 모두를 비전향장기수로 규정하고 조건없는 송환을 촉구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같은 해 8월 9일엔 추진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등 3당정치인, 언론인, 교수, 정책연구소 연구원등이 함께하는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촉구하는 토론회에서도 본인의지에 반하는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고 사상전향제도 자체도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위배되는 반인권, 반인륜제도임을 확인했었다.

그런데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국가기관의 중대 발표가 있었다. 지난 8.29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74~76년 사이 대전과 대구교도소에서 사망한 비전향장기수 최석기, 박용서, 손윤구씨 사건 의문사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당국이 발표했던 단순 사망, 자살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사상전향을 강제하는 공권력의 위법한 폭력행위로 타살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전향공작에서는 죽을 것인지, 전향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할 만큼 갖가지 고문형태가 잔혹했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법과 사상전향제도를 폐기함으로써 잘못된 법과 제도였음을 인정하였지만 그 잘못된 제도와 위법한 행위로 비전향장기수를 죽게 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었다. 그런데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의 죽음들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차원의 보상을 함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이같은 조사결과 발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옥중사망 사건 진정의 최종판단(민주화운동관련여부등)을 기다릴 필요도없이 사상전향제도의 부당성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했다는 조사결과 발표만으로도 국가는 고인들에게 응당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제도아래 잔혹한 고문등으로 강제전향당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1차비전향장기수 송환에서 제외되었던 정순택, 정순덕 노인을 비롯한 강제전향당한 모든 장기구금 양심수의 전향자체를 정부가 무효화하고 전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함도 주장한다. 그러한 보상 가운데 2차송환 희망자들의 전향무효선언과 송환요구를 지체없이 받아들여 빠른 시일안에 조건없이 송환할 것을 주장한다.

**2차송환 희망자들** 가운데는 전쟁포로 출신 13명도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전향강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가 보장되어야 했었다. 이들은 국제법상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 학대, 고문을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와 부당한 재판과 형의 집행도 당해서는 안되었었다. 또한 적대행위가 끝난(정전협정)뒤 60일 이내에 이미 복송되어야 했던 신분이었다.

우리는 비전향장기수송환과 함께 송환에 따른 또 다른 인도주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1차송환때 신인영 노인의 93세된 노모님을 모시고 가야하고 이경구 노인 등 가정을 이루었던 부인이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했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이제 95세된 어머니는 아드님과 여생을 보내려던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한 채 아드님의 운명소식을 듣는 안타까움에 있게 되었다.

비전향장기수송환의 1차적 의미는 그들이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지향해 왔던 세계로 돌아가는 문제였지만 노모를 모시고 가고 부부가 함께 가야함은 1차적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도주의 문제이며, 인류에 관한 문제이다.

이들의 재결합문제는 바로 비전향장기수송환의 연장 문제이다.

**이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요구하고 나선 지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2차송환에 대한 정부당국의 의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전쟁책동 등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매우 고무적인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57년만에 처음으로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와 8.15민족통일대회를 성사시킨 것을 비롯, 남북당국자회담이 잇달아 열리고 경의선 잇기 등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뿐만 아니라 조·일 정상회담, 미국특사의 평양방문도 예정돼있어 얼어붙었던 동북아 기류가 풀려가고 있다. 특히, 9.4~6일 사이엔 남북적십자대표회담이 예정돼있는 등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인도주의문제가 다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회담에서는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이행이 어떠한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되듯이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전향장기수 송환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신뢰를 쌓고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본보기로써 그리고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정순택, 정순덕 노인등 32명을 조건없이 송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 “자기 반성을 생활화하면 단결할 수 있다”

오영순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갈현동후원회 회원

급작스런 만남  
에 늦을세라  
약속 장소에 도착했  
을 땐 이미 선생님과  
갈현동 후원회 회장이  
그 자리에 와 있었다.  
어수선한 지하철역을  
빠져 나와 배고픔을  
씻어내고, 어느 조용한  
다방에 자리하였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선생님께서 박정철  
회장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고,  
나 또한 막상 뵈니,  
낮이 익은 지라  
긴장되리라는 생각과는  
달리 편안함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송세영 선생님은 1931년 2월 7일 논산 연무읍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나셨다.

서당을 운영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가 계셨기에 집안은 늘 단란했고, 어렸을 적부터 고생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사셨다 한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걸 무척이나 좋아 하셨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어려운 한문도 탐독했을 뿐 아니라, 일본문학전집, 세계문학전집을 비롯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셨다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946년 논산 대건중학교에 입학하신 선생님은 이웃



양심수후원회 산행에 함께하신 송세영선생님 (왼쪽 상단 세번째)

마을 익산을 자주 드나드셨다. 큰외숙 영향으로 온 집안이 좌익운동 분위기던 외가를 빈번히 드나들면서 열다섯 어린 나이에 선생님의 의식은 변화되고 있었음이라!

1947년 학내 분위기는 좌·우익으로 나뉘었다. 이때 '민주학생연맹'에 가담하여 학생운동을 시작하신 선생님은 전단지 살포를 하다 두어차례 유치장 신세도 졌지만 그때마다 어린 학생인지라 쉽게 풀려나셨다. 그리고 학내 분위기는 '민학'의 힘이 크게 작용하면서 '민학'은 학내의 모순된 문제들을 제기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8년 여름 민학이 와해되면서 '민학'에 가담한 모든 학생은 철창신세를 지고 담임선생님과 주동자들은 송치되었고, 선생님은 3개월 감금 생활 끝에 기소유예로 풀려나셨다.

선생님 나이 19세, 한국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 선

선생님께서 어렵게 학교에 복귀하게 되지만, 곧바로 한국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더이상 학교를 나갈 수 없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청년과 친구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며 의견을 나누었지만, 조직의 끈이 닿지 않아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즈음 면소재지에 다니는 둘째 형님께 밥을 갖다 드리는 일을 선생님께서 하게 되셨는데, 밥을 갖다주러 간 선생님을 지켜본 면소재지 직원이 좌익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신고하여, 잡혀 들어갈 뻔한 선생님께서는 겨우 그 위기를 넘겼지만 겁이 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때부터 친구 집에서 전전궁궁하며 지내야만 하셨다.

친구집에서 전전궁궁하며 지내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냐는 고민을 친구들과 나누던 선생님은 이즈음 인민군 선발대를 맞이한다. 선발대는 남으로 내려가고, 선생님은 이때부터 '민청사업' 조직에 참여하여 간부로 열렬히 활동하신다.

1950년 9월 인민군이 후퇴할 때, 선생님은 대둔산으로 들어가신다. 함께 한 사람중에 선생님께서는 비록 어린 나이에 속했지만, 통신중대 연락책으로 발품팔이를 하며 지시문을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맡으신다. 일이 없을 땐 '학습강사'를 하시기도 했는데 주로 노동신문을 읽은 후 중요한 사항이나 세미나에서 발표된 중점 사항을 전달하고 강의도 했더니, 참으로 선생님이 큰 일꾼이셨음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1951년 추운 겨울, 대공세에 쫓겨 지리산 쪽으로 후퇴하던 중대는 장수(백운산) 골짜기에서 좁혀 들어오는 포위망에 무너졌다. 마침내 52년 1월초 선생님이 이 과정에서 붙잡히신다.

'특별 조치령' 위반이란 죄목은 사형감이었지만, 나이도 어리고 심부름만 했다가하여 선생님은 15년 형만 받으셨고, 또한 다른 이에 비해 고문도 적게 받았다고 하니, 그나마 이 대목에서 위안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53년! 대전형무소로 이감된 선생님은 폐결핵 환자들만 송치하는 마산 형무소로 다시 이감되는데, 그곳에서

는 환자전문치료 형무소라 해서 밥도 조금 더 나오고 약도 나오는지라 조금은 편하셨다 한다. 그러나 54년 12월부터 마산형무소에 최초로 전향공작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때 몸과 마음이 약해질대로 약해진 환자들인지라, 많은 사람이 전향 공작에 대부분 넘어갔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전향공작 사업때 전향을 안한 사람들만 대구 형무소로 이감되었고, 이곳에서는 15~20년 형을 받은 사람들만 백명을 채워 마포 형무소로 다시 이감돼 마포 인쇄공장에 일꾼으로 투입됐는데, 이들 중에 선생님도 끼셨다.

56년 12월! 마포형무소에도 전향 공작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중에 전향하지 않은 스무 명은 부산으로 이감되어 처음으로 독방생활을 하는데, 이중에 선생님도 다시 함께 하신다.

1960년 4.19혁명때 부산형무소 장기수 선생님들이 '공장출력 해달라', '지필묵 허가하라', '주·부식 정량 제공하라', '기타 운동시간 보장하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일주일동안 단식투쟁에 들어갔는데, 형무소 측에서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 한다. 그러나 공장출력 요원으로 일하던 선생님은 1961. 5.16 쿠데타 이후에 다시 대전으로 이감되었고, 1967년에 만기 출소를 하신다.

## 선생님 나이 서른 일곱!

청춘을 감옥생활에 투신한 선생님은 바깥세상의 고단함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님도 세상을 떠난 후였고, 가족들은 선생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그 누구하나 선생님을 받아줄 수가 없었다.

그 후 큰 누님집에 겨우 숨어 지내다 어찌하여 아는 사람 소개로 강말분 여사를 만난 선생님은 백년가약을 맺으신다. 선생님이 헤쳐온 그 모든 인생사를 듣고도 묵묵히 선생님과 함께 해오신 사모님! 이 분이야말로 진정한 참 동지며 친구가 아니실까? 문득 그러보니 풋풋한 인자함이 묻어나오실 것 같다.

겨우 신집살이를 차린 후 리어가 장사에서부터 안한 것 없이 다해보셨다는 선생님!

선생님의 부지런함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부터 창조 되었음이라! 그 창조된 선생님 모습이 있었기에 슬하에 자녀 두분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였음을 증명하리라!

“살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나? 나 역시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로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려면 민족대단결속에 6.15남북 공동선언을 관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씀 하시는 선생님!

“생활상에서 단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의견에서 비롯된 모든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겸손하고, 자기 비판적이어야 한다. 나부터 잘못에 대한 자기반성을 생활화하면 단결할 수 있다”고 신념을 굽히지 않는 선생님의 모습이 모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보인다.

선생님을 만나 술한 고생을 해오신 사모님이 이제 살만하니까 한 달 전 중풍으로 쓰러져 신체의 반을 자유로이 못 쓰신다 한다. 그러기에 요즘 가슴이 더 저민다는 선생님!

오십만원 월급쟁이 가장으로 직장에 나가다 보니, 대낮에 있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그저 동지들에게 죄스럽다 하시는 선생님! 손님을 집에서 맞이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는 선생님! 자상함과 인자함이 묻어나오고 있었다.

산행을 할 때면 젊은 청년보다 앞서 오를 수 있다는 선생님 옆에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은 사모님이 함께 하여, 오래도록 우리들 곁에서 귀감이 되어주시길 기원한다. ~~▲~~



## 알립니다

### 회원교육강좌

지난 시간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강의 주제를 연강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일 시: 10월 6일 오후 2시  
장 소: 낙성대 만남의 집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내리세요!)

### 9월 산행



드디어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역사의 현장 남한산성으로  
회원들과 함께 산행을 떠납니다.

일 시: 9월 29일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남한산성역 매표소  
만나는 곳: 회비 3000원, 도시락 등  
차 편: 지하철 8호선

### 국가보안법폐지 거리캠페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간부들이 이적단체협의로연행되는 상황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은 반인권·반통일·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하고 전근대적인 공안탄압에 항의하고 한청과 연대하고자 국가보안법폐지 거리캠페인에 10월부터는 종전처럼 격주가 아닌, 매주로 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 시: 매주 토 오후 5시~6시(1시간)  
장 소: 탑골공원

## 이제부터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곽인석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원합니다.”

지난 7월17일에 법을 만든다는 국회앞에서 제헌절 기념식에 맞추어 한 청년이 피켓을 들고 나홀로 외치고 있었다.

올해 27세의 당당한 청년 유호근.

평생 건축(목수)일만을 묵묵히 해오시는 아버지와 평범한 가정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단란한 가정속에서 성장한 순 서울토종이다.

어렸을때는 선생님 말씀과 어른들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제도권 교육의 영향 아래 폼나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교가 되는게 꿈이었다는 순태이었다.

그렇게 보통 고등학생이었던 유호근이 처음으로 사회인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고2때 신문반 반장을 하면서 였다고 한다. 선배를 따라 홍사단 고등학생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사회문제들에 대해 어렵듯하게나마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불순(?)이 잉태된 시기였다.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면서 통일문제 연구소 홍사단 아카데미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던 선배의 영향으로 바로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에 이



르렀다.

활동하는 사람으로 연애하는건 혁명의 적이라 생각했기에 한달을 이어온 연애활동까지 죄책감으로 중단했다는 '순수의리파 청년'

그 청년이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도 말, 인터넷에서 '평화인권연대'에서 병역거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때부터 어떻게 투쟁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오대양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

2003년까지 방위산업체에서 받아주겠다고 유예기간이 설정된 상태였고, 지난 6월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그러나, 7월 입대 영장이 나오자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 정면돌파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양심적 의지를 행동으로 결행한 것이다.

7월 9일 입영일 새벽 5시에 어머니께서 아들을 깨우셨다. 큰 일을 직감하신 어머니는 빨리 입대하라며 손에 이십만원을 쥐어 주셨다.

아들은 죄스러운 마음에 집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새벽 일찍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매다가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던 것이다. 이틀 뒤 하늘을 감싸안은 듯 자식사랑에 온 정성을 쏟으시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오셨다.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 빨리 가봐라...”

“하늘이 노랬습니다. 결국 내가 일을 저질렀구나!”

병역거부를 결정하기까지 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움이 선택을 머뭇거리게 한 가장 큰 이유였던 효자는 이제 또 다시 가슴을 여민다.

‘시간이 지나면 왜 자식이 이런 가시밭길을 택했는지 이해하시라 믿기에 불효라는 걸 알면서도 몇몇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자 합니다. 당당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아들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하늘이 맺어준 부모자식을 무엇이 멍들게 하는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아픔을 들어 보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른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지 않는 비군사적, 민간 봉사적 성격의 분야에서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에게 대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에서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서는 이 양자의 조화를 보장해야 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항명죄’ 혹은 ‘병역법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는 한국전쟁을 겪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정착화되면서 이루어졌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군 입영 후 집총거부자의 경우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입영거부자의 경우 ‘병역기피죄’가 적용되어 병역법 87, 88조에 따라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로 처벌된다.

하지만 군부독재시절은 물론이거니와 문민정부시절의 90년대 중, 후반까지도 가중처벌로 3년 이상을 선고 받거나, 35세까지 징집가능연령을 근거로 한 사람에게 두 세 차례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렇게 항명죄 혹은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에 달하고, 현재 1,700여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매년 600여명 정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이며 법적, 사회적 처벌 또한 매우 가혹한 것이라 하겠다.

**이 냉전의 유물이 아직도 신주처럼 떠받들여지고 있는 반쪽의 세상에서 자신의 양심을 당당히 표현하고 실행하고 있는 청년 유호근의 신념은 무엇인가?**

첫째: 잘 죽자, 후회없이 살다 죽고 싶다.

둘째: 청년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그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가 아니라 옳은가 그른가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멋진 청년은 요즈음 검찰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사당동에 위치한 ‘사랑 손’이라는 정신지체장애 공동생활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영업사원처럼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 총학생회실을 찾는다.

‘전 7월 9일 병역거부를 선언한 유호근이라고 합니다.’라고 운을 댄 뒤 병역의 당사자인 대학생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는 차후 약속을 잡는 일이다.

외로운 투사를 생각하면서 지레 짐작으로 힘들겠다는 안타까움을 갖은 것이 부끄러웠다.

이제 그의 고귀하고 선도적인 역사적 과업에 가슴을 열어젖히고 희망을 노래 부르게 되었다.

그의 가슴에 메아리 쳤다는 글귀가 가을 귀뚜라미 소리를 뒤로하고 뿔뿔히 뿜어낸다.

‘다수의 지배가 허용되고 지속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그것이 옳을 가능성이 크거나 그것이 소수자에게 가장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이다.’ 



## ‘기회가 주어져 있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이창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간사

8·15 사면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폭적인 양심수에 대한 사면이 아닌, 아주 형식적인 사면이었다. 양심수는 고작 3명이 석방되었다. 그 중에 한 명이 1999년 8월 21일 소위 ‘민혁당’ 1차사건으로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실행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만 3년을 감옥에서 살고 가석방조치로 나온 심재춘님이다.

이번 기만적인 사면에 대한 그의 답답함은 이러하다.

“이번에는 했어야 했는데.... 아쉬웠어요. 나오자마자 못나온 사람들을 만나러 안동, 광주, 전주, 부산, 대전 교도소 등을 다녔어요.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 사람들에게겐 가족이 있고, 미래가 있고, 동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감혀있어야 하나? 나는 이제 밖에 있는데.... 김대중 정부가 ‘결자해지’ 하는 차원에서 감혀있는 사람들을 빨리 석방시켰으면 해요.”

### 1. 오랜만의 교정

1970년 전주에서 태어났고 삼형제의 장남인 심재춘님은 1988년 서울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한후 졸곧 서울대 교정에서 떠나지 않았다. 구속되기전 그는 서울대 대학원 국민윤리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였다. 이제 논문을 제출해 통과가 되면 양심수로써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윤리학 박사’가 되는 것이다.



“학교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워낙 절간 같은데 살다보니 개강한 학교에서 복직되는 사람들을 보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참, 오늘 아침 TV를 보는데 천안교도소의 한 소년수 얘기가 나왔어요. 하루 귀휴나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소년수에게 밖에 나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묻자 그 소년이 ‘시장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복직대는 사람들 속에 있고 싶다는 거죠.”

사실 그는 오늘 처음 학교에 오는 것이다. 필자와의 인터뷰겸 학교 일도 볼 겸해서 이렇게 첫 걸음을 한 것이다. 참으로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고부터 동아리 생활을 했어요. ‘방송연구회’라는 동아리였는데 학교생활을 거의 거기서 했어요. 1987년 6월항쟁이후 이른바 ‘운동의 대중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데모도 했죠. 고등학교때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도 한 몫한 것 같아요. 개인의 욕심보다는 없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저의 성격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아리 생활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현실을 알게 되고, 함께 하는 선배들간의 좋은 사람관계 등으로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죠. 1학년초 수업시간에 뒤에 앉아서 전태일 평전을 읽으며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지난 6월에 보았던 박종철 열사의 드라마가 생각났다. 뜨거운 열정의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속에서 자신들의 진로를 열사로, 양심수로 그렇게, 그렇게 그려갔던 것이다.

## 2. 감옥 안과 감옥 밖

지금 그의 집은 대구교도소가 아닌 신월동이다. 석방된 그는 미아가 될 뻔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봉천동에 있던 신희 집도 옮기고, 본가도, 처가도 모두 이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영나온 가족의 손에 이끌려 집을 찾아갔다.

도착한 집이 생소해 전원스위치도 어디 있는지 몰라 멍하니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부인이 왜 그렇게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고 한다. 신희 때부터 있었던 가구만이 낯익었다고 한다. 이제 그는 오랜 감옥의 시멘트 채취를 접고 감옥밖 생활에 자신의 감각을 막 적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담배를 피웠다. 감옥에서 하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라고 했다. 이 기회에 끊으라는 말에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타율에 의해 3년간 금연을 했던 것이라서 끊기가 어렵다고 한다.

“감옥에서 나올 때 좀 얼떨떨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 서울로 올라오는 차의 바깥 풍경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좋대요. 휴게소에서 먼 산을 보니 그냥 좋았어요. 나오기 두 시간전에는 나는 징역을 잘 사는 체질이라 감옥 안이나 밖이나 별 차이없을 줄 생각했는데, 나와서 보니 금방 밖이 좋더라는 거죠. 정말 내면에서는 얼마나 나가려 몸부림 쳤던 것인가 하고 놀랐어요. 사실 감옥에 있는 동안 최면을 건 것 같아요. ‘징역도 괜찮다’라는....”

감옥에서 나온 그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못 만났던 ‘사람’ 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

감옥에서 인상깊었던 기억을 묻자, 그는 가슴속에서 이야기를 끄집어 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단기수와 장기수에 관한 기억인데.... 단기수 한 사람이 면회를 다녀와서 하는 말이 ‘면회장에 손 하나 넣을 수 있는 구멍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요. 이유를 물으니 면회온 사람 손이라도 한 번 만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때 저는 ‘사람들은 사람의 체온을 느끼며 살고 싶어하는구나’ 라고 깨달으며 밖에서는 사람들의 체온을 쉽게 느낄 수 있었는데 더 잘 할 것이라고 반성했어요. 그리고, 한 무기수가 있었는데 그 분은 오후 12시에 자고 오전 4시에 기상해요. 항상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를 해요.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시간인 새벽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무기징역 정도 받은 사람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살벌한 사람인데 무언가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최대한 성실히 사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무기징역이라서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 분을 보면서 ‘기회가 주어져 있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라고 저에게 반문을 했어요.”

감옥에서 제일 힘든 것은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헤어지게 된 집사람 등에 대한 ‘그리움’ 이었다고 한다. 그리워서 힘들고, 그리워서 살았다고 한다.

예의상 감옥에서 감동깊게 읽었던 책에 대해 물었는데, 그는 여러 권의 책으로 답해주었다.

“시기별로 달라져요. 잡힌 지 처음에는 스트레스도 많고 해서 ‘노자’ 나 ‘장자’ 등의 책이 마음에 여유를 많이 주었어요. 자유롭고 큰 틀의 이야기들이 저를 편하게 해주었어요. 좀 지나고 대구로 옮기면서 생활이 안정되니까 전시륜의 ‘유쾌한 행복론’이라는 책을 무척 재미있게 읽었어요. 내용은 그다지 교훈적이지 않은데, 평범한 삶을 유쾌하게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를 즐겁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어지면서 오강남 교수의 ‘예수는 없다’를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보수주의나 맹신주의 등으로 한국에서 믿는 식의 예수는 없다는 거죠. 무릎을 치면서 보았어요. 운동가들도 한 번 읽어보았으면 해요.”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다고 한다.  
감옥에서 성실히 살자는 마음으로 시간 시간을 알뜰하게 계획적으로 살아서인지, 무엇이랄도 하지 않으면 초조하다고 한다. 필자는 일종의 정신병이라 치부하고, 전국일주 여행을 치료약으로 권했다. 열심히 고생한 당신! 여행 떠나세요!!

### 3. 신념있는 새 회원

며칠 전 대구에 내려갔다 왔다고 한다. 대구양심수후원회 주점에 갔다 온 것이다. 집사람과 약속을 했다고 한다. 다른 것은 못 해도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 항상 후원금을 내고 회원이 되자고 말이다. 이렇게 그는 스스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이 되었다. 다른 양심수들도 모두 심재춘의 마음일 것이다. 감옥에 있으면서 아쉬운 것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멀어지는 것인데, 양심수후원회 식구들은 언제나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어 고마웠다고 했다.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감옥에 있으면 ‘후원회 소식’이 기다려져요. 밖에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말이에요. 소식지를 보면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필자가 후원회 간사라서 들으라고 하는 외교적 말투는 아닌 듯 싶다. 그래서, 다음 산행에 오라고 했다. 오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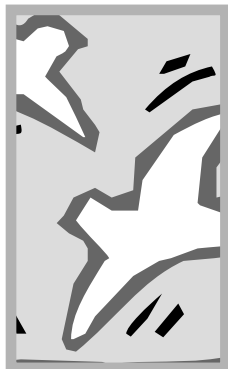
“구속되기 전에는 내 스스로 ‘강하다’, ‘투철하다’라고 여기고, 남들에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난 생활을 통해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지금도 삶에 자신이 있고, 지난 역사를 겪어오면서 두려움 따위는 없어졌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저의 생각을 모두 의심하고 되짚어 봤어요. 과거와 비교해볼 때 밑바닥까지 내려본거죠. 이속에서 ‘사상의 단련’이 아닌 ‘생활의 단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포기하거나 주저할 생각은 없어요. 처음의 마음으로 애국적으로, 양심적으로 살고 싶어요.”

역시 장기수선생님들의 말처럼 감옥은 학교였다.

하지만, 심재춘님과 같은 주동적인 삶의 자세가 없다면 감옥은 감옥일 뿐일 것이다. 장기수선생님들께서 그런 삶의 자세로 감옥을 바꾸었듯이 심재춘님도 감옥을 깨달음과 단련의 장으로 바꾼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필자는 버스에서 일어나 이 땅의 양심인사들은 이렇게 자신을 옹기 성장시키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꼭 참았다. 

## 양심수후원회 소모임 소개



현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는 여러 소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 ▶ 회원교육과 시사강좌 등을 진행하며 더불어 배우는 ‘시사모임’ (송창학 016-235-3726)
- ▶ 우리의 새로운 얼굴로 널리 등장할 ‘홈페이지관리모임’ (장재영 02-977-8363)
- ▶ ‘후원회 소식’을 만들며 글쓰기를 서로 나누는 ‘편집모임’ (이승미 016-395-0725)
- ▶ 장기수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장기수선생님후원모임’ (이정태 017-281-5500)
- ▶ 양심수와 따뜻한 공감을 형성하는 ‘양심수에게 편지쓰기모임’ (고광희 017-230-7593)
- ▶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를 일구어내고자 하는 ‘회원사업모임’ (노혁 019-323-0598)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어린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투쟁이 없으면 탄압도 없지만 동시에 쟁취도 없다’

귀 협의회 및 후원회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름 석자와 대강의 혐의만 알고 있음에도 따뜻한 격려의 정을 보내주신 것은 양심과 진리에 따라 살아온 동지적 애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충남본부 교육선전부장이고요.

2002 메이데이 집회 건으로 구속 재판계류중입니다. 여기 천안구치소에는 저를 포함한 5명의 동지들이 잡혀 있습니다.

감격스러웠던 2002년 12월 세월테크 연대파업 관련 구속자들입니다. 지난 주 23일 17명의 노동자들이 구형을 받았고, 총 63년을 가두어 둘 것을 검사는 요구하더군요. 그밖에 아직 체포되지 않은 지역의 십수명의 동지들이 간단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끝나서 벌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지역 동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충남지역의 노동운동이 점점 거세어지고 조직화되면서 탄압도 마찬가지로 거세지는군요. 지역 노동자들은 ‘투쟁이 없으면 탄압도 없지만 동시에 쟁취도 없다’는 진리를 외치며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누이 형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연이 있어 뵈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동시대의 과제를 저마다 다른 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만난 동지들로 기억하겠습니다. 투쟁!

2002년 8월 27일

천안구치소 이민구 드림

●이민구님은 2002년 7월 14일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현재 천안구치소 5510번으로 수감 중입니다.

## 이번 8·15에 양심수 좀 석방해줬음 얼마나 좋았겠어요?

손준혁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하는 사람들의 인사가 기껏 “안녕하십니까?” 라는 게 좀 허탈하기도 하네요.

“편지”라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특별한.. 인사말을 드리고 싶어도. 위낙이... 이 ‘속세’에 찌들어 살다보나... 그래도 오랫동안 “편지”라는 걸 써봅니다.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음... 선배라고 불러야 하나요? 형시 호칭이 헷갈려요.

원하시는 호칭을 말해 주십시오. 참고로..(혹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이창희 오빠를 알고 계시는 진 몰라도..) 창희 오빠 큰 10년차이가 나지만 ‘오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루나(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상태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인덕 아니, 태풍덕이 없나...

그러길래 이번 8.15에 양심수 좀 석방해줬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 왕준영이라는 학생입니다. 솔직히 ‘왕준영’이라고 소개한 뒤에는 뭐라 설명을 해야할지 난감해집니다. 음.. 전 중앙대 사진학과 3년에 재학중이고.. 양심수 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람, 술, 산 등 ‘ㅅ’으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요. 또 어설픈 ‘자연주의자’고요. 아직 공부가 미흡하답니다. 여하튼 아직 인생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한국의 청춘이랍니다.

제가 이 편지 쓰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되긴 하지만 “편지”니깐 편지의 특성대로 편한 이야기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시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사진”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로 사진이라는 걸 처음으로 갤러리라는 곳에 올렸는데요. 멀리대요. 월드컵 개막식때 교수님께서(보도 사진전공이랍니다) “사진 찍어와라”라고 하셔서 솔직하게 가볍게 찍어갔는데 딱 한 장 뽕혀서 우리나라 유명 사진가들과 같이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멀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문화일보 갤러리에서 사진을 전시하는데요. 6만점에 70장정도가 뽕혔는데요. 그 중 한 장이예요. 작은 사이즈요. 여하튼.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꼭 보여드릴게요.

전 내일부터 개학이랍니다.

이번 학기 목표는 ‘전장’입니다. 전체 장학금. 그런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재밌게 해보려고요.

오빠도 비록 그 곳에 계시지만요. 오빠의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서 게시길 바랍니다. 요새 태풍 등으로 감기가 유행이라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세요..

9월 2일 안성에서  
왕 준 영 올림

---

●왕준영님은 현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신입회원 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 내 사랑 내 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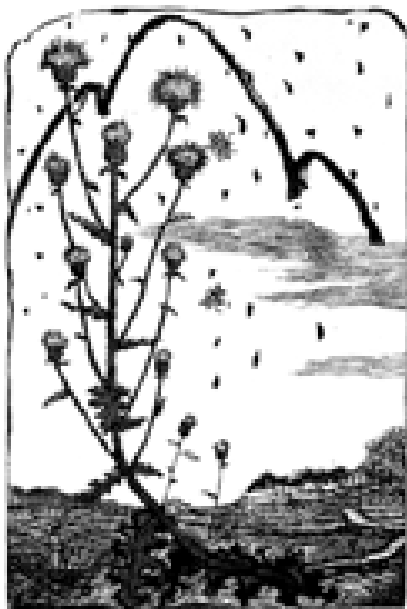
유영순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8월 내내 비가 내린다. 또 오고 있다.

내일이면 여름 방학도 끝나고 개학인데 개학 바로 전날 길을 나선 것은 순전히 심재춘 때문이다. 재춘이 면회 한번 가야지 가야지 노래를 부르며 2년 세월을 보내고 나니 광복절에 가석방으로 나왔다. 환영회 자리에서 좌불안석이 따로 없었다. 가장 큰 죄인이 먼 곳에서 고생하는 벼를 두고도 긴 세월동안 얼굴 한번 뵈죽 내밀지 못한 사람이니 그 화살이 바로 심장에 와 꽂혔다. 겨우 겨우 남편하고 시간을 맞춘 날이 개학 전날이라니. 대전에 하영옥, 전주에 임태열, 광주에 최진수를 만나야 한다.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작년 봄에 영옥이 형에게 3장짜리 편지를 보냈더니 9장짜리 답장을 받았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장도 없이 1년의 세월을 보낸 후 불쑥 찾아간 것이다. 답장이 없는 것을 보고 형이 편지에서 실수라도 한 것은 아닌지 하며 궁금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인편에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사 김정희가 생각났다. 제주로 귀향가는 길에 대흥사에 들러 이광사가 쓴 대웅보전 현액을 보며 저 것도 글씨냐 라며 떼라 하던 추사가 9년의 제주 귀양살이 후 다시 대웅전에 들러 이광사의 글씨를 찾았다는 이야기. 늘 강철같기만 한 영옥이 형의 감수성이 감옥살이 동안 섬세하게 돌아났구나.



작년과 달라진 것은 올해는 농사를 제법 잘 지어 푸성귀를 푸지게 먹을 수 있었다. 대전 교도소측과 시비가 붙어 맘 고생도 많은 듯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형의 생각을 편안히 듣고 싶다....

형이 지난 일을 담담히 말할 수 있는 자유인의 상태로. 그 날은 봄날이 될 것이다. 배꽃이든 벚꽃이든 우수수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맘이 맞는 사람들 틈에 끼여 탁구 사발을 앞에 놓고 마실 것이다. 술

을 핑계로 세상을 이야기 할 것이다. 그 때쯤이면 맑은 향기는 잔에 지고 떨어지는 꽃은 옷에 질 것이다. 나는 한 쪽에서 꽃나무 가지 꺾어 한없는 수를 세리라. 꽃가지 수가 쌓이는 만큼 형의 이야기도 이어질 것이다.

두꺼운 유리창 사이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형을 만나고 싶다.

전주의 태열씨, 광주의 진수형을 만나고 올라가는 길에 망월동에 들렀다. 그 사이 범민련의 영원한 청년 김양무씨의 묘가 새로 생겼다. 찾는 이 없는 망월동. 먼저간 자의 묘에는 8월의 비만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2002년 8월.

조각 난 조국,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은 교도소 눅눅한 방에서, 망월동 차가운 땅에서 그렇게 있었다. ~~하~~

## 2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일까?

김 호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2년 전 이맘때였었다.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참가한 민가협 수련회. 감옥 안에서 나에게 소리 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반가움으로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던 나날이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개구리 소리. 그리고 마치 전설 속에서 들어온 것만 같던 영묘한 아름다리 나무와



창살 없는 하늘에 눈물이 나도록 시리게 빛나던 별들. 나의 살갓에 닿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가슴 저리게 반가운 것들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반가웠던 것은 짐승이 아닌 인간이기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죽지 않고 극복하여 결국은 승리로 승화시킨 선생님들과의 만남이었다.

이후 선생님들은 당신들의 신념의 고향 공화국으로 가시고 이 곳에 남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했다.

“호야 너도 우리 카페에 놀러와. 우리 회원들이 많이 오거든.”

“알았어요. 그런데 카페가 어디에 있어요?”

주정임이라는 아줌마가 친절하게 해준 말에 내가 너무나도 진지하게 답변한 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웃기는 답변이었지만 어찌 보면 서글픈 시대의 한 귀퉁이를 살아가야 했던 버려진 우리들의 한 모습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인터넷 카페가 무슨 커피 파는 카페인줄 알았던 나에게 그만큼 변해버린 세상이 호락호락할리 만무했다. 터무니없었던 답변이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고단함을 암시해주었는지도 모르겠다.

짧지 않은 2년의 세월이 흐른 뒤다시 찾은 지금은 폐교가 된 초등학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운동장 한가운데 그 어떤 전설을 품은 듯한 500년을 넘었다는 아름다리 나무가 가장 먼저 우리를 만났다.

우리가 도착을 하였을 때는 벌써부터 흥에 겨운 잔치마당이 시작되고 있었다. 역사 속 조선민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바로 삼국지위지동이전에 실려있는데 그 내용인즉 연중에 크게 모여 춤추고 노래부르고 술을 마셨

다는 기록이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번 재일총련 초청공연을 하면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됐는데 일본에서도 유독 동포들이 춤추고 노래부르고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없다고 한다. 중국에서 또한 빙 둘러 모여서 춤추고 노래부르고 함께 술을 마시는 민족은 거의 100% 조선족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고 한다. 반만년 넘게 DNA에 각인된 우리 민족의 특성인가 보다. 여튼 전통을 계승하기로 하듯이 이곳저곳에서 출판과 술판이 벌어졌다.

2년 전의 그 모습처럼 숙소입구 쪽에서는 민가협 어머니들이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흥에 겨워하시었다. 선생님들도 함께 춤추면서 흥에 겨워하시고 젊은 회원들은 여기저기에 술판을 벌리고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워댔다. 필자 또한 서옥렬 선생님 그리고 한상권 교수님과 학생운동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다시피 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각 조 장기자랑을 준비한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리저리 준비를 하더니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주제의 콩트와 퍼포먼스 등을 선보였다. 예나 지금이나 주제는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등이었는데 백미는 단연 짹새를 연기했던 득형이 형이었다. 어찌면 그렇게 능청맞게 짹새를 연기하는지 회원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대기 시작하였다.

각 조의 장기자랑이 끝난 뒤 곧바로 한홍구 교수님의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안보 안보를 외치는 놈들이 정작 자신의 자식들은 불법적으로 군면제를 받고,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힘없고 뺨 없는 대다수의 청년들을 강제로 군대에 앞세워 친미·반공·반북을 외치면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니 정말 소가 웃다 죽을 일이다. 예전에는 이런 위선에 대항도 못하고 국가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지금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양심적인 병역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드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군도바리를 쳤던 필자가 예전부터 가졌던 의문이 있었다.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그 하위의 국가폭력으로 조직된 국가물리력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한총련이 왜 주한미군의 명령체계에 종속된 군대문제와는 정면으로 투쟁하지 않고 다들 학생운동의 와중에 자연스럽게 군대를 갈까? 만약 한총련이 조직적으로 군정집을 거부하고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운동을 펼친다면? 감옥 안에서 수천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볼 때마다 더욱 강렬하게 드는 생각이었다.

한홍구 교수님의 강연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한상권 교수님의 안내를 따라 우리나라에서 강가에 세워진 두 개의 사찰중 하나라는 신흥사 관광에 나섰다. 필자 또한 역사에 관심이 많지만 역사학자의 안내를 따라 관광을 하는 것은 역시 별미였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던가?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관광을 하니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지적인 호기심을 한껏 부풀리게 했다. 예전 국사시간에 석탑, 전탑을 구분해서 외우고 성격이 다른 것 등을 묻는 시험문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다. 석탑, 전탑의 구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기만 했었는데 전탑(轉塔)이란 벽돌로 올린 탑이라고 한다. 전탑은 황하 등 벽돌을 만들어 낼 조건이 쉬운 중국에서 발달했고 이에 반해 화강암 등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는 석탑이 발달했었다고 한다. 설명을 듣고 영 싱겨워서 죽는 줄 알았다. 진작에 교실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말이다. 석탑에 비해서 웅장함이 떨어진다는 전반적인 느낌이 들었다. 이렇듯 우리에게 석탑, 전탑을 구별 못하고 무조건 외웠었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다.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2년의 길을 잠시 그려봤다. 2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일까?



## 역사의 가정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고

김 창 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

일요일 아침, 어제 오후 고흥반도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루시에 의한 전국적인 피해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간밤에 스쳐간 태풍으로 옥상화분에 심었던 대추 몇 알 떨어지고 토마토가지 부러져나간 것의로도 속상한데 복구



능력도 없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노동자, 농민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집을 나서는데 큰아이 강석이가 같이 간다고 한다. 산에는 가끔 같이 가지만 역사강좌는 강의에도 방해되고 아이도 지루할 것 같아서 만류해도 가고 싶다고해서 강석이와 함께 전철을 타고 낙성대로 가는데 당산철교에서 바라본 북한산, 관악산이 너무 또렷하게 보인다. 태풍 루시가 서울상공을 덮고 있던 공해물질을 싹쓸어 가 버린 모양이다.

만남의 집에 도착하니 거실을 가득메운 선생님, 후원회 회원들이 반갑게 인사한다. 곧이어 한상권 교수님이 오시고 9월 8번째 역사강좌가 시작된다.

먼저 80년대 한미관계에 관한 비디오 시청인데 비디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비디오 시청은 어렵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민가협수련회 머슴상에 빛나는 일규님 손끝으로 재생에 성공 역시 공학도답다는 감탄과 탄성과 박수속에 비디오에서는 80년대 낮익은 화면들이 흘러간다. 10·26유신독재 종말, 12·12신군부 쿠데타, 5·17비상계엄과 광주항쟁, 미문화원 점거투쟁등 비디오시청이 끝나고 미군정과 단독정부 수립을 주제로 한 강의가 시작된다.

주된 강의내용은 1866년 제너럴셔먼호에서 시작된 미국과의 악연, 소련의 전략적인 양보로 설정된 38도선,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서의 미군의 진주, 2차대전 이후 유일하게 미군정이 실시된 남한, 자주적인 통일국가 수립에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뎀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동아일보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와 김구선생의 무조건적인 신탁통치반대, 반탁과 반공의 깃발아래 친일파의 재빠른 변신과 집권세력의로의 재등장 등이 주된 강의내용이었다.

왜곡되고 굴절된 현대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양파껍질처럼 벗겨져 나간다.

순간 순간 나에 머릿속에서는 역사의 가정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고, 다음달에 있을 미군정하의 중앙정치를 기대하면서 강의가 끝난다.

내일 모레면 '9·11' 1주년 이다. 왜 '9·11'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자기성찰은 하지 않고 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하에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고, 다시 이라크를 재침공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미국.

이라크 침공이 끝나면 그 다음은 북한이 침공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9월의 역사강좌는 가장 시의적절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 유익한 시간이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강의준비를 하시고 열정적인 강의와 뒷풀이 자리까지 빛내주신 한상권 교수님과 풍성한 포도와 사과로 한결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이정숙님께 감사드립니다. 

## 민족도 하나, 핏줄도 하나, 역사도 하나, 이 땅도 하나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분단 57년 만에 북측 참가단 116명이 서울에 와서 남측 대표단과 함께 2002년 8.15 민족 통일대회를 이루어냈다. 남북이 합의한 행사내용이 남측 당국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로 상당부분 축소되고 제약받는, 아쉽고 분통터질 일이 있었지만,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인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온 세계에 보여 주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로의 또 하나 빛나는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는 8.15 민족통일대회에 대표단 10 여명을 파견하기로 통일연대에 신청하였으나 위에서 말했듯이 당국의 통제로 통일연대 다른 참가단체와 함께 대표 1명과 부분참가 대표 3명으로 최종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래 글은 양심수 후원회 14차년도 4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8.15 민족 통일대회 양심수 후원회 대표로 참가했었던 대화참가보고문이다.

**8.15** 민족 통일대회가 열리기 3일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표자 회의가 8.12일 건국대에서 긴급하게 열리게 되었다. 회의 자료도 없이, 긴급 소집된 회의 주제는 8.15 민족 통일대회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간섭과 통제에 대한 대응방침이었다. 바로 범민련·한총련 등의 대회 참가 통제, 대회 장소를 워커힐 셰라톤 호텔로 제한한 문제, 개막식 등 대회참가인원을 500여명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통일연대의 대응방침을 논의하는 모임이었다. 어느 하나도 수용할 수 없는 민간 통일 운동에 대한 간섭과 통제였고, 북측과 합의 사항을 파기하는 내용이었다. 참석한 대표들은 한사람같이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당국의 조치를 규탄하였다.

그러나 8.15 민족 통일대회 자체를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먼저 범민련과 한총련에서는 비록 자신들이 대표단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해도 민족 통일운동의 큰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통일대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교전 뒤 한때 일어불었던 남북관계가 북측의 유감 표명으로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당국간 대화가 줄 잇게 되었고, 조·일, 조·미 관

계 등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전쟁 책동 등 강경 정책에는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결국은 2 명이 반대하고 2 명이 기권(사회자 포함)하는 표결을 거쳐 정부 당국의 조치에 강력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관철시키면서 대회를 성사시키기로 결의하였다.

8월 14일 아침 8시 북측 대표단을 태우고 올 버스와 마중 나갈 버스가 워커힐 호텔 앞마당에 줄서 세워져 있었다. 미리 와 있었던 통일연대 실무진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통일연대에서만 25명이 대표단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소속 단체 이름이 아닌 통일연대 소속으로 신청했던 범민련·한총련 대표와 민주노총 등 사법계류중인 대표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임기만 민가협 전 상임의장도 빠져 있었다.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실무 일꾼들도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히려 나에게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려고도 했다. 이렇게 당국은 북측 대표단이 도착하는 시간을 압박해서 명단을 발표했다.

마중을 떠나면서 임기란 회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몇 년 전 범민련남측본부 고문으로 추대된 일 때문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수없이 감옥에 끌려 다니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헌신해온 범민련을 뺀 것도 개탄할 일인데, 고문으로 추대된 다른 사회단체 성원까지 제외시키는 당국의 경직성과 냉전 사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북측 대표단을 영접할 민족 공동행사 남측대표단이 버스에 올랐다. 통일연대, 민화협, 종단 대표와 실무진 등 30여명이었다. 통일연대에서는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정연찬 전농의장, 권오현 후원회 대표 외 실무 일꾼들이 함께 했다.

따로 보도진들이 버스 한 대에 타고 인천공항으로 함께 떠났다. 안개 낀 한강을 끼고 1시간 20분쯤 지나 영접단과 빈 버스들이 멈춘 곳은 인천 공항의 외진 곳이었다. 마중 나와 환영할만한 공간이 아니었다.

비행기도 활주로도 보이지 않았다. 우람한 건물 벽으로 막혀 있었다. 마중 온 영접단은 뜻밖에도 공항 귀빈실로 안내되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대표단을 뜨겁게 맞은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이 찾아와야 하는 좁은 방에서 대표단을 기다려야 했다. 언뜻 북도 쪽으로 꽃무음을 들고 서 있는 세 어린이의 산만한 모습이 보였다. 이 순간 지난해 평양 공항에서 보였던 북측 대표단과 동포들이 남측대표단을 마중했던 모습이 반사적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윽고 북측대표단(주석단)이 귀빈실로 들어왔다. 먼저 기자들이 들어오고, 김영대 단장(민화협 회장=사회민주당위원장), 러원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조선적십자회 위원장), 허혁필 민화협 부회장 등 이미 6.15 민족통일 대축전 와 8.15 민족 통일 대회때 익혔던 대표들이 들어오며 남측 대표들과 뜨겁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8.15를 민족 대단합의 날, 통일의 날로 만들어 나가자'고 도착 성명을 허혁필 부회장이 발표하였다. 한담을 나눈 북측대표단과 영접단은 위키힐로 떠났다.

아직도 안개는 걷히지 않고 있었다.

대표단을 태운 버스가 한강을 뒤로 하고, 서울의 번두리 아차산 기슭을 달렸다. 잘 자란 나무들 사이로 구불구불 호텔로 가는 길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넓은 터에 수많은 닭장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호텔 문앞에서는 직원들이 마중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환영단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호텔 주변을 촘촘히 지키고 있는, 몸을 뒤로 한 신사복들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북측 대표단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지는 몰라도 57년만에 온 동포를 맞는 모습으로는 찬바람이 부는 비정함이 보이는 듯 싶었다.

오후 2시가 지나면서 통일연대, 민화협, 종단 등 민족통일 대회 남측 대표단들이 호텔 로비로 모이고 있었다. 그리고 대표단임을 표시한 비표를 줄서서 받고 있었다. 뜻밖에도 비전향 장기수인 양희철 선생님도 비표를 목에 걸고 계셨다. 그때까지도 통일광장 선생님들은 제외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너무 반가웠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박정기 유가협 전회장님, 조찬배 현회장님 등 유가협·민가협 대표들은 언제나 함께 있었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김영식 선생님도 호텔 로비에 오셨다. 이리 저리 옮겨 다니시며 혹시라도 북녘 동포들의 얼굴 모습이라도 보고싶어하셨다. 고향 떠나 오신지 41년, 얼마나 가족과 고향을 그리고 계실까? 이렇게 남북이 57년만에 민족통일대회를 열고 있는데, 수십 년 감옥을 살면서 통일염원을 지우지 않고 가족이 있는 마음속 고향을 가고자 하는 비전향 장기수들이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송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해 본다. 끝내 선생님께서도 호텔을 떠나셨다.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이미 낮익은 얼굴들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통일연대 소속이 아니어도 민화협이나 종단대표 대부분은 함께 금강산과 평양에 갔었던 분들이었다.

그런데 그 많은 낮익은 얼굴 말고 생소한 얼굴들이 수없이 많았다. 마치 비표처럼 왼쪽 가슴에 같은 뱃지를 달고 있는 신사복들이었다. 그들의 신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없이 대표단들 사이에 알고 있었다. 공식 확

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180명의 국정원 직원이 호텔에 함께 묵고 있다는 말이 있었다. 이 민족적 대경사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분단 조국의 또 하나 참담한 모습으로 보인다. 숭고하고 존엄해야 할 민족통일대회까지 불필요한 감시의 눈이 꼭 필요했었는지, 이 사회는 그렇게도 자신이 없었는지 안타깝고 개탄스럽기도 하다. 양심수 후원회 이정태 운영위원과 박지운 회원이 8.15 행사기간 자원봉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5시 30분 남측 대표단이 호텔 가야금 홀로 입장하고



있었다. 공안원들이 소지품과 몸수색을 하였다.

**남측에서 준비한** 환영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북측 대표단 자리를 비워놓고 남측대표단과 초청인사들이 모두 입장한 뒤 공동추진본부 행사진행자가 오늘 일정을 알려 주고 있었다. 이 공연이 끝나면 무궁화 볼룸에서 환영 만찬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공연장에서도 조순덕, 박정기, 조찬배 의장과 나는 한자리에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기다리던 북측 대표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30분이 지나고 또 30분이 지났다.

두어번 안내 방송이 있었다.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다소 늦어진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북측대표단이 오지도 않았는데, 남측에서 준비된 공연이

시작되었다.

남측대표의 주석단이 알아보기 위해서 가야금홀을 빠져 나갔다. KBS 오유경 MC 사회로 부채춤(경기도춤무용단)을 여는 마당으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남측대표단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북측대표단을 위한 환영공연에 주인들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공연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뒤에 알려졌지만, 이미 신문에서 보도했듯이 몽양 여운형 선생의 따님이신 북측 대표 러원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이 남쪽 당국에 요청한 우이

동 몽양선생 묘소 참배를 당국이 들어주지 않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북측 대표들의 입장이 늦어지고 있었다. 북측대표단 없이 공연이 이어지자 유가협, 조찬배, 박정기 회장님들이 야단을 치고 있었다. “늦더라도 손님들이 입장한 뒤에 공연을 해야지. 이 무슨 실례의 행패냐”고, 그리고 몸소 무대 뒤쪽으로 가서 공연을 중단시키려 하였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 20분쯤 지나 북측 대표단이 들어서고 있었다. 공연이 이어지고 있어 남측대표단은 모처럼의 귀한 시간, 환영의레조차 잃게 하였다.

공연은 이어졌다. 가야금 병창, 사랑가(판소리 = 안숙선), 서도소리 등.

북측 출연진들이 바로 우리들이 자리한 앞쪽이었는데 진지하게 관람하고 있었다. 이렇게 환영공연은 안타깝게도 일그러진 모습이었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어진 8시가 지나서 북측 대표단과 남측대표단 그리고 초청인사 60여명 등 540여명이 입장한 가운데 호텔 무궁화 볼룸에서 환영만찬이 시작되었다.

늘 함께 있었던 민가협·유가협 대표들은 나누어져야 했다. 조순덕 회장님은 6번 식탁이었고, 박정기 회장과 나는 4번 식탁이었다. 주석단 식탁의 바로 앞이었다. 4번 식탁에는 남측에서 박정기회장님 말고 손장래 민화

협 상임의장과 김민하 전중앙대 총장이며 대통령 평화 통일 자문회의 의장이 함께 했고, 북측에서는 평양예술단 연출가 채명석씨, 무용지도원이자 안무가인 최영옥, 무용배우 김경옥씨가 함께 했다. KBS 박정숙 아나운서 사회로 남측을 대표하여 강원룡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고, 김영대 북측단장의 답사가 있었다. 또한 남측에서 정은숙(국립오페라단장 = 고 문호근 선생 사모님) 교수의 축하 '신아리랑'을 북측에서는 장혜명 통일문화 편집국장의 시 '단숨에 가자'를 낭송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각 식탁마다 조국 통일 등 축하 소리가 요란하였다.

4번 식탁도 이야기꽃을 피웠다. 자연스럽게 필자가 사회를 보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채명석 연출가나, 최영옥 무용지도원은 지난 4·8월까지 이어졌던 5.1 경기장에서 공연된 '아리랑'에 연출과 무용지도를 했던 예술계의 지도급 인사들이었고, 김경옥씨도 공훈배우로 아리랑 공연에 함께 했다고 한다.

지난 해 8.15 민족통일 대축전 때 봉화예술극장에서 있었던 남·북 해외 예술공연에서 북측 예술 무대의 압권이었던 무용극 '눈이 내린다'를 떠올리며 필자가 말하자 김경옥 공훈배우는 그 공연에 함께 했었다며 반가워했다. 만찬에 함께 한 대표들은 가까운 이웃 식탁들을 옮겨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동포의 정도 나누고 있었다. 필자도 주석단, 김영대 단장, 러원구 회장, 허혁필 부회장 등과 인사를 나누었다. 또한 서영훈 대한 적십자사 총재와 함께 하고 있는 장재언 조선 적십자회 위원장에게는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위해 두분께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화가 무르익고 있는 동안에 필자는 누군가로부터 '권선생님' 하는 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세 번째 만나게 되는 박영희 선생이었다. '조선 노동당 창건

55돐 경축행사'에 참관자로 평양에 갔을 때 봉수 초대소에서, 특히 이옥순(권낙기 선생 사모님)님을 극진히 간병하였던 북측의 민화협 간부일꾼(여성)이었다. 조순덕 회장님을 모시고 와 인사를 나누게 하였다. 임기란 전 상임의장에 안부를 전해달라고도 했다.

환영만찬은 10시 가까이 까지 이어졌다. 만찬이 끝나고 남측의 통일연대 대표들은 대절버스로 건국대로 가서 8.15 민족통일대회 통일한마당에 함께 하였다.

8월 15일, 드디어 민족통일 대회 개막식을 하게



되었다. 이날도 예정시간은 지켜지지 않았다. 8시 30분에 워커힐에 와서 1시간을 기다리고서야 개막식장인 「제이드가든」으로 남측대표들이 옮겨가고 있었다.

모처럼 만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넓은 곳 다 제쳐놓고 아차산 모서리,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잔디밭에서 역사적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지난해 민족통일 대축전 개막식의 수만 명이 기다리는 곳도 기피했었고, 이제 서울에서마저 애초 계획된 잠실경기장(2만명 수용)은 고사하고 수정 계획된 펜싱경기장(6000명 등록)마저 취소된 채, 통일연대 20,000이 함께 하는 통일대회 성원들의 기대감을 저버린 채 서울의 외판 구석에서 개막식이 열리게 되었다.

무대가 만들어진 잔디밭에는 남북대표단이 자리할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무대 앞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부터 민화협, 종단, 통일연대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앙쪽은 북측대표단 자리로 되어 있었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 40분을 지나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란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북측대표단과 남측 주석단이 들어오고 있었다. 남측대표단은 모두 일어나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였다. 남북 주석단이 단상에 자리하고 남(김종수), 북(허혁필) 공동 사회로 개막식과 민족 단합대회가 진행되었다.

허혁필 부회장의 개막 선언이 있자 남북의 세명 씩 여성들이 들고 있는 단일기 입장과 게양이 있었다.

이어 북측 김영대 단장의 축하 연설이 있었다. '57년 전 일제의 탄압 굴레에서 벗어났듯이 이제 분단 오욕의 역사를 벗겨 우리 민족 모두의 숙원 조국 통일 만세를 부릅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돈명 민화협 상임의장이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자주통일 이룩하자고 축하연설을 하였다.

민족단합대회 연설로는 남측의 천도교 김철 교령, 북측에서는 농업근로자 동맹 김명철 부위원장, 다시 한상렬 상임대표, 조선여성동맹 리영희 부위원장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공동호소문은 남측에서 은방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북측에서 최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가 함께 읽었다. 원래 계획에는 남북대표단의 단결놀이마당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취소되고, 대기했던 '우리나라'의 공연도 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개막식과 단합대회를 마치고 북측대표단부터 퇴장을 했다. 그리고 남북 대표단은 호텔 가야금홀로 옮겨갔다. 예정보다 늦은 12시부터 KBS 황수정 아나운서 사회로 남북합동 예술공연이 열렸다.

먼저 북측 공연이 배우 백승환 사회로 시작되었다. 출연진은 인민배우 5명, 공훈배우 5명이 포함된 만수대 예술단, 피바다 가극단, 평양예술단의 배우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무용 - 양산도(정해옥 외 11명), 민속무용 쌍부채춤(김경환의 6명), 물둥이춤(장명순의 6명),

장고춤(공훈배우 리순녀 외 9명) 모두 무용만으로 구성된 공연이었다. 마지막으로 합창 '우리는 하나'를 출연진이 모두 나와 불렀다. 대체로 힘있는 율동 - 그러면서도 선이 부드럽고 섬세하였으며 대륙적인 억센과 빠른 동작, 일사분란함이 돋보였다. 이어 남측에서는 합창, 경북공타령(정은숙과 국립오페라단), 여성판소리(사랑가 - 안숙선 명창), 남성 독창 백두산(이정열) 합창 경의선타고, 어린이 합창단(원불교) 안치환씨 노래 등으로 이어졌다.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예정된 무궁화 불꽃에서의 미술, 사진전도 늦어지고 있었다. 정부 당국이 일부 작품에 대하여 전시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북의 전시회 관계 대표들이 개막식에 나왔다가 몇번이나 되돌아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결국 별문제 없다는 당국의 결정으로 뒤늦게 남북사 진미술전 개막식을 가졌다. 남측에서 정현찬 전농회장과 북측에서 조선사진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최경국 위원장의 개막연설로 전시회가 시작되었다.

6.15 공동선언 뒤에 있었던 행사장면과 남과 북의 자연을 담은 사진 130점과 남북의 자연을 그림으로 표현한 국보급 20여점을 비롯한 100여점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사진 가운데는 2000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리재룡 선생의 따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이 전시회 말고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는 잠실 코엑스 오디오리움에서 북측 예술단의 단독공연이 있었다. 사진 전시회 개막을 끝으로 조순덕 상임의장과 필자는 푸른 영상 김동원 대표와 함께 건국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8.15 민족통일 대회 자주결의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건국대에 모여 있는 양심수 후원회원들과 합류하였다.

**8.15 민족통일대회** 마지막 날은 호텔 무궁화 볼룸에서의 부분 상봉모임과 학술토론회, 폐막식 등이 같은 장소에서 이어서 진행되었다.

이보다 앞서 조순덕 회장님과 양희철 선생님, 노진민 천주교 장기수 후원회 대표와 함께 사진전과 미술전을 돌아보았다. ‘칼춤’, ‘강건너 저녁노을’ ‘백두산’ ‘백두밀영의 소백두’ 등 국보급 작품을 감상하였다. 그리고 리재룡 선생님의 따님 탄생을 축하하는 장기수 선생님들의 모습이 담겨진 사진 앞에서 우리들은 함께 사진을 찍기로 하였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부문상봉모임 시간에 통일연대는 북측의 민화협 허혁필 부의장과 최운주 사회민주당 국제부장 그리고 민화협 사무소 최창덕 소장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남측에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다른 부문모임에 참가한 그외 대표단이 함께 하였다. 오종렬, 한상렬, 권영길, 조순덕, 박정기, 조찬배, 권오현 외 30여명이었다. 모임에서는 소개 시간에 이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시켜 조국통일을 이루자라는 내용의 다짐이 있었고, 특히 남측에서 8.15민족통일대회 통일선봉대가 전국을 누비며 받은 통일염원의 서명이 있는 615미터의 서명천을 북측에 전달하였다. 필자는 민가협과 양심수 후원회 그리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입장에서 송환되어 가신 비전향장기수들과 부문모임 상대로 함께 했으면 하는 제언과 그분들과 상호방문길을 뚫으면 하는 뜻을 공식 제기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짧은 시간 동안 대화는 소개하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밖에도 부문상봉모임은 종단, 민화협, 노동, 농민, 문예, 여성, 청년, 언론 등 부문모임을 가졌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남북이 함께 하는 ‘독도의 영유



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 청산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남북공동사회(남측 백락청 서울대 교수, 북측 최창만 조선 직업동맹중앙위원회 부장)로 기조 발제에 남측에서 강만길(상지대 총장) 교수의 ‘독도 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 청산을 위한 과제’, 북측에선 허종호(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원사, 박사) 연구사의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등이 있고, 그의 발제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남북간의 협력방안(이장희 외대교수)', '독도는 역대 일본정부와 국제 협약에 의하여 영유권이 확인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허종호 북측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사국가화의 문제(한상범 교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영토 팽창 야망의 발현(리학수 북측 등대사 부장- 시간이 없어 발표하지 않음) 등으로 이어졌고, 정리발언(결속 발언)은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이, 공동호소문 낭독은 지은희 민화협 공동대표와 북측의 리학수 등대사 부장이 함께 낭독했다.

이렇게 8.15 민족 공동행사를 모두 마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8.15 민족 통일 대회 폐막식이 열렸다.

남북대표단과 초청인사가 함께 한 폐막식은 남북의 6명 여성이 단일기를 거두는데서부터 시작하여 북측 장재언 총교인 협회의 회장의 폐막 연설이 있었다.

'북과 남의 통일 단체들이 함께 모여 진행한 이번 대회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기치 밑에 우리 민족끼리 기어이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려는 민족의 드높은 기세와 불굴의 기상을 내외에 남김없이 보여준 뜻깊은 민족 대화합이었습니다.' 라 하였고 남측의 백도웅 한국교회협의회 총무는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여기에 평화와 통일과 자주와 번영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57년만에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 통일 대회의 공식 일정이 모두 마치게 되었다.

그 뒤 북측 대표단은 창덕궁 등 고궁관람과 코엑스에서 두 번째 예술 공연을 하였다. 그리고 저녁에는 호텔 무궁화 볼룸에서 북측대표단과 남측초청인이 함께하는 환송만찬이 있었다. 이 만찬에 민가협에서 김정숙, 서경순 전상임의장이, 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운영위원이 함께 하였고, 코엑스 예술공연에는 후원회 운영위원 탁무권, 한상권 교수가 초청되어 관람하였다.

17일 북측 대표단이 통일 대회를 마치고 떠나는 날은 공안 당국의 비굴한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호텔 앞에서 환송하려던 통일연대 소속회원들을 호텔로 들어오는 길목마다 경찰을 풀어 모두 막아서고 있었다.

그래서 통일선봉대 등 청년 학생들은 호텔로 오는 곳곳에서 막혀서 단일기를 들고 비를 맞으며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환송하고 있었다.

일찍 호텔 앞에 왔었던 민가협 어머님, 후원회원, 장기수 선생님과 전국연합, 통일연대 성원들 100여명이 단일기를 흔들며 '조국통일'을 연호하였다. 마음속 깊은 환송을 받으며 북측 대표단이 차에 올랐다.

그리고 남측 환송단도 마중할 때처럼 함께 공항까지 갔었다. 공항에서도 통일연대 청년 학생들이 단일기를 흔들며 "안녕히 가시라" 연호하였다.

귀빈실에서 북측 주석단과 남측 환송단이 다시 만났다. 김영대 단장이 말하였다.

"57년만에 남녘에 와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서운하다. 우리는 평양에서 남녘 동포들을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는데.."라며 환영과 환송에서, 그리고 행사기간동안 당국의 제재에 아쉬움을 말하는 듯 싶었다.

그리고 허혁필 부회장이 북측 대표단 출발 성명을 읽었다. "...우리 모두는 이번 통일대회를 통해서 민족도 하나, 핏줄도 하나, 역사도 하나, 이 땅도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반목과 질시가 아니라 화해와 신뢰를, 분열이 아니라 단합으로 통일을 위하여 더욱 굳게 손잡고 나갑시다."

이렇게 우리는 3박4일간의 역사적인 8.15 민족통일 대회를 마치게 되었다. ~~한~~



## 정약용도 두손 두발 다 들다

— 끝까지 군역 요리조리 피한 조선양반들… 힘없는 농민은 성기 잘라 기피—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현대사

이 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또 그놈의 병풍을 꺼내 재탕?삼탕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는 와중에 18년 만에야 진실이 밝혀진 허원근 일병 사망 은폐?조작사건은 우리의 가슴을 찌른다. 신의 아들은 형제가 군대를 면제받는데, 어둠의 자식은 라면 맛이 없다고 총 맞아 죽고, 그 죽음조차 자살로 은폐되어야 하다니. 병역기피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들은 속된 말로 꼭지가 돈다. 아니, 돌 수밖에 없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사회에서 ‘자랑스럽게’ 군대 빼먹은 것들을 위해 3년 가까운 세월을 씹어야 했더니.

### 조선시대, 번상(番上)과 봉족(奉足)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 군대가 없는 적은 없었다. 군대의 역사만큼 역사가 오랜 것이 병역기피의 역사다. 군에 복무하는 것이 하나의 신분적 특권이고, 군복무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사회에서는 병역기피가 심하지 않았지만, 부담만 있고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불이익뿐인 사회에서 병역기피나 거부가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병역기피에도 뿌리깊은 역사가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귀족이 전사계급였기 때문에 귀족들의 군복무는 당연한 일이었다. 서양에는 이런 전통이 남아 있다 보니 지배층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해야만 지배층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지도층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군복무가 꼽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까지는 이와 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가 창건되고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고려의 지배층은 무신 성향을 버리고 유학을 배우는 문신귀족으로 변화했다. 고려의 문신귀족들은 점차 숭문천무(崇文賤武), 즉 문을 숭상하고 무를 업신여기는 풍조에 빠졌다가, 무신과 군인들의 반발을 자초해 무신의 난이라는 호된 대가를 치른다. 고려시대에 군인은 전시과 체제 아래 편입되어 군

인전(軍人田)을 지급받았다. 군역과 함께 군인전은 세습되었기 때문에 군인전을 부여받고 군인으로 나가는 특정집단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을 군반씨족(軍班氏族)이라고 했다. 이들의 지위는 문신이나 무신에는 못 미치지만, 평민 농민보다는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가 계속되면서 군인들은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천역으로 변해갔고,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군반씨족 체제의 와해는 불가피했다. 무신의 난 이후 정권을 잡은 최씨 가문은 삼별초를 만들었는데 형식은 정부군이었지만, 내용으로는 최씨 가문의 사병(私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삼별초가 해체된 뒤 왜구의 침략 등 외침이 있으면 농민에서 병사를 징발해 대응하고 전쟁이 끝나면 군대를 해산했다. 상비병 체제의 붕괴 속에서 고대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창건 이후 태종은 개국공신들이 두었던 사병을 혁파하고 군제를 개혁했다. 조선 전기의 군제는 기본적으로 병농일치에 입각한 국민개병제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천인을 뺀 모든 사람들이 군역(軍役)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군역은 16살에 시작해 환갑상을 받을 때가 된 60살에야 면하는, 평생에 걸쳐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부담이었다. 병농일치의 국민개병제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토지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조선왕조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급해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의 국민개병제는 성립과 동시에 붕괴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의 군역은 서울로 올라와 현역으로 근무하는 번상(番上)과 번상하는 군인의 생계를 돕는 보인(保人) 또는 봉족(奉足)으로 구분된다. 고려시대에도 봉족을 두었는데, 고려의 봉족은 주된 임무가 군인전을 경작하는 것인 데 비해, 조선시대의 봉족은 번상을 하는 정군(正軍)들에게 토지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布)를 바쳐야 했다. 봉족들이 군역으로 바쳐야 하는 포는 정군의 역종에 따라 달랐지만 대체로 1년에 2필(돈으로는 2량, 쌀

로는 6두)로 상당히 무거운 부담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번상하는 일도 점차 포를 바치는 것을 바뀌어 국방력은 매우 약화했다.

## 승병은 군역기피의 전통?

양반이나 공신의 자제들은 조선 초기에는 충순위(忠順衛)·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 등 특수한 성격의 보충대에 편입되었다. 이들 부대들은 군사적 성격보다는 문무과에 합격하지 못한 자들이 관직에 진출하기 위한 대기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국민개병제의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조선 초기의 양반 자제들은 이런 식으로나마 군역의 의무를 졌다.

조선의 법제상 양반이란 신분의 개념이 아니라 문반과 무반의 관료를 뜻하는 것이며, 법제상의 신분은 양반을 포함한 양인과 천민만을 구분하는 양천제(良賤制)였다. 그러나 제도는 하나의 이상이었을 뿐, 시간이 흐르면서 양반은 특권 귀족화하였다. 양반들은 자신들이 일반 평민들이 저야 하는 군역을 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니, 달가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군역을 지지 않는 것이 양반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조선 초기의 인구 구성에서 양반이 10% 미만이고, 노비 등 각종 천민이 40~5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만이 군역을 전담한 것이다.

포 2필이라는 만만치 않은 군역을 거의 평생 져야 하니 농민들 사이에 군역을 피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엄격한 신분제 아래서 양인의 신분은 노비보다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군역의 부담이 무겁다 보니 양인의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세도가나 힘 있는 양반 가문의 노비가 되는 것을 자원하는 일이 많았다. 스스로 노비의 길을 택해야 할 만큼 군역의 부담은 무거운 것이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승려가 되는 길이었다. 조선시대 승려의 지위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천인에 속하는데, 양인인 농민이 사회적 신분을 낮춰 승려가 되는 데는 불심의 발동보다 군역의 무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 농민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 승려가 되는 일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승려들은 국가에서 토목공사에 동원하는 요역 대상이 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승병이 출현한 것도 호국불교의 전통보다 승려집단이 군역기피자의 소굴이라는 인식과 더 관련이 깊다. 이도저도 안 되는 농민들은 도망을 쳐서 군역을 모

면했다. 또 당시에는 대립(代立)이 공공연히 인정되어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번상해야 할 차레에 돈을 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현역근무를 하게 했다.

양인들 가운데서 그래도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향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군역을 피했다. 해방 이후 대학생에게 징집을 연기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는 향교에 입학해 교생(校生)이 되면 군역을 면제해주었다. 여기서 특기해야 할 점은 서양과는 달리 유교문명권에서는 평민도 여건이 허락되면 교육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평민 가운데도 드물기는 하지만 문과나 생원, 진사과에 합격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향교의 교육 기능은 매우 취약했다. 이미 중종대에 이르러 당대의 권신 김안로(金安老)가 향교는 군역을 피하려는 자의 소굴이라고 개탄했을 정도로 향교는 교육적 기능을 상실했다. 더구나 이미 군역면제의 특권이 있는 양반들은 평민들이 군역을 피하려고 득시글대는 향교에 자제들을 보내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다. 17세기 이후 사교육기관인 서원이 발달하고, 공교육기관인 향교의 교육 기능이 붕괴한 것도 군역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 갓난아기도 군역, 죽은 사람도 군역

임진왜란 이후인 인조대에 이르러 전국의 교생 수가 4만 명을 넘었다. 교생들이 향교에 적을 두는 이유가 유학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역 기피에 있었고, 평생을 교생으로 있으면서도 글 한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수도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정부에서는 낙강충군법(落講充軍法)이라는 것을 제정해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생들에게도 군역을 지게 하는 방안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아직 향교에 빈한한 양반 자제들이 적지 않게 다니는데다가, 군역을 지느냐의 여부가 양반층의 신분의 상징이 되어 버린 마당에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곤란했다. 결국 '민심은 잃어도 좋으나 선비들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民心可失 士心不可失)'라는 명분 아래 이 법은 시행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효종은 청나라의 침략에 굴복한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에 힘을 기울였다. 민족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북벌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의 군비 확충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이른바 양역변통(良役變通)의 논의

를 넣었다. 여기서 양역이라 함은 곧 군역을 말하는 것으로, 양반들이 전혀 군역을 지지 않아 양인들만 지게 된 사정을 반영한다. 좁은 지면에 복잡한 논의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군역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유일한 방안은 양반을 포함한 모든 가호에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법(戶布法)을 실시하는 데로 모아졌다. 그러나 군역을 지지 않는 것을 신분의 상징으로 여기던 양반들은 이 제도에 완강하게 반대했다.

영조는 호포법이 실시되면 자신이 가장 먼저 호포를 바치겠다고 선언하며 양반들의 양보를 촉구했으나, 양반들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결국 호포법은 시행되지 못하고 대신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었다. 균역법은 종래 포 2필인 군역의 부담을 1필로 반감하는 조치였다. 균역법은 호포법만큼 강력하지는 못했어도, 잘만 시행되면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균역법은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세율을 줄인 대신, 세원을 넓히 고자 한 정부는 군적에 올라 군역을 져야 하는 사람들의 총원인 군액(軍額)을 크게 늘린 것이다. 영조의 전 임금인 숙종대에 30만이던 군액은 영조대에 이르면 50만으로 크게 늘어났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흔히 삼정(三政)의 문란이란 말을 많이 쓴다. 삼정이란 정부 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토지세인 전정(田政), 군역을 포(布)로 받는 군정(軍政), 정부의 구휼미 제도로 사실상 고리대금업이 돼버린 환곡(還穀)을 말한다. 이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부담이 군정이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세율은 낮아졌지만, 세원을 확대하다 보니 16살 이상 60살 이하의 장정이 아니라도 군역의 부담을 져야 했다. 갓난 아이도 군적에 올라 군포를 부과하는 황구첨정(黃口籤丁), 이미 죽은 사람도 살아 있는 것으로 꾸미거나 체납액을 이유로 군적에서 삭제해주지 않고 가족들로부터 계속 군포를 거둬가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도망간 사람의 군포를 친척이나 이웃에 부과하는 족징(族徵)·인징(隣徵) 등은 군역이라는 이름 아래 농민들을 쥐어짜는 고전적 수법이었다. 건디다 못한 농민들이 도망갈수록 남아서 땅 파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 ‘학질은 떼도 첩역은 못 댈다’

또 조선 후기에는 군제가 복잡해지면서 농민들도 자신

이 어떤 군역의 군역을 지는지 알 수조차 없었다. 그러다 보니 중앙의 이 군역, 저 군역이, 또는 지방의 군역에서 각각 군역을 부과해 한몫으로 여러 곳에 군역을 져야하는 첩역(疊役)의 폐단도 자주 일어났다. 때문에 농민들은 학질은 댈 수 있으나 첩역은 댈 수 없다고 탄식했다.

농민의 부담이 이렇게 무겁다 보니 아전들에게 뇌물을 바쳐 군역을 면제받으려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났다. 아니, 아전을 타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임진왜란 이후 정부는 부족한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납속책(納粟策)을 써서 곡물이나 돈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벼슬을 팔았다. 벼슬 임명장인 교지에 이름을 비워놓은 이른바 공명첩(空名帖)인데, 이 벼슬을 산 사람은 호적에 납속, 즉 돈으로 산 것임을 밝혀 군역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지켜질 리 없었다. 돈 주고 공명첩을 살 정도의 재력기라면, 아전들에게도 돈을 먹여 호적에 납속 두 글자를 빼고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 가난한 양반들은 조상이 받은 여러 장의 교지 가운데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팔아먹고, 이를 산 사람은 교지의 주인공이 자기 조상이라 우기고, 또 족보를 위조하고 해서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군역을 빼먹었다. 이렇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바꿔가며(換父易祖) 얻은 양반 지위는 실제 양반 사회에서 양반으로 대우받을 수 없었지만, 국가를 상대로 군역을 면제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문란과 관련해 호적을 분석해 양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도 다 이들 군역기피자들 때문이다.

그러면 호적을 정리하고 인구를 파악해 군정을 닦는 군정수(軍政修)를 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았을까?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비꼬는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아전이라는 것들은 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고, 일이 있어야 먹을 것이 생기니, 군정을 닦는다고 호적을 재정리하면 아전의 이익이 될 뿐 오히려 농민에게 부담이 될 뿐이라서, 군정수는 현명한 수령이 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다산 같은 철저한 개혁가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가 된 것이다.

천민의 다수가 조선 후기에 가만 양인에 편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회도 특권층이 40%를 넘는다면 유지될 수 없다. 경제적·사회적 형편이 좋은 상위 40% 정도가 군

역을 지지 않고, 또 노비 등 천민들을 빼고 나니 중하위층 30, 40%의 양민들만 군역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정약용이 ‘애절양(哀絶陽)’이란 끔찍한 시를 쓴 것은 이런 상황에서였다.

시아버지 돌아가 벌써 상복을 벗었으며/ 갓난 아기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첨정되어/ 군  
보에 올랐네/ 하소연하러 가니/ 호랑이 같은 문지  
기 지켜 썼고/ 이정(里正)이 호통치며/ 외양간에서  
소마져 끌어갔네/ 칼 갈아 방에 들어가/ 자리에 피  
가득한데/ 스스로 한탄하는 말/ 애 낳아 이 고생당  
했구나.

이리저리 다 군역을 피하는데, 그럴 힘도 주변머리도 없  
는 불쌍한 농민이 군역의 부담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생기  
를 지른 것이다. 피임수술도 기구도 없던 시절, 아이 하나  
더 태어나면 군포 2필씩 부담이 되니 그곳에 칼을 댄 것이  
다. 정력에 좋다는 것은 모두 다 잡아먹어 멸종위기에 놓  
인 정력공화국 대한민국의 이야, 가련한 조상의 끔찍한 군  
역기피여!

## 보수적 대원군조차 실각시킨 호포법

1862년 대기군이 들고 삼남지방은 흔히 민란이라고 하  
는 농민들의 항쟁에 휩싸였다. 삼정의 문란, 특히 군정의  
문란은 농민항쟁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대원군이 집권한  
것은 안으로는 거센 농민항쟁에, 밖으로는 서양의 동아시아  
침략에 직면한 상황에서였다.

안팎으로 조여오는 위기상황에서 대원군은 나름대로 강  
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국방력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보수적 개혁가인 대원군의 여러 정  
책 가운데서 군역과 관련된 것은 17세기 말부터 양역변통  
논의 때마다 대안으로 제기됐으나 양반들의 저항으로 시  
행되지 못한 호포법의 시행이다.

보수적 실용주의자인 대원군은 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호포법을 시행했지만, 결  
코 양반들의 신분적 특권을 약화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  
다. 그는 군포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신분의 상징으로 여  
기던 양반들의 입장을 고려해 양반가에서 호포를 낼 때는  
노(勞)의 이름으로 내게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양반들은 대원군을 용납하지 않았다. 병인양  
요·신미양요 등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와 미국 함대를  
‘격퇴’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하고, 강력한 쇄국정책  
으로 보수적 양반의 지지를 받은 대원군이 실각한 결정적  
요인은 민감한 호포법의 시행, 곧 양반들이 자신의 신분적  
특권의 상징이라 여기는 군포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초기에는 국민개병제를 표방해 양반들도 군역을  
저야 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군역면제는 양반의 특권으로  
자리잡았다.

이회창 후보 일가의 병역면제 의혹을 둘러싸고 많은 사  
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거론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유교가 뿌리내린 근 천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 지배층의 덕목에 군복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  
반인과 똑같이 군역을 지는 것은 오히려 치욕적인 일이었  
다. 조선시대였으면 상류층의 병역면제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회창 후보는 시대를 잘못 만난 불행한 지  
도자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조선시대의 지  
배층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이런 류의 글을 쓰다 보면 당연히 지배층에 대해 비판적  
일 수밖에 없지만, 조선시대의 지배층들은 나름대로 매우  
엄격한 자기관리의 잣대가 있었다.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조선왕조가 5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당시 지배층이 그들 나름대로 엄  
격한 책임감으로 사회를 지탱해왔다는 점을 떠나서는 생  
각할 수 없다.

그것을 선비정신이라 부르든, 유교 지식인들의 자기성  
찰이라 부르든 불행히도 오늘날의 상류층은 그런 전통사  
회 지배층의 책임감과 전혀 무관하다.

그렇다고 무(武)의 전통을 이은 서구의 노블리스 오블리  
제를 체현하는 것도 아니다. 이 땅의 주류는 정녕 어디에  
서 와서 어디로 가려 하는가? ~~하~~

---

●한홍구 교수님께서 지난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가 함께 하는 수련  
회에 “군사주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우리 나라의 병역비리 역사  
와 문제점 및 양심적 병역기피의 정당함에 대해 강연해주셨습니  
다. 이를 계기로 많은 회원들에게 병역문제를 알리고자 이번 논단  
에 ‘한겨레21’ 425호에 실린 한홍구 교수님의 글을 게재합니다.

---

## 서른 다섯은 참 어중편 나이다.

고현희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휴우**, 이제 겨우 아이들을 재웠다. 황망함. 약속한 글을 쓰기 위해 아이들을 반 강제로 재우고 나서, 간신히 시간을 내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머릿속이 황하다. 기쁨과 성냄으로 항상 분주한 내 생활들을 막상 글로써 보자니 어디서부터 뭘 써야할지 막막하고 당황스럽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한 남자의 아내인 서른 다섯 살의 여성이다. 어떻게 벌써 서른 다섯 살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처음 소주를 마셔본 스물 한 살의 사월이 너무 생생하고, 스물 두 살에 시작했던 연애의 그 감정들이 오롯이 가슴에 남아 아직도 가끔은 마음이 울렁거리는데 벌써 서른 다섯 살이라니.

서른 다섯은 참 어중편 나이다.

발랄하자니 주책이란 말을 듣기 십상이고, 점잔을 뺄자니 우습다는 말 듣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닌가싶다. 그러다 보니 발랄과 점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이제야 차차로 철이 들어가는 나인 것 같다. 하지만 나도 과연 그럴까? 위로는 아직도 친정엄마와의 일전을 불사하고, 밑으로는 이제 고작 네 살, 두 살인 딸들과 힘겨루기 전투에 지쳐하지 않는 내가 과연 철이 들어가고 있는 서른 다섯 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지금의 내 나이가 무척 행복한 나이라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다. 내가 첫 아이를 낳고 얼마 후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엄마가 해 주신 말씀.

“다 지나고 보니 너희들 똥 기저귀 뽀 땀 때가 제일 행복했더라.”

또 어디서 주위 들은 명언. 자식은 너 땀 살까지 하는 효도가 평생 하는 효도의 반 이상이라나? 딸들의 고집 앞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면 이게 효도란 말인가 싶다가도 그 애들의 빛나는 눈빛과 작은 입술이 만들어 내는 행복에 빠질 때면 정말 그 말씀에 크게 고개를 주억거리게 된다.

나는 여성으로써 가장 행복하다는 그 ‘똥 기저귀’ 시기를 무척 분주하게 지나고 있다.

나는 ‘불법 과외교사’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갈아먹고 사는. 사실 과외 때문에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나는 ‘불법 과외선생’이다. 남들은 퇴근을 준비할 시간 즈음 출근해 밤이 이슬해져야 돌아오는, 혹은 직장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과외선생을 만나 회식이라고 할라치면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게 내 직장생활이다.

약간 날라리이며, 멋모르고 세상을 조소하던 여고시절, 나는 절대 선생님만은 되고 싶지 않았다. ‘머리가 회색해져서까지 아이들의 가방이나 뒤지고 이름표 달았는지나 검사하며 살아야 하는 건 너무 비참하다. 몇 십 년 동안 학문적 진전없이 맨 날 같은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는 건 또 얼마나 무료한 일일까’ 하는 나름대로 조숙한 척하며 내린 나의 시건방진 결론에 나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인생이란 알 수 없는 참 묘한 동그라미. ‘합법 교사’는 아닐지라도 나는 어쨌거나 ‘선생’이 되다니.

법학과에 진학한 나는 동아리로 학보사를 선택했고, 법학과를 버린 채 학보사과로 살았다. ‘인권변호사’는 나중에도 될 수 있지만, 조국의 자주와 민주와 통일은 당장 나를 필요로 했으니까 졸업 후 취업은 요원했다. 계속되는 낙방. 당황스럽고 우울하던 스물 다섯.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학원선생 생활.

학원에 가면 나와 처지가 비슷한 선생들을 만나 밤생활(?)은 즐거웠지만, 낮이 되어 사회에 당당하게 나간 친구들을 만나면 언제나 주눅들어하던 시간들.

하지만 양심수후원회 회원이 되면서 나는 조금씩 내 자신에 대해 긍정성을 회복해 갈 수 있었다. 직업관계상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나는 그 시간 중 일부를 이용해 미미하나마 후원회 활동을 하며, 내 인생에 보석과도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은 북으로 돌아가신, 혹은 더 먼 길을 떠나신 훌륭한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만남. 지금도 그들에 대한 생각만으로 마음이 훈훈해지고 지친 어깨에 힘이 되는 회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그리움과 함께 더 열심히 활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하며 떠오르는 얼굴, 정태 형과 권오현 선생님과 만남.

나는 장기수 선생님들을 만나며 참된 삶과 인간의 강함 혹은 삶에 대해 인간이 가져야 할 예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회원들을 만나 건강한 삶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 있었다. 고백컨대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땐 언제나 행복했다.

이 글을 쓰며 다시 나를 돌아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다. 다만 내가 될 하찮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둘러싼 이런 너무나 좋은 사람들 때문이 아닐는지. 나는 그 풍성한 숲에서 오늘도 숲 향에 취해 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라고 있다.

깊이 고개를 숙여 그들에게 감사와 안부를 전한다. 

# 반칙왕



● 출처: 인터넷 방송국 '민중의 소리'에 실린 것 가운데에서.

● 인터넷 방송국 '민중의 소리' 기자로 일하는 김도균 회원님께서 앞으로 매달 '후원회 소식'에 시사만평이나 만화를 추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정순택, 정순덕 노인등 2차송환희망자 32명을 조건없이 송환하라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녘고향으로 돌아간 지 오늘 2돌을 맞고 있다. 분단 아픔을 온 몸으로 떠안고 수십년 옥고를 치루면서도 통일염원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신념의 강자들이 마침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의 길을 넓히면서 마음속 고향, 그리운 가족품으로 돌아갔던 그 날의 감동은 두고두고 민족의 경사로 남겨질 것이다. 비록 정순택, 정순덕 두 노인이 빠지는 안타깝고 개탄할 일이 있었지만 큰 흐름으로서의 9.2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구체적 실천이면서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승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한번으로 끝날 수는 없었다. 분단체제가 불러온 억혹한 사회현실로 미처 송환신청을 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남아 있었다. 바로 비전향장기수였지만 가정문제 등으로 송환신청을 유보했었거나 오랜 권위주의체제와 공안당국의 감시·통제속에 고립되고 폐쇄적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송환과 관련된 정보나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순택, 정순덕 노인처럼 부당한 전향제도 아래 강제전향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렇게 강제로 전향당한 사람들을 결코 '전향장기수'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상전향을 강제했던 사회안전법과 사상전향제도를 위헌성과 국제인권협약에 배치되고 있다는 사회여론으로 정부 스스로 폐기했으며 본인 의지에 반하여 잔혹한 고문 행위등으로 강제전향시킨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지난 해 2월 6일 두 유형의 장기구금양심수 33명이 전향무효선언과 함께 북녘고향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 모두를 비전향장기수로 규정하고 조건없는 송환을 촉구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같은 해 8월 9일엔 추진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등 3당정치인, 언론인, 교수, 정책연구소 연구원등이 함께하는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촉구하는 토론회에서도 본인의지에 반하는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고 사상전향제도 자체도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위배되는 반인권, 반인륜제도임을 확인했었다.

그런데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국가기관의 중대 발표가 있었다. 지난 8.29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74~76년 사이 대전과 대구교도소에서 사망한 비전향장기수 최석기, 박용서, 손윤구씨 사건 의문사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당국이 발표했던 단순 사망, 자살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사상전향을 강제하는 공권력의 위법한 폭력행위로 타살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전향공작에서는 죽을 것인지, 전향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할 만큼 갖가지 고문형태가 잔혹했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법과 사상전향제도를 폐기함으로써 잘못된 법과 제도였음을 인정하였지만 그 잘못된 제도와 위법한 행위로 비전향장기수를 죽게 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었다. 그런데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의 죽음들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차원의 보상을 함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이같은 조사결과 발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옥중사망 사건 진정의 최종판단(민주화운동관련여부등)을 기다릴 필요도없이 사상전향제도의 부당성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했다는 조사결과 발표만으로도 국가는 고인들에게 응당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제도아래 잔혹한 고문등으로 강제전향당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1차비전향장기수 송환에서 제외되었던 정순택, 정순덕 노인을 비롯한 강제전향당한 모든 장기구금 양심수의 전향자체를 정부가 무효화하고 전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함도 주장한다. 그러한 보상 가운데 2차송환 희망자들의 전향무효선언과 송환요구를 지체없이 받아들여 빠른 시일안에 조건없이 송환할 것을 주장한다.

**2차송환 희망자들** 가운데는 전쟁포로 출신 13명도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전향강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가 보장되어야 했었다. 이들은 국제법상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 학대, 고문을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와 부당한 재판과 형의 집행도 당해서는 안되었었다. 또한 적대행위가 끝난(정전협정)뒤 60일 이내에 이미 복송되어야 했던 신분이었다.

우리는 비전향장기수송환과 함께 송환에 따른 또 다른 인도주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1차송환때 신인영 노인의 93세된 노모님을 모시고 가야하고 이경구 노인 등 가정을 이루었던 부인이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했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이제 95세된 어머니는 아드님과 여생을 보내려던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한 채 아드님의 운명소식을 듣는 안타까움에 있게 되었다.

비전향장기수송환의 1차적 의미는 그들이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지향해 왔던 세계로 돌아가는 문제였지만 노모를 모시고 가고 부부가 함께 가야함은 1차적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도주의 문제이며, 인류에 관한 문제이다.

이들의 재결합문제는 바로 비전향장기수송환의 연장 문제이다.

**이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요구하고 나선 지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2차송환에 대한 정부당국의 의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전쟁책동 등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매우 고무적인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57년만에 처음으로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와 8.15민족통일대회를 성사시킨 것을 비롯, 남북당국자회담이 잇달아 열리고 경의선 잇기 등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뿐만 아니라 조·일 정상회담, 미국특사의 평양방문도 예정돼있어 얼어붙었던 동북아 기류가 풀려가고 있다. 특히, 9.4~6일 사이엔 남북적십자대표회담이 예정돼있는 등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인도주의문제가 다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회담에서는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이행이 어떠한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되듯이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전향장기수 송환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신뢰를 쌓고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본보기로써 그리고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정순택, 정순덕 노인등 32명을 조건없이 송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 “자기 반성을 생활화하면 단결할 수 있다”

오영순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갈현동후원회 회원

급작스런 만남  
에 늦을세라  
약속 장소에 도착했  
을 땐 이미 선생님과  
갈현동 후원회 회장이  
그 자리에 와 있었다.  
어수선한 지하철역을  
빠져 나와 배고픔을  
씻어내고, 어느 조용한  
다방에 자리하였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선생님께서 박정철  
회장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고,  
나 또한 막상 뵈니,  
낮이 익은 지라  
긴장되리라는 생각과는  
달리 편안함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송세영 선생님은 1931년 2월 7일 논산 연무읍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나셨다.

서당을 운영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가 계셨기에 집안은 늘 단란했고, 어렸을 적부터 고생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사셨다 한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걸 무척이나 좋아 하셨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어려운 한문도 탐독했을 뿐 아니라, 일본문학전집, 세계문학전집을 비롯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셨다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946년 논산 대건중학교에 입학하신 선생님은 이웃



양심수후원회 산행에 함께하신 송세영선생님 (왼쪽 상단 세번째)

마을 익산을 자주 드나드셨다. 큰외숙 영향으로 온 집안이 좌익운동 분위기던 외가를 빈번히 드나들면서 열다섯 어린 나이에 선생님의 의식은 변화되고 있었음이라!

1947년 학내 분위기는 좌·우익으로 나뉘었다. 이때 '민주학생연맹'에 가담하여 학생운동을 시작하신 선생님은 전단지 살포를 하다 두어차례 유치장 신세도 졌지만 그때마다 어린 학생인지라 쉽게 풀려나셨다. 그리고 학내 분위기는 '민학'의 힘이 크게 작용하면서 '민학'은 학내의 모순된 문제들을 제기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8년 여름 민학이 와해되면서 '민학'에 가담한 모든 학생은 철창신세를 지고 담임선생님과 주동자들은 송치되었고, 선생님은 3개월 감금 생활 끝에 기소유예로 풀려나셨다.

선생님 나이 19세, 한국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 선

선생님께서 어렵게 학교에 복귀하게 되지만, 곧바로 한국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더이상 학교를 나갈 수 없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청년과 친구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며 의견을 나누었지만, 조직의 끈이 닿지 않아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즈음 면소재지에 다니는 둘째 형님께 밥을 갖다 드리는 일을 선생님께서 하게 되셨는데, 밥을 갖다주러 간 선생님을 지켜본 면소재지 직원이 좌익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신고하여, 잡혀 들어갈 뻔한 선생님께서는 겨우 그 위기를 넘겼지만 겁이 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때부터 친구 집에서 전전궁궁하며 지내야만 하셨다.

친구집에서 전전궁궁하며 지내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냐는 고민을 친구들과 나누던 선생님은 이즈음 인민군 선발대를 맞이한다. 선발대는 남으로 내려가고, 선생님은 이때부터 '민청사업' 조직에 참여하여 간부로 열렬히 활동하신다.

1950년 9월 인민군이 후퇴할 때, 선생님은 대둔산으로 들어가신다. 함께 한 사람중에 선생님께서는 비록 어린 나이에 속했지만, 통신중대 연락책으로 발품팔이를 하며 지시문을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맡으신다. 일이 없을 땐 '학습강사'를 하시기도 했는데 주로 노동신문을 읽은 후 중요한 사항이나 세미나에서 발표된 중점 사항을 전달하고 강의도 했더니, 참으로 선생님이 큰 일꾼이셨음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1951년 추운 겨울, 대공세에 쫓겨 지리산 쪽으로 후퇴하던 중대는 장수(백운산) 골짜기에서 좁혀 들어오는 포위망에 무너졌다. 마침내 52년 1월초 선생님이 이 과정에서 붙잡히신다.

'특별 조치령' 위반이란 죄목은 사형감이었지만, 나이도 어리고 심부름만 했다가하여 선생님은 15년 형만 받으셨고, 또한 다른 이에 비해 고문도 적게 받았다고 하니, 그나마 이 대목에서 위안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53년! 대전형무소로 이감된 선생님은 폐결핵 환자들만 송치하는 마산 형무소로 다시 이감되는데, 그곳에서

는 환자전문치료 형무소라 해서 밥도 조금 더 나오고 약도 나오는지라 조금은 편하셨다 한다. 그러나 54년 12월부터 마산형무소에 최초로 전향공작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때 몸과 마음이 약해질대로 약해진 환자들인지라, 많은 사람이 전향 공작에 대부분 넘어갔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전향공작 사업때 전향을 안한 사람들만 대구 형무소로 이감되었고, 이곳에서는 15~20년 형을 받은 사람들만 백명을 채워 마포 형무소로 다시 이감돼 마포 인쇄공장에 일꾼으로 투입됐는데, 이들 중에 선생님도 끼셨다.

56년 12월! 마포형무소에도 전향 공작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중에 전향하지 않은 스무 명은 부산으로 이감되어 처음으로 독방생활을 하는데, 이중에 선생님도 다시 함께 하신다.

1960년 4.19혁명때 부산형무소 장기수 선생님들이 '공장출력 해달라', '지필묵 허가하라', '주·부식 정량 제공하라', '기타 운동시간 보장하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일주일동안 단식투쟁에 들어갔는데, 형무소 측에서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 한다. 그러나 공장출력 요원으로 일하던 선생님은 1961. 5.16 쿠데타 이후에 다시 대전으로 이감되었고, 1967년에 만기 출소를 하신다.

## 선생님 나이 서른 일곱!

청춘을 감옥생활에 투신한 선생님은 바깥세상의 고단함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님도 세상을 떠난 후였고, 가족들은 선생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그 누구하나 선생님을 받아줄 수가 없었다.

그 후 큰 누님집에 겨우 숨어 지내다 어찌하여 아는 사람 소개로 강말분 여사를 만난 선생님은 백년가약을 맺으신다. 선생님이 헤쳐온 그 모든 인생사를 듣고도 묵묵히 선생님과 함께 해오신 사모님! 이 분이야말로 진정한 참 동지며 친구가 아니실까? 문득 그러보니 풋풋한 인자함이 묻어나오실 것 같다.

겨우 신집살이를 차린 후 리어가 장사에서부터 안한 것 없이 다해보셨다는 선생님!

선생님의 부지런함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부터 창조 되었음이라! 그 창조된 선생님 모습이 있었기에 슬하에 자녀 두분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였음을 증명하리라!

“살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나? 나 역시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로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려면 민족대단결속에 6.15남북 공동선언을 관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씀 하시는 선생님!

“생활상에서 단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의견에서 비롯된 모든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겸손하고, 자기 비판적이어야 한다. 나부터 잘못에 대한 자기반성을 생활화하면 단결할 수 있다”고 신념을 굽히지 않는 선생님의 모습이 모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보인다.

선생님을 만나 술한 고생을 해오신 사모님이 이제 살만하니까 한 달 전 중풍으로 쓰러져 신체의 반을 자유로이 못 쓰신다 한다. 그러기에 요즘 가슴이 더 저민다는 선생님!

오십만원 월급쟁이 가장으로 직장에 나가다 보니, 대낮에 있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그저 동지들에게 죄스럽다 하시는 선생님! 손님을 집에서 맞이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는 선생님! 자상함과 인자함이 묻어나오고 있었다.

산행을 할 때면 젊은 청년보다 앞서 오를 수 있다는 선생님 옆에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은 사모님이 함께 하여, 오래도록 우리들 곁에서 귀감이 되어주시길 기원한다. 



## 알립니다

### 회원교육강좌

지난 시간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강의 주제를 연강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일 시: 10월 6일 오후 2시  
장 소: 낙성대 만남의 집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내리세요!)

### 9월 산행



드디어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역사의 현장 남한산성으로  
회원들과 함께 산행을 떠납니다.

일 시: 9월 29일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남한산성역 매표소  
만나는 곳: 회비 3000원, 도시락 등  
차 편: 지하철 8호선

### 국가보안법폐지 거리캠페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간부들이 이적단체협의로연행되는 상황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은 반인권·반통일·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하고 전근대적인 공안탄압에 항의하고 한청과 연대하고자 국가보안법폐지 거리캠페인에 10월부터는 종전처럼 격주가 아닌, 매주로 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 시: 매주 토 오후 5시~6시(1시간)  
장 소: 탑골공원

## 이제부터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곽인석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원합니다.”

지난 7월17일에 법을 만든다는 국회앞에서 제헌절 기념식에 맞추어 한 청년이 피켓을 들고 나홀로 외치고 있었다.

올해 27세의 당당한 청년 유호근.

평생 건축(목수)일만을 묵묵히 해오시는 아버지와 평범한 가정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단란한 가정속에서 성장한 순 서울토종이다.

어렸을때는 선생님 말씀과 어른들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제도권 교육의 영향 아래 폼나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교가 되는게 꿈이었다는 순태이었다.

그렇게 보통 고등학생이었던 유호근이 처음으로 사회인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고2때 신문반 반장을 하면서 였다고 한다. 선배를 따라 홍사단 고등학생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사회문제들에 대해 어렵듯하게나마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불순(?)이 잉태된 시기였다.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면서 통일문제 연구소 홍사단 아카데미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던 선배의 영향으로 바로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에 이



르렀다.

활동하는 사람으로 연애하는건 혁명의 적이라 생각했기에 한달을 이어온 연애활동까지 죄책감으로 중단했다는 '순수의리파 청년'

그 청년이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도 말, 인터넷에서 '평화인권연대'에서 병역거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때부터 어떻게 투쟁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오대양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

2003년까지 방위산업체에서 받아주겠다고 유예기간이 설정된 상태였고, 지난 6월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그러나, 7월 입대 영장이 나오자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 정면돌파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양심적 의지를 행동으로 결행한 것이다.

7월 9일 입영일 새벽 5시에 어머니께서 아들을 깨우셨다. 큰 일을 직감하신 어머니는 빨리 입대하라며 손에 이십만원을 쥐어 주셨다.

아들은 죄스러운 마음에 집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새벽 일찍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매다가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던 것이다. 이틀 뒤 하늘을 감싸안은 듯 자식사랑에 온 정성을 쏟으시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오셨다.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 빨리 가봐라...”

“하늘이 노랬습니다. 결국 내가 일을 저질렀구나!”

병역거부를 결정하기까지 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움이 선택을 머뭇거리게 한 가장 큰 이유였던 효자는 이제 또 다시 가슴을 여민다.

‘시간이 지나면 왜 자식이 이런 가시밭길을 택했는지 이해하시라 믿기에 불효라는 걸 알면서도 몇몇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자 합니다. 당당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아들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하늘이 맺어준 부모자식을 무엇이 멍들게 하는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아픔을 들어 보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른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지 않는 비군사적, 민간 봉사적 성격의 분야에서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에게 대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에서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서는 이 양자의 조화를 보장해야 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항명죄’ 혹은 ‘병역법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는 한국전쟁을 겪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정착화되면서 이루어졌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군 입영 후 집총거부자의 경우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입영거부자의 경우 ‘병역기피죄’가 적용되어 병역법 87, 88조에 따라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로 처벌된다.

하지만 군부독재시절은 물론이거니와 문민정부시절의 90년대 중, 후반까지도 가중처벌로 3년 이상을 선고 받거나, 35세까지 징집가능연령을 근거로 한 사람에게 두 세 차례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렇게 항명죄 혹은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에 달하고, 현재 1,700여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매년 600여명 정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이며 법적, 사회적 처벌 또한 매우 가혹한 것이라 하겠다.

이 냉전의 유물이 아직도 신주처럼 떠받들여지고 있는 반쪽의 세상에서 자신의 양심을 당당히 표현하고 실행하고 있는 청년 유호근의 신념은 무엇인가?

첫째: 잘 죽자, 후회없이 살다 죽고 싶다.

둘째: 청년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그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가 아니라 옳은가 그른가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멋진 청년은 요즈음 검찰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사당동에 위치한 ‘사랑 손’이라는 정신지체장애 공동생활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영업사원처럼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 총학생회실을 찾는다.

‘전 7월 9일 병역거부를 선언한 유호근이라고 합니다.’라고 운을 뗀 뒤 병역의 당사자인 대학생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는 차후 약속을 잡는 일이다.

외로운 투사를 생각하면서 지레 짐작으로 힘들겠다는 안타까움을 갖은 것이 부끄러웠다.

이제 그의 고귀하고 선도적인 역사적 과업에 가슴을 열어젖히고 희망을 노래 부르게 되었다.

그의 가슴에 메아리 쳤다는 글귀가 가을 귀뚜라미 소리를 뒤로하고 뽕뽕거린다.

‘다수의 지배가 허용되고 지속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그것이 옳을 가능성이 크거나 그것이 소수자에게 가장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이다.’ 

## ‘기회가 주어져 있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이창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간사

8·15 사면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폭적인 양심수에 대한 사면이 아닌, 아주 형식적인 사면이었다. 양심수는 고작 3명이 석방되었다. 그 중에 한 명이 1999년 8월 21일 소위 ‘민혁당’ 1차사건으로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실행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만 3년을 감옥에서 살고 가석방조치로 나온 심재춘님이다.

이번 기만적인 사면에 대한 그의 답답함은 이러하다.

“이번에는 했어야 했는데.... 아쉬웠어요. 나오자마자 못나온 사람들을 만나러 안동, 광주, 전주, 부산, 대전 교도소 등을 다녔어요.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 사람들에게겐 가족이 있고, 미래가 있고, 동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감혀있어야 하나? 나는 이제 밖에 있는데.... 김대중 정부가 ‘결자해지’ 하는 차원에서 감혀있는 사람들을 빨리 석방시켰으면 해요.”

### 1. 오랜만의 교정

1970년 전주에서 태어났고 삼형제의 장남인 심재춘님은 1988년 서울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한후 졸곧 서울대 교정에서 떠나지 않았다. 구속되기전 그는 서울대 대학원 국민윤리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였다. 이제 논문을 제출해 통과가 되면 양심수로써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윤리학 박사’가 되는 것이다.



“학교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워낙 절간 같은데 살다보니 개강한 학교에서 복직되는 사람들을 보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참, 오늘 아침 TV를 보는데 천안교도소의 한 소년수 얘기가 나왔어요. 하루 귀휴나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소년수에게 밖에 나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묻자 그 소년이 ‘시장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복직대는 사람들 속에 있고 싶다는 거죠.”

사실 그는 오늘 처음 학교에 오는 것이다. 필자와의 인터뷰겸 학교 일도 볼 겸해서 이렇게 첫 걸음을 한 것이다. 참으로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고부터 동아리 생활을 했어요. ‘방송연구회’라는 동아리였는데 학교생활을 거의 거기서 했어요. 1987년 6월항쟁이후 이른바 ‘운동의 대중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데모도 했죠. 고등학교때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도 한 몫한 것 같아요. 개인의 욕심보다는 없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저의 성격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아리 생활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현실을 알게 되고, 함께 하는 선배들간의 좋은 사람관계 등으로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죠. 1학년초 수업시간에 뒤에 앉아서 전태일 평전을 읽으며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지난 6월에 보았던 박종철 열사의 드라마가 생각났다. 뜨거운 열정의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속에서 자신들의 진로를 열사로, 양심수로 그렇게, 그렇게 그려갔던 것이다.

## 2. 감옥 안과 감옥 밖

지금 그의 집은 대구교도소가 아닌 신월동이다. 석방된 그는 미아가 될 뻔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봉천동에 있던 신희 집도 옮기고, 본가도, 처가도 모두 이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영나온 가족의 손에 이끌려 집을 찾아갔다.

도착한 집이 생소해 전원스위치도 어디 있는지 몰라 멍하니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부인이 왜 그렇게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고 한다. 신희 때부터 있었던 가구만이 낯익었다고 한다. 이제 그는 오랜 감옥의 시멘트 체취를 접고 감옥밖 생활에 자신의 감각을 막 적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담배를 피웠다. 감옥에서 하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라고 했다. 이 기회에 끊으라는 말에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타율에 의해 3년간 금연을 했던 것이라서 끊기가 어렵다고 한다.

“감옥에서 나올 때 좀 얼떨떨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 서울로 올라오는 차의 바깥 풍경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좋대요. 휴게소에서 먼 산을 보니 그냥 좋았어요. 나오기 두 시간전에는 나는 징역을 잘 사는 체질이라 감옥 안이나 밖이나 별 차이없을 줄 생각했는데, 나와서 보니 금방 밖이 좋더라는 거죠. 정말 내면에서는 얼마나 나가려 몸부림 쳤던 것인가 하고 놀랐어요. 사실 감옥에 있는 동안 최면을 건 것 같아요. ‘징역도 괜찮다’라는....”

감옥에서 나온 그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못 만났던 ‘사람’ 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

감옥에서 인상깊었던 기억을 묻자, 그는 가슴속에서 이야기를 끄집어 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단기수와 장기수에 관한 기억인데.... 단기수 한 사람이 면회를 다녀와서 하는 말이 ‘면회장에 손 하나 넣을 수 있는 구멍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요. 이유를 물으니 면회온 사람 손이라도 한 번 만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때 저는 ‘사람들은 사람의 체온을 느끼며 살고 싶어하는구나’ 라고 깨달으며 밖에서는 사람들의 체온을 쉽게 느낄 수 있었는데 더 잘 할 것이라고 반성했어요. 그리고, 한 무기수가 있었는데 그 분은 오후 12시에 자고 오전 4시에 기상해요. 항상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를 해요.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시간인 새벽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무기징역 정도 받은 사람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살벌한 사람인데 무언가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최대한 성실히 사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무기징역이라서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 분을 보면서 ‘기회가 주어져 있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라고 저에게 반문을 했어요.”

감옥에서 제일 힘든 것은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헤어지게 된 집사람 등에 대한 ‘그리움’ 이었다고 한다. 그리워서 힘들고, 그리워서 살았다고 한다.

예의상 감옥에서 감동깊게 읽었던 책에 대해 물었는데, 그는 여러 권의 책으로 답해주었다.

“시기별로 달라져요. 잡힌 지 처음에는 스트레스도 많고 해서 ‘노자’ 나 ‘장자’ 등의 책이 마음에 여유를 많이 주었어요. 자유롭고 큰 틀의 이야기들이 저를 편하게 해주었어요. 좀 지나고 대구로 옮기면서 생활이 안정되니까 전시륜의 ‘유쾌한 행복론’이라는 책을 무척 재미있게 읽었어요. 내용은 그다지 교훈적이지 않은데, 평범한 삶을 유쾌하게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를 즐겁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어지면서 오강남 교수의 ‘예수는 없다’를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보수주의나 맹신주의 등으로 한국에서 믿는 식의 예수는 없다는 거죠. 무릎을 치면서 보았어요. 운동가들도 한 번 읽어보았으면 해요.”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다고 한다.  
감옥에서 성실히 살자는 마음으로 시간 시간을 알뜰하게 계획적으로 살아서인지, 무엇이랄도 하지 않으면 초조하다고 한다. 필자는 일종의 정신병이라 치부하고, 전국일주 여행을 치료약으로 권했다. 열심히 고생한 당신! 여행 떠나세요!!

### 3. 신념있는 새 회원

며칠 전 대구에 내려갔다 왔다고 한다. 대구양심수후원회 주점에 갔다 온 것이다. 집사람과 약속을 했다고 한다. 다른 것은 못 해도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 항상 후원금을 내고 회원이 되자고 말이다. 이렇게 그는 스스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이 되었다. 다른 양심수들도 모두 심재춘의 마음일 것이다. 감옥에 있으면서 아쉬운 것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멀어지는 것인데, 양심수후원회 식구들은 언제나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어 고마웠다고 했다.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감옥에 있으면 ‘후원회 소식’이 기다려져요. 밖에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말이에요. 소식지를 보면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필자가 후원회 간사라서 들으라고 하는 외교적 말투는 아닌 듯 싶다. 그래서, 다음 산행에 오라고 했다. 오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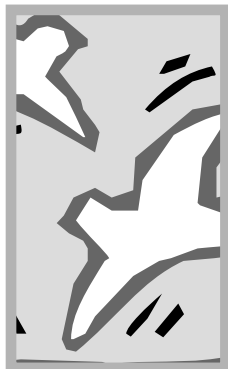
“구속되기 전에는 내 스스로 ‘강하다’, ‘투철하다’라고 여기고, 남들에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난 생활을 통해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지금도 삶에 자신이 있고, 지난 역사를 겪어오면서 두려움 따위는 없어졌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저의 생각을 모두 의심하고 되짚어 봤어요. 과거와 비교해볼 때 밑바닥까지 내려본거죠. 이속에서 ‘사상의 단련’이 아닌 ‘생활의 단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포기하거나 주저할 생각은 없어요. 처음의 마음으로 애국적으로, 양심적으로 살고 싶어요.”

역시 장기수선생님들의 말처럼 감옥은 학교였다.

하지만, 심재춘님과 같은 주동적인 삶의 자세가 없다면 감옥은 감옥일 뿐일 것이다. 장기수선생님들께서 그런 삶의 자세로 감옥을 바꾸었듯이 심재춘님도 감옥을 깨달음과 단련의 장으로 바꾼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필자는 버스에서 일어나 이 땅의 양심인사들은 이렇게 자신을 옹기 성장시키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꼭 참았다. 

## 양심수후원회 소모임 소개



현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는 여러 소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 ▶ 회원교육과 시사강좌 등을 진행하며 더불어 배우는 ‘시사모임’ (송창학 016-235-3726)
- ▶ 우리의 새로운 얼굴로 널리 등장할 ‘홈페이지관리모임’ (장재영 02-977-8363)
- ▶ ‘후원회 소식’을 만들며 글쓰기를 서로 나누는 ‘편집모임’ (이승미 016-395-0725)
- ▶ 장기수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장기수선생님후원모임’ (이정태 017-281-5500)
- ▶ 양심수와 따뜻한 공감을 형성하는 ‘양심수에게 편지쓰기모임’ (고광희 017-230-7593)
- ▶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를 일구어내고자 하는 ‘회원사업모임’ (노혁 019-323-0598)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어린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투쟁이 없으면 탄압도 없지만 동시에 쟁취도 없다’

귀 협의회 및 후원회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름 석자와 대강의 혐의만 알고 있음에도 따뜻한 격려의 정을 보내주신 것은 양심과 진리에 따라 살아온 동지적 애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충남본부 교육선전부장이고요.

2002 메이데이 집회 건으로 구속 재판계류중입니다. 여기 천안구치소에는 저를 포함한 5명의 동지들이 잡혀 있습니다.

감격스러웠던 2002년 12월 세월테크 연대파업 관련 구속자들입니다. 지난 주 23일 17명의 노동자들이 구형을 받았고, 총 63년을 가두어 둘 것을 검사는 요구하더군요. 그밖에 아직 체포되지 않은 지역의 십수명의 동지들이 간단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끝나서 벌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지역 동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충남지역의 노동운동이 점점 거세어지고 조직화되면서 탄압도 마찬가지로 거세지는군요. 지역 노동자들은 ‘투쟁이 없으면 탄압도 없지만 동시에 쟁취도 없다’는 진리를 외치며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누이 형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연이 있어 뵈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동시대의 과제를 저마다 다른 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만난 동지들로 기억하겠습니다. 투쟁!

2002년 8월 27일

천안구치소 이민구 드림

●이민구님은 2002년 7월 14일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현재 천안구치소 5510번으로 수감 중입니다.

## 이번 8·15에 양심수 좀 석방해줬음 얼마나 좋았겠어요?

손준혁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하는 사람들의 인사가 기껏 “안녕하십니까?” 라는 게 좀 허탈하기도 하네요.

“편지”라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특별한.. 인사말을 드리고 싶어도. 위낙이... 이 ‘속세’에 찌들어 살다보나... 그래도 오랫동안 “편지”라는 걸 써봅니다.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음... 선배라고 불러야 하나요? 형시 호칭이 헛갈려요.

원하시는 호칭을 말해 주십시오. 참고로..(혹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이창희 오빠를 알고 계시는 진 몰라도..) 창희 오빠 큰 10년차이가 나지만 ‘오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루나(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상태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인덕 아니, 태풍덕이 없나...

그러길래 이번 8.15에 양심수 좀 석방해줬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 왕준영이라는 학생입니다. 솔직히 ‘왕준영’이라고 소개한 뒤에는 뭐라 설명을 해야할지 난감해집니다. 음.. 전 중앙대 사진학과 3년에 재학중이고.. 양심수 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람, 술, 산 등 ‘ㅅ’으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요. 또 어설픈 ‘자연주의자’고요. 아직 공부가 미흡하답니다. 여하튼 아직 인생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한국의 청춘이랍니다.

제가 이 편지 쓰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되긴 하지만 “편지”니깐 편지의 특성대로 편한 이야기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시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사진”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로 사진이라는 걸 처음으로 갤러리라는 곳에 올렸는데요. 멀리대요. 월드컵 개막식때 교수님께서(보도 사진전공이랍니다) “사진 찍어와라”라고 하셔서 솔직하게 가볍게 찍어갔는데 딱 한 장 뽕혀서 우리나라 유명 사진가들과 같이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멀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문화일보 갤러리에서 사진을 전시하는데요. 6만점에 70장정도가 뽕혔는데요. 그 중 한 장이예요. 작은 사이즈요. 여하튼.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꼭 보여드릴게요.

전 내일부터 개학이랍니다.

이번 학기 목표는 ‘전장’입니다. 전체 장학금. 그런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재밌게 해보려고요.

오빠도 비록 그 곳에 계시지만요. 오빠의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서 게시길 바랍니다. 요새 태풍 등으로 감기가 유행이라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세요..

9월 2일 안성에서  
왕 준 영 올림

---

●왕준영님은 현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신입회원 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 내 사랑 내 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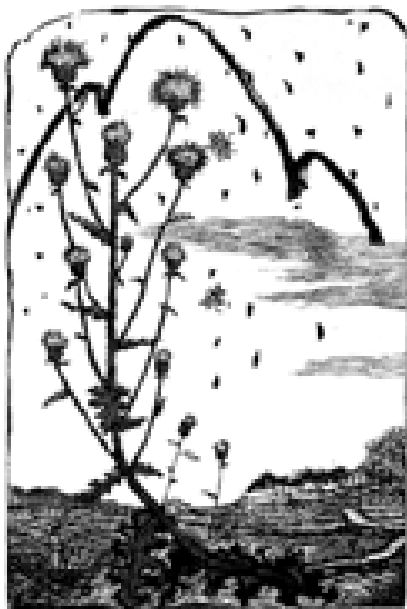
유영순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8월 내내 비가 내린다. 또 오고 있다.

내일이면 여름 방학도 끝나고 개학인데 개학 바로 전날 길을 나선 것은 순전히 심재춘 때문이다. 재춘이 면회 한번 가야지 가야지 노래를 부르며 2년 세월을 보내고 나니 광복절에 가석방으로 나왔다. 환영회 자리에서 좌불안석이 따로 없었다. 가장 큰 죄인이 먼 곳에서 고생하는 벼를 두고도 긴 세월동안 얼굴 한번 뵈죽 내밀지 못한 사람이니 그 화살이 바로 심장에 와 꽂혔다. 겨우 겨우 남편하고 시간을 맞춘 날이 개학 전날이라니. 대전에 하영옥, 전주에 임태열, 광주에 최진수를 만나야 한다.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작년 봄에 영옥이 형에게 3장짜리 편지를 보냈더니 9장짜리 답장을 받았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장도 없이 1년의 세월을 보낸 후 불쑥 찾아간 것이다. 답장이 없는 것을 보고 형이 편지에서 실수라도 한 것은 아닌지 하며 궁금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인편에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사 김정희가 생각났다. 제주로 귀향가는 길에 대흥사에 들러 이광사가 쓴 대웅보전 현액을 보며 저 것도 글씨냐 라며 떼라 하던 추사가 9년의 제주 귀양살이 후 다시 대웅전에 들러 이광사의 글씨를 찾았다는 이야기. 늘 강철같기만 한 영옥이 형의 감수성이 감옥살이 동안 섬세하게 돌아났구나.



작년과 달라진 것은 올해는 농사를 제법 잘 지어 푸성귀를 푸지게 먹을 수 있었다. 대전 교도소측과 시비가 붙어 맘 고생도 많은 듯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형의 생각을 편안히 듣고 싶다....

형이 지난 일을 담담히 말할 수 있는 자유인의 상태로. 그 날은 봄날이 될 것이다. 배꽃이든 벚꽃이든 우수수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맘이 맞는 사람들 틈에 끼여 탁구 사발을 앞에 놓고 마실 것이다. 술

을 핑계로 세상을 이야기 할 것이다. 그 때쯤이면 맑은 향기는 잔에 지고 떨어지는 꽃은 옷에 질 것이다. 나는 한 쪽에서 꽃나무 가지 꺾어 한없는 수를 세리라. 꽃가지 수가 쌓이는 만큼 형의 이야기도 이어질 것이다.

두꺼운 유리창 사이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형을 만나고 싶다.

전주의 태열씨, 광주의 진수형을 만나고 올라가는 길에 망월동에 들렀다. 그 사이 범민련의 영원한 청년 김양무씨의 묘가 새로 생겼다. 찾는 이 없는 망월동. 먼저간 자의 묘에는 8월의 비만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2002년 8월.

조각 난 조국,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은 교도소 눅눅한 방에서, 망월동 차가운 땅에서 그렇게 있었다. ~~44~~

## 2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일까?

김 호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2년 전 이맘때였었다.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참가한 민가협 수련회. 감옥 안에서 나에게 소리 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반가움으로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던 나날이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개구리 소리. 그리고 마치 전설 속에서 들어온 것만 같던 영묘한 아름다리 나무와



창살 없는 하늘에 눈물이 나도록 시리게 빛나던 별들. 나의 살갓에 닿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가슴 저리게 반가운 것들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반가웠던 것은 짐승이 아닌 인간이기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죽지 않고 극복하여 결국은 승리로 승화시킨 선생님들과의 만남이었다.

이후 선생님들은 당신들의 신념의 고향 공화국으로 가시고 이 곳에 남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했다.

“호야 너도 우리 카페에 놀러와. 우리 회원들이 많이 오거든.”

“알았어요. 그런데 카페가 어디에 있어요?”

주정임이라는 아줌마가 친절하게 해준 말에 내가 너무나도 진지하게 답변한 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웃기는 답변이었지만 어찌 보면 서글픈 시대의 한 귀퉁이를 살아가야 했던 버려진 우리들의 한 모습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인터넷 카페가 무슨 커피 파는 카페인줄 알았던 나에게 그만큼 변해버린 세상이 호락호락할리 만무했다. 터무니없었던 답변이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고단함을 암시해주었는지도 모르겠다.

짧지 않은 2년의 세월이 흐른 뒤다시 찾은 지금은 폐교가 된 초등학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운동장 한가운데 그 어떤 전설을 품은 듯한 500년을 넘었다는 아름다리 나무가 가장 먼저 우리를 만났다.

우리가 도착을 하였을 때는 벌써부터 흥에 겨운 잔치마당이 시작되고 있었다. 역사 속 조선민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바로 삼국지위지동이전에 실려있는데 그 내용인즉 연중에 크게 모여 춤추고 노래부르고 술을 마셨

다는 기록이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번 재일총련 초청공연을 하면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됐는데 일본에서도 유독 동포들이 춤추고 노래부르고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없다고 한다. 중국에서 또한 빙 둘러 모여서 춤추고 노래부르고 함께 술을 마시는 민족은 거의 100% 조선족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고 한다. 반만년 넘게 DNA에 각인된 우리 민족의 특성인가 보다. 여튼 전통을 계승하기로 하듯이 이곳저곳에서 출판과 술판이 벌어졌다.

2년 전의 그 모습처럼 숙소입구 쪽에서는 민가협 어머니들이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흥에 겨워하시었다. 선생님들도 함께 춤추면서 흥에 겨워하시고 젊은 회원들은 여기저기에 술판을 벌리고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워댔다. 필자 또한 서옥렬 선생님 그리고 한상권 교수님과 학생운동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다시피 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각 조 장기자랑을 준비한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리저리 준비를 하더니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주제의 콩트와 퍼포먼스 등을 선보였다. 예나 지금이나 주제는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등이었는데 백미는 단연 짹새를 연기했던 득형이 형이었다. 어찌면 그렇게 능청맞게 짹새를 연기하는지 회원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대기 시작하였다.

각 조의 장기자랑이 끝난 뒤 곧바로 한홍구 교수님의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안보 안보를 외치는 놈들이 정작 자신의 자식들은 불법적으로 군면제를 받고,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힘없고 뺨 없는 대다수의 청년들을 강제로 군대에 앞세워 친미·반공·반북을 외치면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니 정말 소가 웃다 죽을 일이다. 예전에는 이런 위선에 대항도 못하고 국가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지금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양심적인 병역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드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군도바리를 쳤던 필자가 예전부터 가졌던 의문이 있었다.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그 하위의 국가폭력으로 조직된 국가물리력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한총련이 왜 주한미군의 명령체계에 종속된 군대문제와는 정면으로 투쟁하지 않고 다들 학생운동의 와중에 자연스럽게 군대를 갈까? 만약 한총련이 조직적으로 군정집을 거부하고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운동을 펼친다면? 감옥 안에서 수천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볼 때마다 더욱 강렬하게 드는 생각이었다.

한홍구 교수님의 강연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한상권 교수님의 안내를 따라 우리나라에서 강가에 세워진 두 개의 사찰중 하나라는 신흥사 관광에 나섰다. 필자 또한 역사에 관심이 많지만 역사학자의 안내를 따라 관광을 하는 것은 역시 별미였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던가?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관광을 하니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지적인 호기심을 한껏 부풀리게 했다. 예전 국사시간에 석탑, 전탑을 구분해서 외우고 성격이 다른 것 등을 묻는 시험문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다. 석탑, 전탑의 구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기만 했었는데 전탑(轉塔)이란 벽돌로 올린 탑이라고 한다. 전탑은 황하 등 벽돌을 만들어 낼 조건이 쉬운 중국에서 발달했고 이에 반해 화강암 등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는 석탑이 발달했었다고 한다. 설명을 듣고 영 싱겨워서 죽는 줄 알았다. 진작에 교실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말이다. 석탑에 비해서 웅장함이 떨어진다는 전반적인 느낌이 들었다. 이렇듯 우리에게 석탑, 전탑을 구별 못하고 무조건 외웠었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다.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2년의 길을 잠시 그려봤다. 2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일까?

## 역사의 가정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고

김 창 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

일요일 아침, 어제 오후 고흥반도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루시에 의한 전국적인 피해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간밤에 스쳐간 태풍으로 옥상화분에 심었던 대추 몇 알 떨어지고 토마토가지 부러져나간 것의로도 속상한데 복구



능력도 없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노동자, 농민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집을 나서는데 큰아이 강석이가 같이 간다고 한다. 산에는 가끔 같이 가지만 역사강좌는 강의에도 방해되고 아이도 지루할 것 같아서 만류해도 가고 싶다고해서 강석이와 함께 전철을 타고 낙성대로 가는데 당산철교에서 바라본 북한산, 관악산이 너무 또렷하게 보인다. 태풍 루시가 서울상공을 덮고 있던 공해물질을 싹쓸어 가 버린 모양이다.

만남의 집에 도착하니 거실을 가득메운 선생님, 후원회 회원들이 반갑게 인사한다. 곧이어 한상권 교수님이 오시고 9월 8번째 역사강좌가 시작된다.

먼저 80년대 한미관계에 관한 비디오 시청인데 비디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비디오 시청은 어렵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민가협수련회 머슴상에 빛나는 일규님 손끝으로 재생에 성공 역시 공학도답다는 감탄과 탄성과 박수속에 비디오에서는 80년대 낮익은 화면들이 흘러간다. 10·26유신독재 종말, 12·12신군부 쿠데타, 5·17비상계엄과 광주항쟁, 미문화원 점거투쟁등 비디오시청이 끝나고 미군정과 단독정부 수립을 주제로 한 강의가 시작된다.

주된 강의내용은 1866년 제너럴셔먼호에서 시작된 미국과의 악연, 소련의 전략적인 양보로 설정된 38도선,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서의 미군의 진주, 2차대전 이후 유일하게 미군정이 실시된 남한, 자주적인 통일국가 수립에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뎀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동아일보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와 김구선생의 무조건적인 신탁통치반대, 반탁과 반공의 깃발아래 친일파의 재빠른 변신과 집권세력의로의 재등장 등이 주된 강의내용이었다.

왜곡되고 굴절된 현대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양파껍질처럼 벗겨져 나간다.

순간 순간 나에 머릿속에서는 역사의 가정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고, 다음달에 있을 미군정하의 중앙정치를 기대하면서 강의가 끝난다.

내일 모레면 '9·11' 1주년 이다. 왜 '9·11'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자기성찰은 하지 않고 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하에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고, 다시 이라크를 재침공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미국.

이라크 침공이 끝나면 그 다음은 북한이 침공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9월의 역사강좌는 가장 시의적절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 유익한 시간이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강의준비를 하시고 열정적인 강의와 뒷풀이 자리까지 빛내주신 한상권 교수님과 풍성한 포도와 사과로 한결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이정숙님께 감사드립니다.

## 민족도 하나, 핏줄도 하나, 역사도 하나, 이 땅도 하나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분단 57년 만에 북측 참가단 116명이 서울에 와서 남측 대표단과 함께 2002년 8.15 민족 통일대회를 이루어냈다. 남북이 합의한 행사내용이 남측 당국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로 상당부분 축소되고 제약받는, 아쉽고 분통터질 일이 있었지만,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인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온 세계에 보여 주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로의 또 하나 빛나는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는 8.15 민족통일대회에 대표단 10 여명을 파견하기로 통일연대에 신청하였으나 위에서 말했듯이 당국의 통제로 통일연대 다른 참가단체와 함께 대표 1명과 부분참가 대표 3명으로 최종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래 글은 양심수 후원회 14차년도 4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8.15 민족 통일대회 양심수 후원회 대표로 참가했었던 대화참가보고문이다.

**8.15** 민족 통일대회가 열리기 3일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표자 회의가 8.12일 건국대에서 긴급하게 열리게 되었다. 회의 자료도 없이, 긴급 소집된 회의 주제는 8.15 민족 통일대회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간섭과 통제에 대한 대응방침이었다. 바로 범민련·한총련 등의 대회 참가 통제, 대회 장소를 워커힐 셰라톤 호텔로 제한한 문제, 개막식 등 대회참가인원을 500여명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통일연대의 대응방침을 논의하는 모임이었다. 어느 하나도 수용할 수 없는 민간 통일 운동에 대한 간섭과 통제였고, 북측과 합의 사항을 파기하는 내용이었다. 참석한 대표들은 한사람같이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당국의 조치를 규탄하였다.

그러나 8.15 민족 통일대회 자체를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먼저 범민련과 한총련에서는 비록 자신들이 대표단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해도 민족 통일운동의 큰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통일대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교전 뒤 한때 일어불었던 남북관계가 북측의 유감 표명으로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당국간 대화가 줄 잇게 되었고, 조·일, 조·미 관

계 등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전쟁 책동 등 강경 정책에는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결국은 2 명이 반대하고 2 명이 기권(사회자 포함)하는 표결을 거쳐 정부 당국의 조치에 강력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관철시키면서 대회를 성사시키기로 결의하였다.

8월 14일 아침 8시 북측 대표단을 태우고 올 버스와 마중 나갈 버스가 워커힐 호텔 앞마당에 줄서 세워져 있었다. 미리 와 있었던 통일연대 실무진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통일연대에서만 25명이 대표단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소속 단체 이름이 아닌 통일연대 소속으로 신청했던 범민련·한총련 대표와 민주노총 등 사법계류중인 대표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임기만 민가협 전 상임의장도 빠져 있었다.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실무 일꾼들도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히려 나에게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려고도 했다. 이렇게 당국은 북측 대표단이 도착하는 시간을 압박해서 명단을 발표했다.

마중을 떠나면서 임기란 회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몇 년 전 범민련남측본부 고문으로 추대된 일 때문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수없이 감옥에 끌려 다니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헌신해온 범민련을 뺀 것도 개탄할 일인데, 고문으로 추대된 다른 사회단체 성원까지 제외시키는 당국의 경직성과 냉전 사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북측 대표단을 영접할 민족 공동행사 남측대표단이 버스에 올랐다. 통일연대, 민화협, 종단 대표와 실무진 등 30여명이었다. 통일연대에서는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정연찬 전농의장, 권오현 후원회 대표 외 실무 일꾼들이 함께 했다.

따로 보도진들이 버스 한 대에 타고 인천공항으로 함께 떠났다. 안개 낀 한강을 끼고 1시간 20분쯤 지나 영접단과 빈 버스들이 멈춘 곳은 인천 공항의 외진 곳이었다. 마중 나와 환영할만한 공간이 아니었다.

비행기도 활주로도 보이지 않았다. 우람한 건물 벽으로 막혀 있었다. 마중 온 영접단은 뜻밖에도 공항 귀빈실로 안내되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대표단을 뜨겁게 맞은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이 찾아와야 하는 좁은 방에서 대표단을 기다려야 했다. 언뜻 북도 쪽으로 꽃무음을 들고 서 있는 세 어린이의 산만한 모습이 보였다. 이 순간 지난해 평양 공항에서 보였던 북측 대표단과 동포들이 남측대표단을 마중했던 모습이 반사적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윽고 북측대표단(주석단)이 귀빈실로 들어왔다. 먼저 기자들이 들어오고, 김영대 단장(민화협 회장=사회민주당위원장), 려원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조선적십자회 위원장), 허혁필 민화협 부회장 등 이미 6.15 민족통일 대축전 와 8.15 민족 통일 대회때 익혔던 대표들이 들어오며 남측 대표들과 뜨겁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8.15를 민족 대단합의 날, 통일의 날로 만들어 나가자'고 도착 성명을 허혁필 부회장이 발표하였다. 한담을 나누는 북측대표단과 영접단은 위키힐로 떠났다.

아직도 안개는 걷히지 않고 있었다.

대표단을 태운 버스가 한강을 뒤로 하고, 서울의 번두리 아차산 기슭을 달렸다. 잘 자란 나무들 사이로 구불구불 호텔로 가는 길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넓은 터에 수많은 닭장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호텔 문앞에서는 직원들이 마중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환영단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호텔 주변을 촘촘히 지키고 있는, 몸을 뒤로 한 신사복들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북측 대표단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지는 몰라도 57년만에 온 동포를 맞는 모습으로는 찬바람이 부는 비정함이 보이는 듯 싶었다.

오후 2시가 지나면서 통일연대, 민화협, 종단 등 민족통일 대회 남측 대표단들이 호텔 로비로 모이고 있었다. 그리고 대표단임을 표시한 비표를 줄서서 받고 있었다. 뜻밖에도 비전향 장기수인 양희철 선생님도 비표를 목에 걸고 계셨다. 그때까지도 통일광장 선생님들은 제외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너무 반가웠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박정기 유가협 전회장님, 조찬배 현회장님 등 유가협·민가협 대표들은 언제나 함께 있었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김영식 선생님도 호텔 로비에 오셨다. 이리 저리 옮겨 다니시며 혹시라도 북녘 동포들의 얼굴 모습이라도 보고싶어하셨다. 고향 떠나 오신지 41년, 얼마나 가족과 고향을 그리고 계실까? 이렇게 남북이 57년만에 민족통일대회를 열고 있는데, 수십 년 감옥을 살면서 통일염원을 지우지 않고 가족이 있는 마음속 고향을 가고자 하는 비전향 장기수들이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송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해 본다. 끝내 선생님께서도 호텔을 떠나셨다.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이미 낮익은 얼굴들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통일연대 소속이 아니어도 민화협이나 종단대표 대부분은 함께 금강산과 평양에 갔었던 분들이었다.

그런데 그 많은 낮익은 얼굴 말고 생소한 얼굴들이 수없이 많았다. 마치 비표처럼 왼쪽 가슴에 같은 뱃지를 달고 있는 신사복들이었다. 그들의 신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없이 대표단들 사이에 알고 있었다. 공식 확



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180명의 국정원 직원이 호텔에 함께 묵고 있다는 말이 있었다. 이 민족적 대경사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분단 조국의 또 하나 참담한 모습으로 보인다. 숭고하고 존엄해야 할 민족통일대회까지 불필요한 감시의 눈이 꼭 필요했었는지, 이 사회는 그렇게도 자신이 없었는지 안타깝고 개탄스럽기도 하다. 양심수 후원회 이정태 운영위원과 박지운 회원이 8.15 행사기간 자원봉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5시 30분 남측 대표단이 호텔 가야금 홀로 입장하고



있었다. 공안원들이 소지품과 몸수색을 하였다.

**남측에서 준비한** 환영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북측 대표단 자리를 비워놓고 남측대표단과 초청인사들이 모두 입장한 뒤 공동추진본부 행사진행자가 오늘 일정을 알려 주고 있었다. 이 공연이 끝나면 무궁화 볼룸에서 환영 만찬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공연장에서도 조순덕, 박정기, 조찬배 의장과 나는 한자리에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기다리던 북측 대표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30분이 지나고 또 30분이 지났다.

두어번 안내 방송이 있었다.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다소 늦어진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북측대표단이 오지도 않았는데, 남측에서 준비된 공연이

시작되었다.

남측대표의 주석단이 알아보기 위해서 가야금홀을 빠져 나갔다. KBS 오유경 MC 사회로 부채춤(경기도춤무용단)을 여는 마당으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남측대표단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북측대표단을 위한 환영공연에 주인들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공연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뒤에 알려졌지만, 이미 신문에서 보도했듯이 몽양 여운형 선생의 따님이신 북측 대표 러원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이 남쪽 당국에 요청한 우이

동 몽양선생 묘소 참배를 당국이 들어주지 않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북측 대표들의 입장이 늦어지고 있었다. 북측대표단 없이 공연이 이어지자 유가협, 조찬배, 박정기 회장님들이 야단을 치고 있었다. “늦더라도 손님들이 입장한 뒤에 공연을 해야지. 이 무슨 실례의 행패냐”고, 그리고 몸소 무대 뒤쪽으로 가서 공연을 중단시키려 하였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 20분쯤 지나 북측대표단이 들어서고 있었다. 공연이 이어지고 있어 남측대표단은 모처럼의 귀한 시간, 환영의레조차 잃게 하였다.

공연은 이어졌다. 가야금 병창, 사랑가(판소리 = 안숙선), 서도소리 등.

북측 출연진들이 바로 우리들이 자리한 앞쪽이었는데 진지하게 관람하고 있었다. 이렇게 환영공연은 안타깝게도 일그러진 모습이었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어진 8시가 지나서 북측대표단과 남측대표단 그리고 초청인사 60여명 등 540여명이 입장한 가운데 호텔 무궁화 볼룸에서 환영만찬이 시작되었다.

늘 함께 있었던 민가협·유가협 대표들은 나누어져야 했다. 조순덕 회장님은 6번 식탁이었고, 박정기 회장과 나는 4번 식탁이었다. 주석단 식탁의 바로 앞이었다. 4번 식탁에는 남측에서 박정기회장님 말고 손장래 민화

협 상임의장과 김민하 전중앙대 총장이며 대통령 평화 통일 자문회의 의장이 함께 했고, 북측에서는 평양예술단 연출가 채명석씨, 무용지도원이자 안무가인 최영옥, 무용배우 김경옥씨가 함께 했다. KBS 박정숙 아나운서 사회로 남측을 대표하여 강원룡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고, 김영대 북측단장의 답사가 있었다. 또한 남측에서 정은숙(국립오페라단장 = 고 문호근 선생 사모님) 교수의 축하 '신아리랑'을 북측에서는 장혜명 통일문화 편집국장의 시 '단숨에 가자'를 낭송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각 식탁마다 조국 통일 등 축하 소리가 요란하였다.

4번 식탁도 이야기꽃을 피웠다. 자연스럽게 필자가 사회를 보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채명석 연출가나, 최영옥 무용지도원은 지난 4·8월까지 이어졌던 5.1 경기장에서 공연된 '아리랑'에 연출과 무용지도를 했던 예술계의 지도급 인사들이었고, 김경옥씨도 공훈배우로 아리랑 공연에 함께 했다고 한다.

지난 해 8.15 민족통일 대축전 때 봉화예술극장에서 있었던 남·북 해외 예술공연에서 북측 예술 무대의 압권이었던 무용극 '눈이 내린다'를 떠올리며 필자가 말하자 김경옥 공훈배우는 그 공연에 함께 했었다며 반가워했다. 만찬에 함께 한 대표들은 가까운 이웃 식탁들을 옮겨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동포의 정도 나누고 있었다. 필자도 주석단, 김영대 단장, 러원구 회장, 허혁필 부회장 등과 인사를 나누었다. 또한 서영훈 대한 적십자사 총재와 함께 하고 있는 장재언 조선 적십자회 위원장에게는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위해 두분께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화가 무르익고 있는 동안에 필자는 누군가로부터 '권선생님' 하는 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세 번째 만나게 되는 박영희 선생이었다. '조선 노동당 창건

55돐 경축행사'에 참관자로 평양에 갔을 때 봉수 초대소에서, 특히 이옥순(권낙기 선생 사모님)님을 극진히 간병하였던 북측의 민화협 간부일꾼(여성)이었다. 조순덕 회장님을 모시고 와 인사를 나누게 하였다. 임기란 전 상임의장에 안부를 전해달라고도 했다.

환영만찬은 10시 가까이 까지 이어졌다. 만찬이 끝나고 남측의 통일연대 대표들은 대절버스로 건국대로 가서 8.15 민족통일대회 통일한마당에 함께 하였다.

8월 15일, 드디어 민족통일 대회 개막식을 하게



되었다. 이날도 예정시간은 지켜지지 않았다. 8시 30분에 워커힐에 와서 1시간을 기다리고서야 개막식장인 「제이드가든」으로 남측대표들이 옮겨가고 있었다.

모처럼 만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넓은 곳 다 제쳐놓고 아차산 모서리,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잔디밭에서 역사적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지난해 민족통일 대축전 개막식의 수만 명이 기다리는 곳도 기피했었고, 이제 서울에서마저 애초 계획된 잠실경기장(2만명 수용)은 고사하고 수정 계획된 펜싱경기장(6000명 등록)마저 취소된 채, 통일연대 20,000이 함께 하는 통일대회 성원들의 기대감을 저버린 채 서울의 외판 구석에서 개막식이 열리게 되었다.

무대가 만들어진 잔디밭에는 남북대표단이 자리할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무대 앞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부터 민화협, 종단, 통일연대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앙쪽은 북측대표단 자리로 되어 있었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 40분을 지나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란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북측대표단과 남측 주석단이 들어오고 있었다. 남측대표단은 모두 일어나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였다. 남북 주석단이 단상에 자리하고 남(김종수), 북(허혁필) 공동 사회로 개막식과 민족 단합대회가 진행되었다.

허혁필 부회장의 개막 선언이 있자 남북의 세명 씩 여성들이 들고 있는 단일기 입장과 게양이 있었다.

이어 북측 김영대 단장의 축하 연설이 있었다. '57년 전 일제의 탄압 굴레에서 벗어났듯이 이제 분단 오욕의 역사를 벗겨 우리 민족 모두의 숙원 조국 통일 만세를 부릅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돈명 민화협 상임의장이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자주통일 이룩하자고 축하연설을 하였다.

민족단합대회 연설로는 남측의 천도교 김철 교령, 북측에서는 농업근로자 동맹 김명철 부위원장, 다시 한상렬 상임대표, 조선여성동맹 리영희 부위원장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공동호소문은 남측에서 은방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북측에서 최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가 함께 읽었다. 원래 계획에는 남북대표단의 단결놀이마당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취소되고, 대기했던 '우리나라'의 공연도 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개막식과 단합대회를 마치고 북측대표단부터 퇴장을 했다. 그리고 남북 대표단은 호텔 가야금홀로 옮겨갔다. 예정보다 늦은 12시부터 KBS 황수정 아나운서 사회로 남북합동 예술공연이 열렸다.

먼저 북측 공연이 배우 백승환 사회로 시작되었다. 출연진은 인민배우 5명, 공훈배우 5명이 포함된 만수대 예술단, 피바다 가극단, 평양예술단의 배우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무용 - 양산도(정해옥 외 11명), 민속무용 쌍부채춤(김경환의 6명), 물둥이춤(장명순의 6명),

장고춤(공훈배우 리순녀 외 9명) 모두 무용만으로 구성된 공연이었다. 마지막으로 합창 '우리는 하나'를 출연진이 모두 나와 불렀다. 대체로 힘있는 율동 - 그러면서도 선이 부드럽고 섬세하였으며 대륙적인 억센과 빠른 동작, 일사분란함이 돋보였다. 이어 남측에서는 합창, 경북공타령(정은숙과 국립오페라단), 여성판소리(사랑가 - 안숙선 명창), 남성 독창 백두산(이정열) 합창 경의선타고, 어린이 합창단(원불교) 안치환씨 노래 등으로 이어졌다.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예정된 무궁화 불꽃에서의 미술, 사진전도 늦어지고 있었다. 정부 당국이 일부 작품에 대하여 전시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북의 전시회 관계 대표들이 개막식에 나왔다가 몇번이나 되돌아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결국 별문제 없다는 당국의 결정으로 뒤늦게 남북사 진미술전 개막식을 가졌다. 남측에서 정현찬 전농회장과 북측에서 조선사진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최경국 위원장의 개막연설로 전시회가 시작되었다.

6.15 공동선언 뒤에 있었던 행사장면과 남과 북의 자연을 담은 사진 130점과 남북의 자연을 그림으로 표현한 국보급 20여점을 비롯한 100여점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사진 가운데는 2000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리재룡 선생의 따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이 전시회 말고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는 잠실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북측 예술단의 단독공연이 있었다. 사진 전시회 개막을 끝으로 조순덕 상임의장과 필자는 푸른 영상 김동원 대표와 함께 건국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8.15 민족통일 대회 자주결의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건국대에 모여 있는 양심수 후원회원들과 합류하였다.

**8.15 민족통일대회** 마지막 날은 호텔 무궁화 볼룸에서의 부분 상봉모임과 학술토론회, 폐막식 등이 같은 장소에서 이어서 진행되었다.

이보다 앞서 조순덕 회장님과 양희철 선생님, 노진민 천주교 장기수 후원회 대표와 함께 사진전과 미술전을 돌아보았다. ‘칼춤’, ‘강건너 저녁노을’ ‘백두산’ ‘백두밀영의 소백두’ 등 국보급 작품을 감상하였다. 그리고 리재룡 선생님의 따님 탄생을 축하하는 장기수 선생님들의 모습이 담겨진 사진 앞에서 우리들은 함께 사진을 찍기로 하였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부분상봉모임 시간에 통일연대는 북측의 민화협 허혁필 부의장과 최운주 사회민주당 국제부장 그리고 민화협 사무소 최창덕 소장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남측에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다른 부문모임에 참가한 그외 대표단이 함께 하였다. 오종렬, 한상렬, 권영길, 조순덕, 박정기, 조찬배, 권오현 외 30여명이었다. 모임에서는 소개 시간에 이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시켜 조국통일을 이루자라는 내용의 다짐이 있었고, 특히 남측에서 8.15민족통일대회 통일선봉대가 전국을 누비며 받은 통일염원의 서명이 있는 615미터의 서명천을 북측에 전달하였다. 필자는 민가협과 양심수 후원회 그리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입장에서 송환되어 가신 비전향 장기수들과 부문모임 상대로 함께 했으면 하는 제언과 그분들과 상호방문길을 뚫으면 하는 뜻을 공식 제기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짧은 시간 동안 대화는 소개하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밖에도 부문상봉모임은 종단, 민화협, 노동, 농민, 문예, 여성, 청년, 언론 등 부문모임을 가졌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남북이 함께 하는 ‘독도의 영유



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 청산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남북공동사회(남측 백락청 서울대 교수, 북측 최창만 조선 직업동맹중앙위원회 부장)로 기조 발제에 남측에서 강만길(상지대 총장) 교수의 ‘독도 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 청산을 위한 과제’, 북측에선 허종호(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원사, 박사) 연구사의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등이 있고, 그의 발제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남북간의 협력방안(이장희 외대교수)', '독도는 역대 일본정부와 국제 협약에 의하여 영유권이 확인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허종호 북측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사국가화의 문제(한상범 교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영토 팽창 야망의 발현(리학수 북측 등대사 부장- 시간이 없어 발표하지 않음) 등으로 이어졌고, 정리발언(결속 발언)은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이, 공동호소문 낭독은 지은희 민화협 공동대표와 북측의 리학수 등대사 부장이 함께 낭독했다.

이렇게 8.15 민족 공동행사를 모두 마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8.15 민족 통일 대회 폐막식이 열렸다.

남북대표단과 초청인사가 함께 한 폐막식은 남북의 6명 여성이 단일기를 거두는데서부터 시작하여 북측 장재언 총교인 협회의 회장의 폐막 연설이 있었다.

'북과 남의 통일 단체들이 함께 모여 진행한 이번 대회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기치 밑에 우리 민족끼리 기어이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려는 민족의 드높은 기세와 불굴의 기상을 내외에 남김없이 보여준 뜻깊은 민족 대화합이었습니다.' 라 하였고 남측의 백도웅 한국교회협의회 총무는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여기에 평화와 통일과 자주와 번영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57년만에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 통일 대회의 공식 일정이 모두 마치게 되었다.

그 뒤 북측 대표단은 창덕궁 등 고궁관람과 코엑스에서 두 번째 예술 공연을 하였다. 그리고 저녁에는 호텔 무궁화 볼룸에서 북측대표단과 남측초청인이 함께 하는 환송만찬이 있었다. 이 만찬에 민가협에서 김정숙, 서경순 전상임의장이, 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운영위원이 함께 하였고, 코엑스 예술공연에는 후원회 운영위원장 무권, 한상권 교수가 초청되어 관람하였다.

17일 북측 대표단이 통일 대회를 마치고 떠나는 날은 공안 당국의 비굴한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호텔 앞에서 환송하려던 통일연대 소속회원들을 호텔로 들어오는 길목마다 경찰을 풀어 모두 막아서고 있었다.

그래서 통일선봉대 등 청년 학생들은 호텔로 오는 곳에서 막혀서 단일기를 들고 비를 맞으며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환송하고 있었다.

일찍 호텔 앞에 왔었던 민가협 어머님, 후원회원, 장기수 선생님과 전국연합, 통일연대 성원들 100여명이 단일기를 흔들며 '조국통일'을 연호하였다. 마음속 깊은 환송을 받으며 북측 대표단이 차에 올랐다.

그리고 남측 환송단도 마중할 때처럼 함께 공항까지 갔었다. 공항에서도 통일연대 청년 학생들이 단일기를 흔들며 "안녕히 가시라" 연호하였다.

귀빈실에서 북측 주석단과 남측 환송단이 다시 만났다. 김영대 단장이 말하였다.

"57년만에 남녘에 와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서운하다. 우리는 평양에서 남녘 동포들을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는데.."라며 환영과 환송에서, 그리고 행사기간동안 당국의 제재에 아쉬움을 말하는 듯 싶었다.

그리고 허혁필 부회장이 북측 대표단 출발 성명을 읽었다. "...우리 모두는 이번 통일대회를 통해서 민족도 하나, 핏줄도 하나, 역사도 하나, 이 땅도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반목과 질시가 아니라 화해와 신뢰를, 분열이 아니라 단합으로 통일을 위하여 더욱 굳게 손잡고 나갑시다."

이렇게 우리는 3박4일간의 역사적인 8.15 민족통일 대회를 마치게 되었다. ~~한~~

## 정약용도 두손 두발 다 들다

—끝까지 군역 요리조리 피한 조선양반들… 힘없는 농민은 성기 잘라 기피—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현대사

이 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또 그놈의 병풍을 꺼내 재탕?삼탕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는 와중에 18년 만에야 진실이 밝혀진 허원근 일병 사망 은폐?조작사건은 우리의 가슴을 찌른다. 신의 아들은 형제가 군대를 면제받는데, 어둠의 자식은 라면 맛이 없다고 총 맞아 죽고, 그 죽음조차 자살로 은폐되어야 하다니. 병역기피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들은 속된 말로 꼭지가 돈다. 아니, 돌 수밖에 없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사회에서 ‘자랑스럽게’ 군대 빼먹은 것들을 위해 3년 가까운 세월을 씹어야 했더니.

### 조선시대, 번상(番上)과 봉족(奉足)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 군대가 없는 적은 없었다. 군대의 역사만큼 역사가 오랜 것이 병역기피의 역사다. 군에 복무하는 것이 하나의 신분적 특권이고, 군복무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사회에서는 병역기피가 심하지 않았지만, 부담만 있고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불이익뿐인 사회에서 병역기피나 거부가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병역기피에도 뿌리깊은 역사가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귀족이 전사계급였기 때문에 귀족들의 군복무는 당연한 일이었다. 서양에는 이런 전통이 남아 있다 보니 지배층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해야만 지배층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지도층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군복무가 꼽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까지는 이와 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가 창건되고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고려의 지배층은 무신 성향을 버리고 유학을 배우는 문신귀족으로 변화했다. 고려의 문신귀족들은 점차 숭문천무(崇文賤武), 즉 문을 숭상하고 무를 업신여기는 풍조에 빠졌다가, 무신과 군인들의 반발을 자초해 무신의 난이라는 호된 대가를 치른다. 고려시대에 군인은 전시과 체제 아래 편입되어 군

인전(軍人田)을 지급받았다. 군역과 함께 군인전은 세습되었기 때문에 군인전을 부여받고 군인으로 나가는 특정집단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을 군반씨족(軍班氏族)이라고 했다. 이들의 지위는 문신이나 무신에는 못 미치지만, 평민 농민보다는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가 계속되면서 군인들은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천역으로 변해갔고,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군반씨족 체제의 와해는 불가피했다. 무신의 난 이후 정권을 잡은 최씨 가문은 삼별초를 만들었는데 형식은 정부군이었지만, 내용으로는 최씨 가문의 사병(私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삼별초가 해체된 뒤 왜구의 침략 등 외침이 있으면 농민에서 병사를 징발해 대응하고 전쟁이 끝나면 군대를 해산했다. 상비병 체제의 붕괴 속에서 고대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창건 이후 태종은 개국공신들이 두었던 사병을 혁파하고 군제를 개혁했다. 조선 전기의 군제는 기본적으로 병농일치에 입각한 국민개병제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천인을 뺀 모든 사람들이 군역(軍役)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군역은 16살에 시작해 환갑상을 받을 때가 된 60살에야 면하는, 평생에 걸쳐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부담이었다. 병농일치의 국민개병제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토지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조선왕조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급해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의 국민개병제는 성립과 동시에 붕괴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의 군역은 서울로 올라와 현역으로 근무하는 번상(番上)과 번상하는 군인의 생계를 돕는 보인(保人) 또는 봉족(奉足)으로 구분된다. 고려시대에도 봉족을 두었는데, 고려의 봉족은 주된 임무가 군인전을 경작하는 것인 데 비해, 조선시대의 봉족은 번상을 하는 정군(正軍)들에게 토지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布)를 바쳐야 했다. 봉족들이 군역으로 바쳐야 하는 포는 정군의 역종에 따라 달랐지만 대체로 1년에 2필(돈으로는 2량, 쌀

로는 6두)로 상당히 무거운 부담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번상하는 일도 점차 포를 바치는 것을 바뀌어 국방력은 매우 약화했다.

## 승병은 군역기피의 전통?

양반이나 공신의 자제들은 조선 초기에는 충순위(忠順衛)·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 등 특수한 성격의 보충대에 편입되었다. 이들 부대들은 군사적 성격보다는 문무과에 합격하지 못한 자들이 관직에 진출하기 위한 대기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국민개병제의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조선 초기의 양반 자제들은 이런 식으로나마 군역의 의무를 졌다.

조선의 법제상 양반이란 신분의 개념이 아니라 문반과 무반의 관료를 뜻하는 것이며, 법제상의 신분은 양반을 포함한 양인과 천민만을 구분하는 양천제(良賤制)였다. 그러나 제도는 하나의 이상이었을 뿐, 시간이 흐르면서 양반은 특권 귀족화하였다. 양반들은 자신들이 일반 평민들이 저야 하는 군역을 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니, 달가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군역을 지지 않는 것이 양반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조선 초기의 인구 구성에서 양반이 10% 미만이고, 노비 등 각종 천민이 40~5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만이 군역을 전담한 것이다.

포 2필이라는 만만치 않은 군역을 거의 평생 져야 하니 농민들 사이에 군역을 피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엄격한 신분제 아래서 양인의 신분은 노비보다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군역의 부담이 무겁다 보니 양인의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세도가나 힘 있는 양반 가문의 노비가 되는 것을 자원하는 일이 많았다. 스스로 노비의 길을 택해야 할 만큼 군역의 부담은 무거운 것이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승려가 되는 길이었다. 조선시대 승려의 지위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천인에 속하는데, 양인인 농민이 사회적 신분을 낮춰 승려가 되는 데는 불심의 발동보다 군역의 무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 농민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 승려가 되는 일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승려들은 국가에서 토목공사에 동원하는 요역 대상이 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승병이 출현한 것도 호국불교의 전통보다 승려집단이 군역기피자의 소굴이라는 인식과 더 관련이 깊다. 이도저도 안 되는 농민들은 도망을 쳐서 군역을 모

면했다. 또 당시에는 대립(代立)이 공공연히 인정되어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번상해야 할 차레에 돈을 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현역근무를 하게 했다.

양인들 가운데서 그래도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향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군역을 피했다. 해방 이후 대학생에게 징집을 연기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는 향교에 입학해 교생(校生)이 되면 군역을 면제해주었다. 여기서 특기해야 할 점은 서양과는 달리 유교문명권에서는 평민도 여건이 허락되면 교육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평민 가운데도 드물기는 하지만 문과나 생원, 진사과에 합격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향교의 교육 기능은 매우 취약했다. 이미 중종대에 이르러 당대의 권신 김안로(金安老)가 향교는 군역을 피하려는 자의 소굴이라고 개탄했을 정도로 향교는 교육적 기능을 상실했다. 더구나 이미 군역면제의 특권이 있는 양반들은 평민들이 군역을 피하려고 득시글대는 향교에 자제들을 보내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다. 17세기 이후 사교육기관인 서원이 발달하고, 공교육기관인 향교의 교육 기능이 붕괴한 것도 군역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 갓난아기도 군역, 죽은 사람도 군역

임진왜란 이후인 인조대에 이르러 전국의 교생 수가 4만 명을 넘었다. 교생들이 향교에 적을 두는 이유가 유학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역 기피에 있었고, 평생을 교생으로 있으면서도 글 한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수도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정부에서는 낙강충군법(落講充軍法)이라는 것을 제정해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생들에게도 군역을 지게 하는 방안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아직 향교에 빈한한 양반 자제들이 적지 않게 다니는데다가, 군역을 지느냐의 여부가 양반층의 신분의 상징이 되어 버린 마당에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곤란했다. 결국 '민심은 잃어도 좋으나 선비들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民心可失 士心不可失)'라는 명분 아래 이 법은 시행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효종은 청나라의 침략에 굴복한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에 힘을 기울였다. 민족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북벌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의 군비 확충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이른바 양역변통(良役變通)의 논의

를 넣었다. 여기서 양역이라 함은 곧 군역을 말하는 것으로, 양반들이 전혀 군역을 지지 않아 양인들만 지게 된 사정을 반영한다. 좁은 지면에 복잡한 논의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군역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유일한 방안은 양반을 포함한 모든 가호에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법(戶布法)을 실시하는 데로 모아졌다. 그러나 군역을 지지 않는 것을 신분의 상징으로 여기던 양반들은 이 제도에 완강하게 반대했다.

영조는 호포법이 실시되면 자신이 가장 먼저 호포를 바치겠다고 선언하며 양반들의 양보를 촉구했으나, 양반들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결국 호포법은 시행되지 못하고 대신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었다. 균역법은 종래 포2필인 군역의 부담을 1필로 반감하는 조치였다. 균역법은 호포법만큼 강력하지는 못했어도, 잘만 시행되면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균역법은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세율을 줄인 대신, 세원을 넓히고자 한 정부는 군적에 올라 군역을 져야 하는 사람들의 총원인 군액(軍額)을 크게 늘린 것이다. 영조의 전 임금인 숙종대에 30만이던 군액은 영조대에 이르면 50만으로 크게 늘어났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흔히 삼정(三政)의 문란이란 말이 많이 쓴다. 삼정이란 정부 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토지세인 전정(田政), 군역을 포(布)로 받는 군정(軍政), 정부의 구휼미 제도로 사실상 고리대금업이 돼버린 환곡(還穀)을 말한다. 이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부담이 군정이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세율은 낮아졌지만, 세원을 확대하다 보니 16살 이상 60살 이하의 장정이 아니라도 군역의 부담을 져야 했다. 갓난 아이도 군적에 올라 군포를 부과하는 황구첨정(黃口籤丁), 이미 죽은 사람도 살아 있는 것으로 꾸미거나 체납액을 이유로 군적에서 삭제해주지 않고 가족들로부터 계속 군포를 거둬가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도망간 사람의 군포를 친척이나 이웃에 부과하는 족징(族徵)·인징(隣徵) 등은 군역이라는 이름 아래 농민들을 쥐어짜는 고전적 수법이었다. 건디다 못한 농민들이 도망갈수록 남아서 땅 파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 ‘학질은 떼도 첩역은 못 댈다’

또 조선 후기에는 군제가 복잡해지면서 농민들도 자신

이 어떤 군역의 군역을 지는지 알 수조차 없었다. 그러다 보니 중앙의 이 군역, 저 군역이, 또는 지방의 군역에서 각각 군역을 부과해 한몫으로 여러 곳에 군역을 져야하는 첩역(疊役)의 폐단도 자주 일어났다. 때문에 농민들은 학질은 댈 수 있으나 첩역은 댈 수 없다고 탄식했다.

농민의 부담이 이렇게 무겁다 보니 아전들에게 뇌물을 바쳐 군역을 면제받으려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났다. 아니, 아전을 타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임진왜란 이후 정부는 부족한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납속책(納粟策)을 써서 곡물이나 돈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벼슬을 팔았다. 벼슬 임명장인 교지에 이름을 비워놓은 이른바 공명첩(空名帖)인데, 이 벼슬을 산 사람은 호적에 납속, 즉 돈으로 산 것임을 밝혀 군역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지켜질 리 없었다. 돈 주고 공명첩을 살 정도의 재력기라면, 아전들에게도 돈을 먹여 호적에 납속 두 글자를 빼고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 가난한 양반들은 조상이 받은 여러 장의 교지 가운데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팔아먹고, 이를 산 사람은 교지의 주인공이 자기 조상이라 우기고, 또 족보를 위조하고 해서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군역을 빼먹었다. 이렇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바꿔가며(換父易祖) 얻은 양반 지위는 실제 양반 사회에서 양반으로 대우받을 수 없었지만, 국가를 상대로 군역을 면제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문란과 관련해 호적을 분석해 양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도 다 이들 군역기피자들 때문이다.

그러면 호적을 정리하고 인구를 파악해 군정을 닦는 군정수(軍政修)를 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았을까?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비꼬는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아전이라는 것들은 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고, 일이 있어야 먹을 것이 생기니, 군정을 닦는다고 호적을 재정리하면 아전의 이익이 될 뿐 오히려 농민에게 부담이 될 뿐이라서, 군정수는 현명한 수령이 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다산 같은 철저한 개혁가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가 된 것이다.

천민의 다수가 조선 후기에 가만 양인에 편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회도 특권층이 40%를 넘는다면 유지될 수 없다. 경제적·사회적 형편이 좋은 상위 40% 정도가 군



역을 지지 않고, 또 노비 등 천민들을 빼고 나니 중하위층 30, 40%의 양민들만 군역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정약용이 ‘애절양(哀絶陽)’이란 끔찍한 시를 쓴 것은 이런 상황에서였다.

시아버지 돌아가 벌써 상복을 벗었으며/ 갓난 아기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첨정되어/ 군  
보에 올랐네/ 하소연하러 가니/ 호랑이 같은 문지  
기 지켜 썼고/ 이정(里正)이 호통치며/ 외양간에서  
소마져 끌어갔네/ 칼 갈아 방에 들어가/ 자리에 피  
가득한데/ 스스로 한탄하는 말/ 애 낳아 이 고생당  
했구나.

이리저리 다 군역을 피하는데, 그럴 힘도 주변머리도 없  
는 불쌍한 농민이 군역의 부담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성기  
를 자른 것이다. 피임수술도 기구도 없던 시절, 아이 하나  
더 태어나면 군포 2필씩 부담이 되니 그곳에 칼을 댄 것이  
다. 정력에 좋다는 것은 모두 다 잡아먹어 멸종위기에 놓  
인 정력공화국 대한민국의 이야, 가련한 조상의 끔찍한 군  
역기피여!

## 보수적 대원군조차 실각시킨 호포법

1862년 대기군이 들고 삼남지방은 흔히 민란이라고 하  
는 농민들의 항쟁에 휩싸였다. 삼정의 문란, 특히 군정의  
문란은 농민항쟁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대원군이 집권한  
것은 안으로는 거센 농민항쟁에, 밖으로는 서양의 동아시  
아 침략에 직면한 상황에서였다.

안팎으로 조여오는 위기상황에서 대원군은 나름대로 강  
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국방력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보수적 개혁가인 대원군의 여러 정  
책 가운데서 군역과 관련된 것은 17세기 말부터 양역변통  
논의 때마다 대안으로 제기됐으나 양반들의 저항으로 시  
행되지 못한 호포법의 시행이다.

보수적 실용주의자인 대원군은 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호포법을 시행했지만, 결  
코 양반들의 신분적 특권을 약화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  
다. 그는 군포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신분의 상징으로 여  
기던 양반들의 입장을 고려해 양반가에서 호포를 낼 때는  
노(勞)의 이름으로 내게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양반들은 대원군을 용납하지 않았다. 병인양  
요·신미양요 등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와 미국 함대를  
‘격퇴’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하고, 강력한 쇄국정책  
으로 보수적 양반의 지지를 받은 대원군이 실각한 결정적  
요인은 민감한 호포법의 시행, 곧 양반들이 자신의 신분적  
특권의 상징이라 여기는 군포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초기에는 국민개병제를 표방해 양반들도 군역을  
저야 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군역면제는 양반의 특권으로  
자리잡았다.

이회창 후보 일가의 병역면제 의혹을 둘러싸고 많은 사  
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거론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유교가 뿌리내린 근 천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 지배층의 덕목에 군복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  
반인과 똑같이 군역을 지는 것은 오히려 치욕적인 일이었  
다. 조선시대였으면 상류층의 병역면제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회창 후보는 시대를 잘못 만난 불행한 지  
도자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조선시대의 지  
배층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이런 류의 글을 쓰다 보면 당연히 지배층에 대해 비판적  
일 수밖에 없지만, 조선시대의 지배층들은 나름대로 매우  
엄격한 자기관리의 잣대가 있었다.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조선왕조가 5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당시 지배층이 그들 나름대로 엄  
격한 책임감으로 사회를 지탱해왔다는 점을 떠나서는 생  
각할 수 없다.

그것을 선비정신이라 부르든, 유교 지식인들의 자기성  
찰이라 부르든 불행히도 오늘날의 상류층은 그런 전통사  
회 지배층의 책임감과 전혀 무관하다.

그렇다고 무(武)의 전통을 이은 서구의 노블리스 오블리  
제를 체현하는 것도 아니다. 이 땅의 주류는 정녕 어디에  
서 와서 어디로 가려 하는가? ~~하~~

---

●한홍구 교수님께서 지난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가 함께 하는 수련  
회에 “군사주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우리 나라의 병역비리 역사  
와 문제점 및 양심적 병역기피의 정당함에 대해 강연해주셨습니  
다. 이를 계기로 많은 회원들에게 병역문제를 알리고자 이번 논단  
에 ‘한겨레21’ 425호에 실린 한홍구 교수님의 글을 게재합니다.

---

# 서른 다섯은 참 어중편 나이다.

고현희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휴우**, 이제 겨우 아이들을 재웠다. 황망함. 약속한 글을 쓰기 위해 아이들을 반 강제로 재우고 나서, 간신히 시간을 내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머릿속이 황하다. 기쁨과 성냄으로 항상 분주한 내 생활들을 막상 글로써 보자니 어디서부터 뭘 써야할지 막막하고 당황스럽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한 남자의 아내인 서른 다섯 살의 여성이다. 어떻게 벌써 서른 다섯 살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처음 소주를 마셔본 스물 한 살의 사월이 너무 생생하고, 스물 두 살에 시작했던 연애의 그 감정들이 오롯이 가슴에 남아 아직도 가끔은 마음이 울렁거리는데 벌써 서른 다섯 살이라니.

서른 다섯은 참 어중편 나이다.

발랄하더니 주책이란 말을 듣기 십상이고, 점잔을 뺄자니 우습다는 말 듣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닌가싶다. 그러다 보니 발랄과 점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이제야 차차로 철이 들어가는 나이인 것 같다. 하지만 나도 과연 그럴까? 위로는 아직도 친정엄마와의 일전을 불사하고, 밑으로는 이제 고작 네 살, 두 살인 딸들과 힘겨루기 전투에 지쳐하지 않는 내가 과연 철이 들어가고 있는 서른 다섯 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지금의 내 나이가 무척 행복한 나이라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다. 내가 첫 아이를 낳고 얼마 후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엄마가 해 주신 말씀.

“다 지나고 보니 너희들 똥 기지귀 뽕 때가 제일 행복했더라.”

또 어디서 주위 들은 명언. 자식은 너 땃 살까지 하는 효도가 평생 하는 효도의 반 이상이라나? 딸들의 고집 앞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면 이게 효도란 말인가 싶다가도 그 애들의 빛나는 눈빛과 작은 입술이 만들어 내는 행복에 빠질 때면 정말 그 말씀에 크게 고개를 주억거리게 된다.

나는 여성으로써 가장 행복하다는 그 ‘똥 기지귀’ 시기를 무척 분주하게 지나고 있다.

나는 ‘불법 과외교사’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갈아먹고 사는. 사실 과외 때문에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나는 ‘불법 과외선생’이다. 남들은 퇴근을 준비할 시간 즈음 출근해 밤이 이슬해져야 돌아오는, 혹은 직장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과외선생을 만나 회식이라고 할라치면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게 내 직장생활이다.

약간 날라리이며, 멋모르고 세상을 조소하던 여고시절, 나는 절대 선생님만은 되고 싶지 않았다. ‘머리가 회끈해져서까지 아이들의 가방이나 뒤지고 이름표 달았는지나 검사하며 살아야 하는 건 너무 비참하다. 몇 십 년 동안 학문적 진전없이 맨 날 같은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는 건 또 얼마나 무료한 일일까’ 하는 나름대로 조숙한 척하며 내린 나의 시건방진 결론에 나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인생이란 알 수 없는 참 묘한 동그라미. ‘합법 교사’는 아닐지라도 나는 어쨌거나 ‘선생’이 되다니.

법학과에 진학한 나는 동아리로 학보사를 선택했고, 법학과를 버린 채 학보사과로 살았다. ‘인권변호사’는 나중에도 될 수 있지만, 조국의 자주와 민주와 통일은 당장 나를 필요로 했으니까 졸업 후 취업은 요원했다. 계속되는 낙방. 당황스럽고 우울하던 스물 다섯.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학원선생 생활.

학원에 가면 나와 처지가 비슷한 선생들을 만나 밤생활(?)은 즐거웠지만, 낮이 되어 사회에 당당하게 나간 친구들을 만나면 언제나 주눅들어하던 시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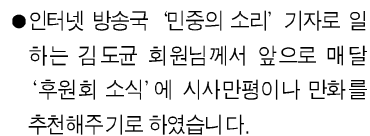
하지만 양심수후원회 회원이 되면서 나는 조금씩 내 자신에 대해 긍정성을 회복해 갈 수 있었다. 직업관계상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나는 그 시간 중 일부를 이용해 미미하나마 후원회 활동을 하며, 내 인생에 보석과도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은 북으로 돌아가신, 혹은 더 먼 길을 떠나신 훌륭한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만남. 지금도 그들에 대한 생각만으로 마음이 훈훈해지고 지친 어깨에 힘이 되는 회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그리움과 함께 더 열심히 활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하며 떠오르는 얼굴, 정태 형과 권오현 선생님과 만남.

나는 장기수 선생님들을 만나며 참된 삶과 인간의 강함 혹은 삶에 대해 인간이 가져야 할 예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회원들을 만나 건강한 삶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 있었다. 고백컨대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땐 언제나 행복했다.

이 글을 쓰며 다시 나를 돌아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다. 다만 내가 될 하찮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둘러싼 이런 너무나 좋은 사람들 때문이 아닐는지. 나는 그 풍성한 숲에서 오늘도 숲 향에 취해 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라고 있다.

깊이 고개를 숙여 그들에게 감사와 안부를 전한다. 



**01**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한총련 주최로 '검찰의 부당한 한총련 대의원 소환장 발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련 10기 대의원과 소속학생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회단체 대표들도 함께 하여 이용진 한양대 법대 학생회장의 기자회견을 낭독. 권오헌, 진관스님의 한총련 이적규정 규탄발언, 질의응답 등으로 마침. 이어 한총련 학생들 경찰청에 합동으로 대의원 공개출두와 항의방문시도, 그러나 경찰은 5호선 서대문역 출입구를 전경으로 가로막고 공개출두와 면담요청을 거부. 학생들 몇차례 경찰청 진입시도하다 자진해산함. 이창희, 강위원, 권오헌 함께 함

✎ 민가협 436회 목요집회 - (양심수 자녀들 편지 읽기 등) (황영태 선생님 인천에서 함께 오실 사람을 구해서 목요집회에 함께 하시는 정성을 보이셨음)

✎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기자회견을 열고 80년대 벌어진 운동권 학생 강제징집과 군내부 녹화사업 피해자 3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82년 보안사가 강제징집, 녹화사업을 위해 보안사 3차 안에 5과(심사과)를 신설하고 과천분실, 진양분실 등을 운영하면서 강제징집자들에게 대한 사상개조공작과 프락치공작이 자행되었고 녹화사업 강제징집에는 문교부 정책심의실, 각 대학 학생처 관계자, 병무청 징모단 등이 관련되었으며 '녹화사업은 통수권자의 요청이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발표

**02**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공동주최로 8.15광복절에 양심수 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의 사면촉구발언이 있었음. - 기자회견 마치고 김창국 국가인권위 위원장 면담. 김대원씨 등 채소 부적절한 환자들을 계속 구금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한총련 탄압 등(차별문제)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할 것 요청하다(임기란, 조순덕, 천영세, 이덕우, 권오헌 등)

✎ 덕수궁 앞에서 통일선봉대 발대식과 부시사와 형사재판권 포기 촉구 통일연대 결의 대회를 열다. 청년대표, 여성대표, 학생대표, 노동자대표들의 결의 발언과 15번째 통일선봉대 이규재 총대장의 힘찬 다짐발언이 있었음

**03**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만행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책임자 처벌, 부시사와 촉구 전국 동시다발 평화대행진 집회를 열다. 집회를 마치고 종묘공원까지 행진 - 정리집회를 마치고 해산 - 토요캠페인에 함께 했던 후원회원들도 행진과 정리집회에 함께하다. 송창학, 주경

임, 유선화, 김범용, 노혁, 이창희, 고광희, 변의숙, 박지윤, 이용준, 안나미, 김광태, 권오헌 외

✎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위한 토요캠페인을 탑골공원 앞에서 양심수후원회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구속 양심수대책위 등 공동으로 진행하다.

✎ 한총련 소속 대학생 16명이 경기 파주시 적성면 담곡리 양북 2차선 지방도로에서 2사단 소속 탱크와 궤도차량 등 기동훈련을 하던 미군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임

**04**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살고 계신 황영태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올해 90세이신 황선생님은 5년전 중풍으로 몸져누워 투병하시어 지금은 가벼운 외출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목요집회에 한번도 거르지 않고 다니셨으며 후원회에 큰 성원을 해주셔서 양심수후원회 제8차정기총회(06년 4월)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광희, 김호, 권오헌 다녀옴

✎ 남북은 금강산에서 7차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 전체회의를 열고 7차 장관급회담을 8월 12일-14일까지 서울에서 열고 제14차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선수단 참가, 5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구체적인 일정을 장관급 회담에서 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05** 가톨릭중앙의료원 강남성모병원에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종교·시민·사회 민중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다. 강남성모병원파업노조와 경희대 의료원 파업노조원 등 300여명과 사회단체 대표들(권영길, 오종렬, 권오헌, 진관, 차수련, 이수호 외)이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병원당국과 정부에 대해 직권중재제도 철폐, 노조탄압 금지 등을 요구-기자회견을 마치고 가톨릭 중앙의료원장과 경희의료원장을 면담하려 했으나 만나주지 않아 파업노동자들을 격려하고 돌아옴(오종렬, 권오헌, 진관스님, 박석운 외)

✎ 명동 향린교회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2차 대표자회의를 열다. 30여 단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권오헌 대표의 사회로 범대위 활동보고와 안전토의를 함. 8월 7일 대표단 1일 농성, 범국민추모제(9월 7일) 개최확정 등 결의

✎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과 관련 '궤도차량관제병 페르난도 니노가 사고지점 10~15m 앞에서 여중생을 발견하고 내부통신마이크로 왼쪽의 운전

병 마크 위커에게 정치 지시를 내렸으나 듣지 못했고 통신 장애로 맞은편에서 오던 브래들리 전차를 피하기 위해 갓길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밝힘 - 그러나 검찰은 운전병이 여중생을 보고도 갓길로 계속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피의자 입장을 대변하여 분노를 사게 했음.

**06** 8.15사면을 촉구하는 '양심수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광복절대사면을 촉구한다'는 글을 청와대, 법무부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림

유엔군사령부와 이북군(조선인민군)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에서 13차 장성급회담을 열고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방지와 신뢰구축을 위해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이 보도

김원웅(한나라당), 김성호(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과 관련해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조지 부시 미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부시 대통령의 사과와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이양 등을 촉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검찰의 수사 발표에 항의해 '여중생 사건 진상외곡, 살인미군 비호 의정부지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음

**07**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는 미군의 재판관할권 포기 1차 시한을 맞아 세종로 미 대사관 앞에서 '300,000만 서명돌과 및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촉구 노상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지를 미 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부당한 무력제지로 이루지 못함. 큰 비가 하루종일 왔지만 대표들은 그 자리에 앉아 노상농성을 하며 규탄발언을 잇달아 하다. 문정현, 홍근수, 노수희, 이천재, 진관, 서경원, 권오현 외 대표들과 회원들이 합류. 4시 종묘집회에 함께 한 양심수후원회원 오후 늦게 노상농성장 방문 격려 - 변의숙, 이창희, 고광희, 김호, 김숙희, 박지윤, 송창학, 왕준영, 노혁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미장갑차 여중생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천주교 대책위 주최로' 천주교 1000인 선언 및 시국미사를 열고 재판권이양과 부시대통령 사과를 촉구 - 1000인 선언 미 대사관 접수 거부.

종묘공원에서 범대책위 주최로 한총련 학생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군 장갑차 살인만행, 형사재판권 포기, 부시 공개사과 촉구대회'를 열고 종로를 거쳐 미 대사관으로 행진하려다 종로3가에서 경찰지지로 막혀 롯데백화점 앞에 다시 집결, 기습시위를 벌이고 명동성당에 들어가 정리집회

주한미군이 여중생 살인사건의 미군병사 재판관할권을 넘겨 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거부. 미군측은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공무집행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넘겨준 전례가 없고 사건관련자 두명을 미군법정에 기소한 만큼 재판권을 넘길 수 없다'고 망발

**08** 광주지방법원 형사 합의2부(재판장 신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의 첫공판이 열린다. 재판부 인정심문이 있는 다음 검사의 기소요지와 김형주 의장의 모두진술이 있었고 검사의 직접심문과 이상갑 변호인단의 반대심문이 이어졌음. 검찰은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역지로 꾀맞추려 했으나 변호인단은 6.15남북공동선언 시대 국가보안법 자체의 존립문명이 사라졌고 10기 한총련은 강령개정, 평화적 합법적 활동, 민주절차에 의한 경선과정 등을 들어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성을 지적 - 서울에서 진관스님, 강위원, 권오현이 방청했고 광주민가협 회원들과 서울양심수후원회에서 정형근, 김범용이 함께함 - 한편 이날 남총련 학생들과 통일선봉대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도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988년 회사가 고용한 구사대에 맞아 숨진 광무택시 노동자 문용섭씨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 검사인 명동성 인천지검 차장검사에게 사건의 은폐 축소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

8.15 광복절 사면 건의가 보도되는데 서울지법 정진경 판사가 법원 전산망 게시판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성남지원 이충상 부장판사도 전산망에 '사면권의 제한'이라는 글을 올림

민가협 437회 목요집회 - "양심수를 석방하라"라는 주제로 집회 내내 모든 어머님들께서 수의를 입고 보랏빛 수건을 두른 채로 감옥문 안쪽에 양심수의 모습으로 서 계심. 이문희씨가 남편 심재춘씨에게 보내는 편지글 낭독, 하영옥씨 어머님 권성희님과 박용진씨의 어머님 송복순님께서 자식의 부당한 구속사연과 석방촉구 호소, '한국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KEEP" 소속 재미동포 김혜원씨 민가협과 함께 국가보안법철폐에 함께하겠다는 선언함.

**09** 경북구역 청와대 근처에서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이 '8.15 특별사면에 즈음한 각계 3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수배조치 해제하라고 촉구.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사회

로 오종렬, 조순덕 상임의장의 취지설명과 정연찬 전농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고 청와대 쪽으로 300여 미터 거리행진을 한 다음 권오현, 이종린 의장의 양심수 사면촉구 연설로 정리집회를 마치고 해산

- ✎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씨 재판 열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있는 가운데 이석기씨는 혐의사실을 부인
- ✎ 양심수후원회 제14차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를 기획모임과 함께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열다. 활동·재정보고와 8.15 민족통일대회 참가문제, 8월 24일~25일 민가협 여름수련회 등 협의
- ✎ 후원회 소식 130호 발송작업 - 김범용, 왕준영, 이일규, 김호, 고광희, 이창희, 송창학, 이승미, 노혁, 김영식선생님, 권오현회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 ✎ 이돈명 상지대학 이사장과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인사 20여명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원로간담회'를 열고 서울에서 열릴 8.15 민족통일대회(14일~17일)에 국민들이 적극 성원해 줄 것과 대북 식량지원 등 요구

**10** 양심수후원회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등이 함께하는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토요캠페인을 탑골공원 앞에서 벌임. 권오현, 진관스님 등 양심수 특별사면 촉구연설. 이창희, 박지윤, 김범용, 노혁, 도은주, 진관스님, 김민정, 권오현, 이용준 등 함께 함

✎ 통일염원을 안고 37년 옥고를 치루다가 1999년 석방되어 결혼하신 양희철 선생님의 귀한 따님 지담아기의 돌잔치가 관악구 봉천동 로알 웨딩홀에서 있었음. 통일광장 선생님들과 사회단체 대표, 민가협 어머님들과 선생님을 존경하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지담아기의 첫돌을 축하하고 건강하고 어여쁘게 자라길 빌었습니다. 후원회에서는 노혁, 도은주, 신현부, 고광희, 김호, 이창희, 이정규, 김호현, 서미라, 이정태, 왕준영, 권오현 등 함께 함.

✎ 매폰로시에서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계시는 정순덕 선생님께 문병 다녀옴.

**1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980년대 초에 있었던 '녹화사업' 관련 조사를 위해 소환통보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힘. 전씨의 위임을 받은 이양우 변호사는 제5공화국 당시 시행된 대학생 징집조치는 '당시의 주무부처가 정당하게

입안 시행한 국가시책이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성희씨 등 5명의 사망사건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해 위원회 문의에답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발표

**12** 건국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5차 대표자회의를 열다. 8.15 민족통일대회의 장소, 참가범위 축소 등 당국의 간섭과 통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닌지 등 열띤 토론이 있었으나 57년만에 북측 대표들이 함께하는 서울에서의 8.15 통일대회를 성사시켜야 한다는데 다수의견 모음

✎ 서울구치소 앞에서 전국을 돌고 올라온 범청학련 통일선봉대는 마중온 민가협 회원들과 함께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집회를 열고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양심수를 면회 함

✎ 의정부 미2사단 캠프 하우스 앞에서 통일연대 소속 노동자 통일선봉대와 범청학련 소속 통일선봉대가 함께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구단집회를 열고 부시의 사과와 재판관할권 포기를 촉구

✎ 남북장관급 첫날 전체회의가 신라호텔에서 열려 적십자회담, 경의선 공사 재개 등을 합의 했다고 언론이 보도. 한편 김령성 단장 등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서해직항로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 회담장소로 옮겨 회담을 열었음.

✎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조사권 보강, 증인 참고인 등의 위증처벌규정 등 의문사 특별법 개정 의견을 지난 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12일 알려짐

**13**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SOFA개정국민행동, 용산기지운동본부, 미군기지 시민연대, 매향리 범대위, 전국민중연대 등 공동주최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등을 촉구하는 '제35회 반미연합집회'를 열다. 집회가 열리기 전 기독교학생회 소속 학생 6명이 미군장갑차 살인만행 규탄 기도회를 미 대사관 앞에서 열려다가 경찰에 전원 연행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총련 등 여러 학생회가 공동주최한 '전국 대학생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규탄대회'를 열고 평화행진, 미 대사관으로 가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종묘앞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정리집회를 마치고 해산 - 그 뒤 한총련 소속 대학생 300여 명이 용산 남영동에서 반미시위를 하다가 경찰과 충돌, 8명이 강제연행되고 1명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용산 중대부속 병원 응급실로 이송, 그러나 경찰들이 중상을 당한 학생인

데도 연행하러 응급실을 지키고 있어 사회단체 대표들이 경찰철거를 요구 - 1명만 남은 상태에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부상학생 병원에서 빠져 나가게 함 - 노수희, 홍번, 이규재, 권오현 등 대표와 범대위 집행간부들 응급실 방문

**14**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할 북측대표단 116명이 서해직 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 통일연대, 민화협, 종단 등 남측 공동추진본부 영접단(통일연대는 오종렬, 정현찬, 권오현 대표 외 집행간부들)은 공항 귀빈실에서 김영대(민화협 회장) 단장 등 북측대표 수석단 마중 - 허혁필 민화협 부회장이 '8.15를 민족단합의 날 통일의 날로 만들어 나가자'고 도착성명 낭독- 북측 대표단과 영접단은 위커힐로 향함 - 남측대표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음. 늦은 7시 호텔 가야금 홀에서 남측에서 준비한 환영공연이 있었음 - KBS 오유경 MC 사회로 부채춤(경기도립 무용단), 가야금 병창 - 사랑가, 판소리(안숙선), 서도소리 등 공연. 이어 8시 지나 무궁화 볼룸에서 남북대표단과 초청인사 60여명 등 540여 명이 만찬장에 함께 - KBS 박정숙 아나운서 사회로 남측을 대표하여 강원룡 목사의 환영사, 북측단장 김영대 민화협 회장의 답사 - 남측 정은숙(국립오페라 단장) 교수의 축하(신 아리랑), 북측 장해명 통일문학 편집국장의 시 낭송(단숨에 가자)이 있었음. 10시까지 이어진 만찬에서 남북대표단은 동포의 정을 나누고 밀렸던 대화와 민족통일대회의 성공적 진행을 다짐

건국대 운동장에서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노점상연합 등 각 부문 한마당을 마치고 모인 20,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민족통일대회, 통일연대 경축한마당을 열음.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의 대회사와 오종렬(전국연합), 김홍현(전민련), 정현찬(전농), 백순환(민주노총) 대표 등의 각 부문 결의 발언이 있었고 노래극단 '희망새' 등 문화공연이 이어짐.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북측대표단 도착과 환영만찬소식 보고, 신창균 범민련 명예의장의 만세3창 등으로 이어졌음

8.15 통일행사가 열리고 있는 건국대 교정에서 범민련 주최로 '문재룡 선생님 패유를 비는 범민련 주점과 작은 문화제'가 열림. 준비에서 주점이 열리고 있는 동안 양심수 후원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함. 송창학, 주경임, 변의숙, 이승미, 장재영, 한수정, 이창희, 왕준영, 이일규, 김호현, 안병길, 이정규, 여해정, 박지윤, 이정태, 조상희, 김호, 고광희, 박인석, 김미정, 김범용, 김숙희, 안나미, 김현희, 오수강, 이진, 유선화, 김현애, 정형근, 노혁, 이상희, 한찬욱, 최금남등 함께 함.

8.15민족통일대회 기간동안 이정태운영위원은 북측대표단의 경호를, 박지윤회원원은 행사 자원봉사로 일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북은 신라호텔에서 7차 장관급회담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를 8.26~29일 사이에 여는 등 10개항의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회담을 마침. 북측대표단은 8.15 민족통일대회 북측대표단을 싣고 온 고려항공편으로 돌아 감

민족문제연구소 등 5개 단체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친일 문학에 대한 문학인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모윤숙 시인 등 42명의 명단을 공개

이른바 민혁당사건으로 3년 6월형을 받고 3년옥고를 치루고 있던 심재춘님이 가석방으로 대구교도소에서 10시 출소함. 가족들과 대구양심수후원회등에서 뜨겁게 마중했음. 이날 같은 대구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전철연 간부 문보준씨도 1년 9개월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함. 두 분의 출소를 축하합니다.

**15** 8.15 민족통일대회 개막식이 위커힐 세이드 가든에서 열림. 10시 40분 남북대표단이 모두 입장하고 남과 북 6명의 여성이 단일기를 들고 입장 - 개양한 다음 김중수(남) 허혁필(북) 공동사회로 개막식 진행. 북측 김영대 단장과 남측 이돈명 민화협 회장의 개막연설. 김철(천도교 교령-남), 김명철(농업근로자동맹 부위원장-북),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남), 이영희(여성동맹 부위원장-북) 대표의 민족단합대회 연설이 있었음 - 이어 7천만 동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은방회(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취(김일성사회주의 청년연맹 비서)씨가 낭독함.

이날 행사가 늦어지면서 '놀이마당'은 취소되고 '우리나라'의 공연도 못하게 됨 - 북측 대표단부터 퇴장 - 바로 호텔 가야금홀에서 남북합동예술공연이 있었음. 황수경 아나운서의 전체사회로 먼저 북측의 무용 양산도를 비롯 마지막 소합창 '우리는 하나'까지 큰 박수받으며 공연마침. - 남측에서는 합창 경복궁타령에서 안치환 노래 등으로 이어짐 - 오후에는 무궁화 볼룸에서 남북 사진 미술전시회가 열렸음. 6.15남북공동선언 뒤 있었던 행사 등과 남과 북의 자연을 사진과 그림으로 재현한 사진 130점, 그림 100여점이 전시되었음.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남측에서 정현찬 농민회장과 북측에서 조원 사진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했고 남과 북 대표단과 초청인사들이 국보급 작품을 비롯하여 2000년 9월 2일 송환된 비전향장기수 이재룡 선생의 따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의 사진도 있었음. 8.15

민족통일대회 첫날 마지막 행사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북측예술단의 단독공연에 북측대표단과 남측의전단, 그리고 초청인사가 관람

- ✎ 건국대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8.15광복절 57주년 기념식 및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자주통일결의대회를 노동자·농민·청년학생·시민 등 1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림. 이보다 앞서 별도로 민주노총 주최로 통일염원 노동자대회와 오후 8시 범청학련 10주년 기념대회도 열렸음
-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8.15 광복절 57주년 기념식 및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자주통일결의대회에 후원회 깃발을 들고 참석, 행사가 끝난 뒤에는 대전 충남지역 양심수 후원회원들과 함께 앞으로 양심수 석방과 후원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연대사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축과 단결을 뜻하는 뒤풀이를 함 - 고광희, 김호, 이일규, 한수정, 이창희, 김현희, 왕준영, 김미성, 송창학, 강위원(한총련합법화대책위), 정옥제(신입회원), 박지윤 함께 함.

**16** 8.15민족통일대회 2일째 - 남북대표단은 호텔 무궁화 볼룸에서 통일연대, 민화협, 종단, 노동, 농민, 문예, 여성, 청년, 언론 등 부문상봉모임이 있었음. 통일연대 모임에는 북측에서 민화협 허혁필 부회장과 리창덕 민화협 사무소 소장, 조선사회민주당 최운주 국제부장이 함께 했고 남측에서는 오종렬, 한상렬, 권영길, 백성기, 조찬배, 조순덕, 권오현 외 30여 명이 함께하여 소개시간과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결의를 다짐 - 이 모임에서 통일선봉대가 전국을 누비며 받은 통일염원 서명이 있는 615 미터 길이의 서명천을 북측에 전달 했음

- ✎ 남북은 무궁화 볼룸에서 '독도의 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우리민족의 과제'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열렸음. 남북공동사회(남측-백낙청 교수, 북측-최창만 조선직업동맹중앙위원회 부장)로 기조발제엔 남측에서 강만길 상지대 총장의 '독도의 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우리민족의 과제', 북측에서 허종호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원사,박사) 연구사의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등 이었고 그 외 남과 북에서 2명씩 발제와 토론이 있었음. 정리발언(결속발언)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공동호소문 낭독(지은희,리학수)으로 학술토론회 마침

- ✎ 무궁화 볼룸에서 8.15민족통일대회 폐막식이 남북대표단과 초청인사가 함께 한 가운데 열림. 남과 북 여성 6명이 단일기를 거두는데서부터 시작, 북측 장제연 조선종교인협의회장=조선직십사회위원장과 남측 한국교회협의회 백

도웅 총무가 폐막연설을 했음 - 이로써 8.15민족통일대회 공식일정 마침 - 북측 대표단은 덕수궁 등 고궁관람과 코엑스에서의 예술공연을 했고 저녁에는 북측대표단, 남측 초청인사들이 함께 하는 환송만찬이 있었음. 이 환송만찬에는 민가협에서 김정숙, 서경순 전 상임의장과 후원회에서 김호현 운영위원이 함께 했고 코엑스 예술공연에는 후원회 운영위원 탁무권, 한상권 교수가 초청되어 관람 함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항의시위를 취재하던 인터넷 방송 '민중의 노래' 기자 한유진씨 등을 미군이 체포구금한 사건과 관련,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미 2사단 존 우드 사단장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 ✎ 서울 연화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 부근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전 전두환 대통령은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나와 '녹화사업'의 진실을 밝혀라'고 시위를 벌임.

**17** 8.15민족통일대회에 참석했던 북측대표단 116명은 위커힐 호텔 앞에서 통일연대 소속 회원들의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인천공항으로 떠나 공항 커빈실에서 남측 영접단의 환송을 받고 떠남. 허혁필 민화협 부회장의 '우리민족끼리'의 대명제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21세기를 민족단합의 시대, 통일번영의 시대로 빛내어 나가시다란 출발성명을 발표하고 공항을 떠남. -송창학, 이창희, 고광희, 이일규 함께 함.

- ✎ 종로 탐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등을 위한 토요집회양심수후원회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등 공동으로 열림. 이 날은 양심수후원회 주관으로 8.15광복절 사면에 양심수를 제외시킨 조치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전원석방 거듭 촉구 - 권영구, 송창학, 한수정, 이일규, 이창희, 변의숙, 황철우, 정선화, 안나미, 양계숙, 이득형, 이용준, 권오현 함께 함

**18** 오랜 옥고를 치루고 나오시어 부산에서 복역술 도매사업을 하시던 이대식 선생님께서 집과 사무실, 창고를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100번지로 옮기시어 18일 집들이를 하셨습니다. 집들이에는 마을 주민들과 서울에서 김규철, 김영옥, 김장현 선생님을 비롯 많은 분들이 먼저 오시어 사업변창을 빌어 주셨고 양심수후원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대식 선생님의 사모님이신 박창숙님은 대구에서 송환되신 김종호 선생님이 머물 곳을 마련하는 등 정성껏 보살펴 주시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 이정규, 조명희, 이정태,



이일규, 권오현 등 함께 함

**20** 한국일보 13층 커피숍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16차 상임대표회의를 열고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3차 개정안 추진 및 개정추진운동 등 협의

✱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주최, 민주노총 의문사진상규명 대책위, 추모연대, 의문사공대위 공동주관으로 “권한 강화, 기간 연장,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현 상임공동대표의 취지설명, 남상헌 상임공동대표의 법개정 일정 및 계획 발표,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의 회견문 낭독 등으로 마침. 회견을 마치고 대표단, 의문사진상규명위로 가서 한상범 위원장을 면담,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

✱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84년 강제징집 군의문사 진상규명 진정 제32호 허원근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헌병대 수사결과와 몇차례에 걸친 군당국의 재조사와는 달리 허원근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되었음을 사건발생 18년 만에 확인 - 이 사건은 만취상관이 총기로 살해하고 또 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음이 드러났으며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은폐된 경위를 계속 조사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노래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작곡가 윤민석씨를 불구속 입건

**21** 삼청동 입구 국군기무사 앞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소속 대표들이 강제징집, 녹화사업 및 마파람 912공작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실지조사 협조 촉구 및 사령관 면담 요청 을 요구하는 피켓시위 벌임 - 이어 민원실에 가서 기무사 방첩대장(대령)에게 실지조사 협조와 사령관 면담을 요청, 그러나 방첩대장은 녹화사업 등 서류를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주장 - 대표단은 협조거부를 규탄하고 면담요청서와 질의서를 접수시키고 오다. - 남상헌, 권오현 대표와 이은경 사무국장 외

✱ 시사모임이 낙성대 사카 카페에서 ‘인권의 역사’를 세미나하고, 9월 역사강좌에 대한 준비를 논의함.

**22** 기독교연합회관 한우리 교회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대표자회의를 열다. 9.2 비전향장기수 송환 2돌을 맞아 2차 송환 촉구 기자회견. 1차 송환 2돌기념 및 2차 송환 촉구대회와 관련 협의. 장소 향린교회, 시간 2002년 9월

2일 10시 - 정진우(개신교), 김명엽(고난), 이상연(불교), 권오현,이정대(양심수후원회) 등 함께 함

✱ 민가협 438회 목요일집회 - 여는말: 임기란 전 상임의장, 인터넷에 올린 글로 국보법위반 혐의, 서울구치소 수감중인 김강필씨 사연(김강필석 방대책위), 출소인사: 성공회대 전지윤씨, 민혁당사건 관련 심재춘씨.

✱ 민가협 운영위원회 동굴식당에서 긴급히 열다. 규약개정문제, 사무국 간사 보강, 2002 회원 여름수련모임 등 협의

**23** 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총련 공동주최로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유엔 인권이사 회 제소’ 기자회견을 열다. 사회단체 대표와 한총련 소속 학생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진우 집행위원장 사회로 참석자 소개, 인사말(홍근수), 유엔제소 취지 말(권오현), 경과보고(강위원), 제소문 보고(이석태),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 공판결과 보고(이상갑), 성명서 낭독(오종렬) 순으로 진행 - 마침

✱ 같은 장소에서 한총련-범사회인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 열림 - 정진우 집행위원장 사회와 권오현 상임공동대표의 주제로 보고안건(활동,조직,재정보고-강위원)을 듣고 토의시간에는 10월 중 심포지엄 개최, 김준배 열사 문화제(한총련 주관)지원, 12.1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총련의 밤(한총련 주관) 지원문제, 그리고 재정확보 조직강화 문제 토의

✱ 감사원 정문 앞에서 자통협 주최로 ‘F-X 사업관련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F-X 사업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그 종단을 촉구

✱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구속노동자 석방, 노동자 대서면 실시, 주5일 근무제 즉각 도입, 노동운동 탄압 김대중정권 규탄대회’를 열다.

✱ ‘후원회 소식’ 편집모임이 인사동 만복정에서 모여 지난 호를 평가하고 131호를 만들 준비회의를 진행함.

**24**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가 함께 하는 2002년 회원 여름수련회가 충주시 양성면 단암리 ‘좋은 사람들의 모꼬지’에서 민가협 어머님들, 후원회원, 장기수 선생님 등 1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24일~25일 1박2일 동안 열림. 24일 이른 아침 민가협 어머님들과 대구·광주 민가협 회원들이 먼저 떠나 기체조(김진호-단학선원 명예사범), 인권신문 등 만들. 오후 늦게 양심수후원회원과 장기수 선생님을 도착하여 운동장에서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가 함께 하는 2002년 회원 여름수련회 여는 마당을 열음. 민가협 서경순

전 상임의장 사회로 민중의례, 조순덕 상임의장 인사말로 생활수칙 선서, 조별인사 등 진행 - 저녁식사 후 조별활동을 하고(조대표 뽑기, 조이름, 조구호, 조노래, 인권퍼포먼스 등) 9시 20분부터 큰 방(강당)에서 8.15민족통일대회 참가보고(권오헌), 이북예술공연 영상관람(박진원 해설)이 있었음. 11시부터는 운동장에 나가 모닥불을 피워 놓고 양심수후원회 모성릉 운영위원 진행으로 대동놀이, 11시 50분부터는 막걸리와 부침안주 등이 준비된 춤과 노래가 있는 흥겨운 한마당을 벌임 - 이틀째 - 25일 6시에 일어나 산책과 체조, 아침식사, 노래연습(아우성 지도)에 이어 9시부터 조별 인권 퍼포먼스 경연대회(박진원, 강용주 심사), 인권 퀴즈(채은하 진행), 11시부터는 한홍구 교수의 인권강좌가 '군사주의와 인권' 주제로 있었음. 이어 점심식사를 하고 짐을 모두 챙겨 운동장에 다시 모여 수련회 닫는 마당을 권오헌 후원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 - 인사말(임기란 전 상임의장), 인권 퍼포먼스 경연대회 심사평 및 시상식(통일상-6조, 양심수식방상-3조, 국가보안법 철폐상-7조 등)이 있었고 개별 회원 모범상으로는 '머슴상'에 이일규 후원회원, 어린이들 모두에게 푸짐한 상을 주고 대구에서 오신 장기수선생님 김태수(아리랑웃), 이준원(달력) 두분께도 특별상을 드림. 또한 이낙호(민가협 회원이면서 4월혁명회 공동대표) 선생님이 준비하신 무통사혈 침을 광주민가협에, 체력단련기를 대구민가협에 드림. 마지막으로 수련회 평가(민가협 어머니- 권성희, 장기수선생님-김영승, 후원회-이일규)를 듣고 김수룡 선생님의 선창으로 만세3창을 하는 것으로 모두 마침 - 이어 여주 신록사로 옮겨 주지스님 안내로 선방에서 말씀을 듣고 이어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한상권 교수의 안내와 설명으로 극락보전, 다중석탑, 조사당, 보제존자, 석종부도, 석등, 신록사 다층전탑 등을 돌아보고 서울과 대구, 광주 등으로 떠남.

☛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대책위 주최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 주관으로 살인미군 형사 재판권 이양 촉구 서울시민 선전의 날 출정식 및 대국민 선전전 행사 진행

**25** 2001년 민족통일대추전에 다녀와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옥중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1년동안 투병을 해오던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연합의장 문재룡 선생이 65세를 일기로 애석하게 운명하심

☛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가 함께 하는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후원회 일부회원 서울대 병원 고 문재룡

선생 빈소를 찾아 문상함 - 삼가 명복을 빕니다 - 권오헌, 한상권, 이정태, 변의숙, 김민정

☛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이날 1980년대 초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한 '녹화사업'과 관련 전두환, 노태우씨 등 전직 대통령과 이학봉 보안사령관, 서정화 전 내무장관 등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함.

**26** 내자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주최로 '한청지도부에 대한 내사와 체포영장 발부 등 한청 탄압에 대한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문 낭독(권오헌)과 규탄발언이 있던 다음 한청간부와 권오헌 후원회 대표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경찰청장 면담요청서와 체포영장발부 사실확인질의서 접수시킴

☛ 양심수후원회원을 서울대병원으로 고 문재룡 선생 빈소 문상. 송창학, 이정규, 이득형, 양계숙, 한수정, 김숙희, 박지윤, 주경임, 김호, 고광희, 유선화, 노혁, 한찬옥, 모성룡, 나정옥, 한재경, 여해정, 이창희, 권오헌 함께 함.

**27**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에서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후보와 단체 및 유가족 간담회가 열리다. 노무현 후보는 이창복, 천장배 의원과 함께 왔고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오종렬, 남상헌, 권오헌 상임대표와 그리고 허영춘 외 유가족들이 함께 했음. 계승연대에서는 의문사진상진상규명특별법의 시한연장, 조사권 강화, 반인륜적 범죄시효 배제 등 내용의 개정안에 적극 협조 당부. 노후보 개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함.

☛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986년 6월 21일 부산에서 의사체로 발견된 김성수(당시 18세-서울대생)씨는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 - 이유는 김씨 사체부검에 문제점이 많고 수사과정에서 중요사실이 누락되고 참고인들의 조서가 조작되었다는 점 제시.

**28**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자통협, 실천연대 등 사회단체 대표들, 존 볼튼 미국무부차관 방한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사관 앞에 1인 시위에 들어감.

☛ 서총련 소속 대학생 5명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철회, 존 볼튼 미국무부차관 방한반대 플랑카드를 들고 종합청사로 가던 중 경찰의 제지에 맞서 몸싸움 하다가 모두 연행되다. 학생들의 '악의 사신 미국무부 군축담당차관 존 볼튼은 당장 돌아가라'는 성명서를 배포

☛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고 문재룡 선생 장례위원회 주최로 '헌신과 신념의 통일운동가 고 문재룡 애도문화제' 열림.

문화제는 ① 심장에 남는 이 ② 동지애의 노래 ③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 등으로 진행. 범민련 등 사회단체 대표와 성원들, 한총련 학생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림 - 이정규, 이창희, 권오현, 김민정, 김숙희, 이일규, 박지윤, 이진, 고광희, 김호, 진재영 등함께 함

**29** 헌신과 신념의 통일운동가 고 문재룡 선생 장례식이 있었음. 8시 서울대병원 장례예식장에서 발인식은 민 경우 범민련 사무처장 사회로, 박종화 시인의 조시, 임방규 고문의 조사, 천리마 한반도 조국과 청춘 등 노래패의 조가 등이 있었고 해화동-대학로-종로5가 종묘공원까지 영구행렬 - 범민련 성원들의 장례위원과 각계각층 지도위원, 청년학생 등 500 여 명이 함께 함. 영결식은 종묘공원에서 민경우 씨 사회로 이종린 장례위원장 조사, 범민련 공동사무국 조사(김규철 선생 대독) 북측 범민련조사(서상권) 해외본부 조사(한총련 조통위원장) 조사 이어짐 - 이어 손장래(민화협), 오종렬(전국연합)의장의 추도사 이기형 시인의 조시 낭독. 희망새, 우리나라, 천리마 등 조가합창이 있었음. 유족과 장례위원, 지도위원, 청년 학생 등 분향 헌화, 도강호 호상의 인사말과 유족의 인사말 등으로 영결식 마침 - 장례위원 등 버스로 신길동 범민련사무실 앞과 홍제동 고인의 집에서 노제를 지낸 다음 벽제 화장장에서 화장하여 유골은 봉원사에 안치했음. - 이정규, 이정태, 한수정, 이창희, 변의숙, 권오현 등 함께 함. 이정규 운영위원 장례식 마지막까지 함께 함.

☞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70년대 대전, 대구교도소의 비전향장기수 사망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진정한 비전향 장기수 최석기, 박용서, 손윤규씨 등이 당시 당국이 발표한 단순사망, 자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부당한 사상전향제도 아래 공권력의 위법한 폭력행사로 사망하였다고 밝힘.

☞ 민가협 439회 목요집회 - 고 문재룡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기리는 시간 가짐. 여는말 : 조순덕 상임의장, 이 땅 장애인 현실과 국가인권위에서 18일째 단식 중인 배정설명(장애인 인권연대 박경석대표), 발산역, 오이도역 등 리프트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임기란 전 상임의장)

**30** 낙성대 '탄남의 집'에서 비전향 장기수 63명 송환 2돌을 기념하여 통일뉴스가 기획한 특집으로 비전향 장기수 박종린, 정순덕, 김영식, 문상봉 선생님들과 송환추진위 권오현 대표, 광인석 편집위원 등이 함께 하는 1차송환의 의

미와 2차송환의 당위성 등을 말하는 좌담이 있었음

☞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주최로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권 강화, 기간연장을 위한 특별법공청회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수 없다”는 주제로 열림. 발제는 한상범(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허영춘(의문사한 허원근 부친 유가협 대표), 이덕우(변호사), 토론에는 김원웅, 이창복, 천영세, 황인성, 김석연, 유덕상 등 - 사회로 김상웅(성균관대 교수), 계승연대 대표들과 유가협 민가협 회원 등 방청

☞ 남북은 홍제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정의선 철도 연발 완공, 개성공단 착공 등 8개 항의 합의문 발표

☞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일본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하기 위해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9월 17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동시 발표

**31** 여의도 국회앞에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주최 민주노총 추모연대, 의문사 유가족대책위 주관으로 의문사법 명예회복법 개정촉구대회 열림. 개회사 - 민주노총 김형택 부위원장, 촉구연설 - 남상헌, 권오현 계승연대 상임대표, 결의문 낭독 - 김수익 한진중공업 노조지회장 -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촉구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비겁한 자들 거부, 규탄정리집회 하고 해산

☞ 건국대 실내극장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주최, 민혁당, 황선, 김대원 등 대책위 주관으로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 열림. zen, 서기상, 이정렬, 아줌마, 조국과 청춘, 우리나라 출연.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대표 국가보안법폐지투쟁 격려 발언하다. 이어 학생회관에서 주점이 열렸음. 권오현, 박지윤, 이진, 김숙희, 이창희, 이일규, 김미성, 이용준, 김소중, 권주환 선생님 등 함께 함

☞ 미군장갑차 여중생대책위 주최로 미군 여중생 살인만행 규탄 제6차 범국민대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림. 대회를 마치고 종묘공원까지 행진. 이날 의정부, 인천, 대구, 울산, 대전, 원주 등에서도 동시다발로 열렸음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게 계신 정순덕 선생님께 매오로 시에서 간병을 다녀옴.

☞ ‘말’ 4권과 ‘민족21’ 10권을 양심수에게 보냄

☞ 출소장기수선생님들과 양심수가족들에게 지원금을 보냄.

☞ 정순덕 선생님에게 간병비를 보냄.

☞ 양심수 88명에게 영치금을 보냄.